

3. (전주)판관공파(判官公派)

득리 得利, 10세, 전주판관공파 중시조 전주판관(全州判官)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7세	8세	9세	10세	11세
									1 得元득원 星州牧使성주목사 조선세종·단종대 1440~1450	星州牧使派 성주목사공파
									2 得亨득형 南海縣令남해현령 조선 세종	南海縣令派 남해현령공파
玄 覃 胤(현담윤) 大將軍門下侍郎平章事 (운하시랑평장사) 延山君(연산군) 諱 景憲公 (경헌공) 고려 의종, 명종대	德 秀(덕수) 兵部尙書 (병부상서) 星山府院君 (성산부원군) 고려 명종대	元 烈(원렬) 太僕尹(태복윤) 고려 충렬왕대	敬興(경여) 典客令(전객령)	欽(금) 左贊成 (좌찬성)	1 致龍(치룡) 都僉議寺事 (도첨의사사)	1 玉 亮(옥량) 禮曹判書 (예조판서) 고려 공민왕 조선 태조대	1 用 武(용무) 司宰監副正 (사재감부정)	珪(규) 古阜郡守(고부군수) 吏曹參議(이조참의) 조선 세종대	3 得利(득리) 全州判官 (전주판관)	分(貢) 監察(監察) 송화현감(松禾縣監)
									4 得貞득정 進士문중	進士公派 진사공파
							2 用休용휴 文司評 문사평	司評公派사평공파		
							3 用富용부 開國功臣 判尹 조선 태조 1390	判尹公派판윤공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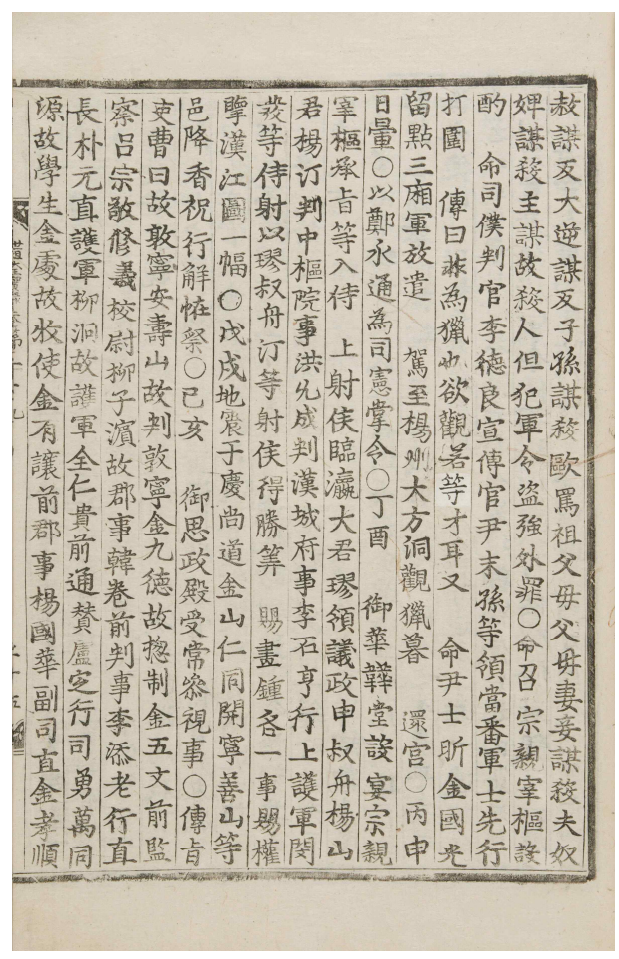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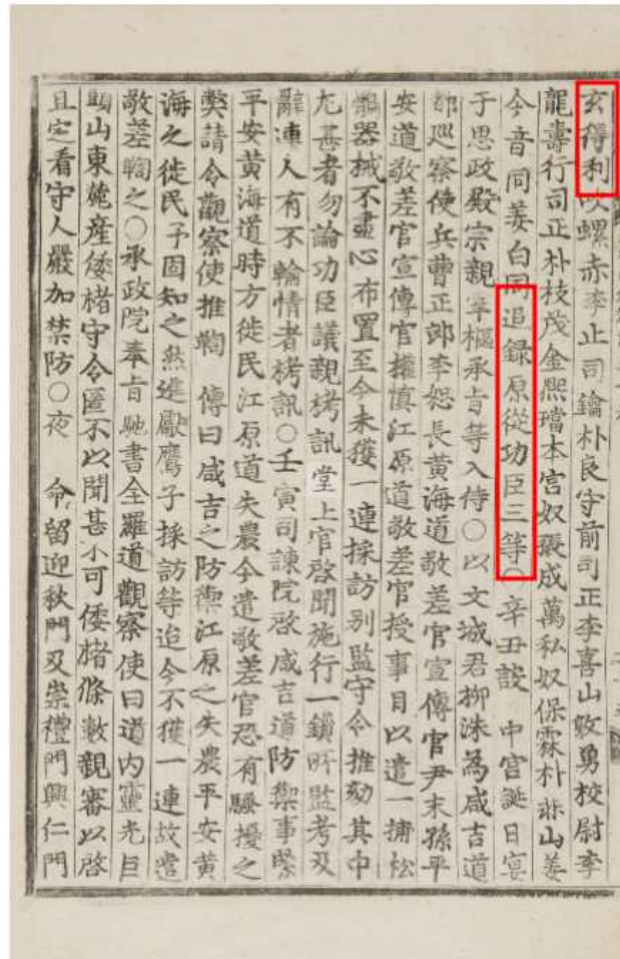
판서공(判書公) 7세 옥량의 증손(曾孫)이다. 1462년(조선세조 8년)에 부사직(副司直)으로 원종공신(原從功臣)을 임명받은 후, 음직(蔭職)으로 전주판관(全州判官)에 보충발령(補充發令)을 받았다. 1465년(세조 11년)에 문과(文科)에 급제(及第)하였으나 공의 조카사위 되는 유양춘(柳陽春)이 예조(禮曹)에 소송(訴訟)하여 과거(科擧) 급제(及第)를 삭제당했다. 1467년 이시애(李施愛)의 난(亂)에 의병을 일으켜 진압하다가 순국(殉國)했다고 족보에 기록되어 있다.

음직(蔭職) : 고려와 조선 시대에 음서(蔭敍) 제도를 통해 부여된 관직. 공신이나 5품 이상의 고위 관료의 자제들에게 부모나 조상의 공로를 근거로 과거시험에 관계없이 관직을 주던 제도로 "문음(門蔭)"이라고도 불렸다. 음직은 주로 실무와 관련 없는 산직(散職)으로 시작되었으며, 특정 시기나 상황에서 주어졌다

조선왕조실록에 원종공신(原從功臣) 3등(三等)으로 임명되신 기록이 있다

조선왕조실록 세조 8년 임오 11월 9일 기해(1462년, 천순) ○傳旨吏曹曰: 故敦寧安壽山、故判敦寧金九德、故摠制金五文、前監察呂宗敬、修義交尉柳子濱、故郡事韓卷、前判事李添老、行直長朴元直、護軍柳洞、故護軍全仁貴、前通贊盧定行、司勇萬同源、故學生金處、故牧使金有讓、前郡事楊國華、副司直金孝順・玄得利、吹螺赤李止、司鑰朴良守、前司正李喜山、敦勇校尉李龍壽、行司正朴枝茂・金熙璫、本宮奴張成萬、私奴保霖・朴非山・姜今音同・姜白同追錄原從功臣三等。 이조(吏曹)에서 전지(傳旨)하기를, “고(故) 둔녕(敦寧) 안수산(安壽山)·고 판둔녕(判敦寧) 김구덕(金九德)·고 총제(摠制) 김오문(金五文)·전 감찰(監
--

察) 여종경(呂宗敬)·수의 교위(修義校尉) 유자빈(柳子濱)·고 군사(郡事) 한권(韓卷)·전 판사(判事) 이첨로(李添老)·행 직장(行直長) 박원직(朴元直)·호군(護軍) 유형(柳洞)·고 호군 전인귀(全仁貴)·전 통찬(通贊) 노정행(盧定行)·사용(司勇) 만동원(萬同源)·고 학생(學生) 김처(金處)·고 목사(牧使) 김유양(金有讓)·전 군사(郡事) 양국화(楊國華)·부사직(副司直) 김효순(金孝順)·현득리(玄得利)·취라치(吹羅赤) 이지(李止)·사약(司鑰) 박양수(朴良守)·전 사정(司正) 이희산(李喜山)·돈용 교위(敦勇校尉) 이용수(李龍壽)·행 사정(行司正) 박지무(朴枝茂)·김희당(金熙瑯)·본궁(本宮) 노비 장성만(張成萬)·사노(私奴) 보림(保霖)·박비산(朴非山)·강금음동(姜今音同)·강백동(姜白同)은 원종 공신(原從功臣) 3등(三等)으로 추록(追錄)하라.”하였다.



원종 공신(原從功臣) : 조선 때 정공신(正功臣) 이외에 작은 공(功)이 있는 사람에게 주던 공신의 칭호.

문과시험 합격 기록

현득리의 문과시험 합격 기록	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
[문과] 세조(世祖) 11년(1465) 을유(乙酉) 식년시(式年試) 정과(丁科) 23위(33/33) ·선발인원 33명 [乙3·丙7·丁23] ·전력 판관(判官) ·문과시제 책문(策問) : 경륜(經綸) ·타과 1441년(세종 23) 신유(辛酉) 식년시(式年試) ·기타 과거 부정(주1)	

과거급제를 삭제 당하신 기록

조선왕조실록 세조 11년 을유 3월 17일 갑자 (1465, 성화) 전주 판관 현득리의 과거장에서의 부정을 벌하다 전주 판관(全州判官) 현득리(玄得利)는 성품이 본시 간홀(姦譎)하였는데, 그가 문과(文科)의 국시(國試)에 부거(赴舉)할 때에 외질(外姪) 유양춘(柳陽春)과 장옥(場屋)에 들어가기를 약속하고 자신의 재주가 유양춘에게 미치지 못함을 분간하고는 먼저 종이 수십 폭(幅)을 유양춘에게 주어 권자(卷子)를 만드는데 색(色)과 모양을 같게 하고는 현득리가 은밀히 표지(標紙)를 바꾸어, 유양춘으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하였다. 이미 방(榜)이 나왔는데, 현득리는 급제하였으나 유양춘은 낙제(落第)하였다. 시관(試官) 김수령(金壽寧)이 평소에 유양춘의 재주를 알았으므로, 낙권(落卷 : 과거에 불합격한 사람의 답안지)을 찾아 유양춘이 지은 것을 얻어 보니, 글이 매우 거칠고 졸렬하였다. 김수령이 이것을 유양춘에게 말하니 유양춘은 현득리에게 속았음을 알고 이를 밝히려고 하였으나, 유양춘이 어려서 현득리에게 양육되었으며, 그 외조모(外祖母)가 말려서 얻지 못하더니, 드디어 도승지(都承旨) 노사신(盧思愼)에게 호소하여, 노사신이 이를 아뢰니, 명하여 사헌부에 내려 국문하게 하였다. 유양춘이 송정(訟庭)에 이르러 현득리를 면詰(面詰)하여도 조금도 가차(假借)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나, 마침내 현득리의 홍패(紅牌)를 거두었다	○甲子/全州判官玄得利，性本姦譎，其赴文科國試也，與外姪柳陽春，約入場屋，自分才不逮陽春，先以紙數十幅授陽春，作卷子色樣相同，得利密換標紙，不令陽春知。既榜出，得利中而陽春落第。試官金壽寧素知陽春才，搜落卷得陽春所作詞，甚蕪拙。壽寧以語陽春，陽春知爲得利所賣，欲發之，陽春少養於得利，其外祖母，止之不得，遂訴於都承旨盧思愼，思愼以啓，命下司憲府鞠之。陽春至訟庭，面詰得利，不少假借，<u>竟收得利紅牌。</u>
--	--

政院更問以啓○甲子全州判官玄得利性本姦謫其赴文科
國試也與外姪柳陽春約入場學自分才不逮陽春先以紙數
十幅授陽春作卷子色樣相同得利密換標紙不令陽春知既
榜出得利中而陽春落第試官金壽寧素知陽春才搜落卷得
陽春所作詞甚無拙壽寧以語陽春陽春知為得利所賣欲
殺之陽春少養於得利其外祖母止之不得遂訴於都承旨盧
思慎思慎以啓 命下司憲府鞠之陽春至訟庭面詰得利不
少假借竟收得利紅牌○乙丑吏曹啓舊法吏典去官者各其
司磨勘仕日多少錄當次人姓名啓達以擬叙用今者本曹和
會諸司吏典隨品去官而諸司尚循舊例各以其司啓達其為
不可請自今令諸司計本司吏典之仕移文本曹 從之○丁
卯戶曹啓諸邑諸浦監陳陳相因日漸消融請依義倉例從民
自願預散於民秋成每監一石折稍二石收納 從之○戊辰
命召司憲府大司憲金從舜曰設置憲府欲其分別是非伸國
法也南怡朴好善之獄宗簿雖已受教移開為法司者所當

이시애의 난에 참전한 기록

반란을 일으킨 이시애가 임금께 장계를 올렸는데 그 내용을 간추려보면, “함경도 전도사 강효문이 한명회, 신숙주, 김국광, 노사신, 한계희 등 조정의 대신들과 반역을 꾀하여 군대를 일으키고 여진족 올랑합족 군대와 연합하여 도성으로 쳐들어가려 하기에 이시애 자신이 강효문과 수하들을 죽였으며, 반역의 내용을 알고 있는 현득리와 고읍동을 잡아두고 있다”는 기록이 세조실록에 전한다.

세조실록 42권, 세조 13년 5월 16일 경진 1번째 기사

1467년 명 성화(成化) 3년 전 회령 절제사 이시애가 반역을 모의하고 수령들을 살해하다

함길도(咸吉道)길주(吉州)사람인 전 회령 절제사(會寧節制使) 이시애(李施愛)가 그 아우이시합(李施合)과 더불어 반역(不軌)을 모의하고, 먼저 절도사(節度使)강효문(康孝文)을 제거하려고 하였다. 마침강효문이 진영(鎭營)을 순찰하여 본주(本州)에 이르니, 이시애가 반적(反賊)이라 성언(聲言)하고, 밤중에 몰래강효문이 사통하는 기생산비(山非)로 하여금 내응(內應)하게 하여, 강효문이 깊이 잠이 든 것을 엿보아 문을 열게 하고, 정병(正兵)최자치(崔自池)로 하여금 돌입하여 찔러 죽이게 하였는데, 강효문이 몸을 빠져 뛰쳐나오므로 곧 추격하여 때려 죽이고, 그 머리를 들의 나무에 매달았더니, 얼마 아니 되어 그 나무가 말라 죽었다. (중략) 그리고 군관(軍官)현득리(玄得利)의 공초(供招)에 이르기를, ‘내가 일찍이 세 차례나 상경(上京)한 것은, 절도사강효문이후라도도(厚羅土島)의 적과 도내(道內)의 군사(軍士)들을 거느리고 상경하고자 하여, 한명회(韓明澮)와신숙주(申叔舟)·김국광(金國光)·노사신(盧思愼)·한계희(韓繼禧)등에게 통서(通書)하여 약속을 정하려고 함이었는데, 글을 이들에게 다 주어서 모두 응낙(應諾)하여, 이내 돌아와서강효문과 우후(虞候)정육을(鄭六乙)에게 밀보(密報)하였다.’ 하고, 또 공사(供辭)하여 이르기를, ‘강효문이 이달 초 7일에정육을을 5진(鎭)에 보내어 제장(諸將)에게 군사를 더 뽑아 오도록 약속하고, 강효문은 바로 부절도사(副節度使)황기곤(黃起峴)과 상응(相應)하여경성부(鏡城府)를 출발해서 이달 초 10일에길주(吉州)에 도착하였기 때문에, 신이 군중(軍

○庚辰/咸吉道吉州人, 前會寧節制使李施愛, 與其弟施合謀不軌, 欲先除節度使康孝文。會, 孝文巡鎭至本州, 施愛聲言反賊, 夜半密令孝文所私妓山非內應, 伺孝文睡熟開戶, 使正兵崔自池, 突入刺之。孝文脫身走出, 即追撲殺之。梟其首於庭樹, 未幾樹爲之枯。(중략) 又軍官玄得利供招云: ‘我曾三次上京者, 節度使康孝文欲率厚羅土島賊, 及道內軍士上京, 通書韓明澮、申叔舟、金國光、盧思愼、韓繼禧等, 以定約束。我以書悉付之, 皆應諾, 乃還密報于孝文及虞候鄭六乙。’ 又供云: ‘孝文今月初七日, 送六乙于五鎭, 約諸將加抄軍士以來。孝文則仍與副節度使黃起峴相應, 發鏡城府, 初十日到吉州, 故臣會議軍中, 已捕殺孝文等, 令司直李施合, 領吉州軍士二十人, 捕殺其黨六乙, 及鏡城以北諸鎭將, 囚得利、古邑同等, 以待親問。’”

中)에서 회의(會議)하여 이미강효문등을 잡아 죽이고, 사직(司直)이시함(李施合)으로 하여금길주(吉州)군사 20인을 거느리고 그의 무리정육을과경성(鏡城)이북의 여러 진장(鎭將)을 포살(捕殺)하게 하고, 현득리(玄得利)와고읍동(古邑洞)등을 가두어서 놓고, 친문(親問)하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하였다.

子雲曰節度使康孝文不體予撫恤軍民之意橫創民財贈送
推門慈寧又與法當推幾今以許琮代之卿其因孝文行節度
使事待琮赴任拿孝文來○康威感吉道吉州人前會寧衛制
使李施愛其弟施合謀不軌欲先除節度使康孝文會孝文
赴鎮至本州施愛聲言及賊夜半密令孝文所私妓山非內應
伺孝文睡熟開戶使正兵崔自地突入刺之孝文脫身走出叩
走撲殺之梟其首於庭樹未幾樹為之枯賊奔殺評事指微
救使薛丁新判官朴順達富寧府使金益壽軍官成以乾康威
孝李提崔提金壽同韓熙金繼南康興孫等道知印李克技馳
狀曰元良等屢屢告賊無到泊厚羅土島而孝文不之問賊曉
焚慶源鍾城公私廬舍孝文以慶源節制使李宗顯家奴而不
之察也清道連山往新縣監元孟孫家奴古邑同與水營鎮指
河水長等四十人同舟多載米穀及馬鞍鎗鼓等物來泊吉州
破脫云欲諸兵元伏各盡殺此道人物孝文與救使判官取古
邑同拾或或會似若回陸路來者又今方表月多率諸鎮指

兵到吉州又抄精兵云汝輩當此時勦力則京中大臣內應可
成大事使丁新順達蓋壽舍下北萬戶金正安等各率鎮兵向
京軍官玄得利招格云我曾三次上京者而度使康孝文欲
率厚羅土島賊及道內軍士上京通書翰明倉申叔舟金國光
盧思慎韓繼禧等以定約束我以書悉付之皆應諾乃還密報
于孝文及虞侯鄭六乙又供云孝文全月初七日選六乙于五
鎮約諸將加抄軍士以來孝文則仍與副節度使黃起崐相應
費鎮城府初十日到吉州故臣會議軍中已捕殺孝文等令司
直李施合領吉州軍士二十人捕殺其黨六乙及鏡城以北諸
鎮將囚得利古邑同等以待親問上覽之即召克技問施愛
及狀台妓城君吳致寬左贊成曹錫文都承旨尹弼商更鞠
之克技陰右施愛不以實對因義禁府獄開城君崔嵩以施愛
所寄書果啓其書曰今呈啓書草照知斯連上達施愛滿之表
弟故前後馳啓必通於需以達上與致寬等密議征討之策
夜分乃罷○辛巳成吉道觀察使申弼據節度副使黃起崐呈

판관공사적(判官公事蹟)에 의하면,(판관공사적 요약)

공의 휘(諱)는 득리(得利)시니 판서공(判書公)의 증손(曾孫)이다. 공은 일찌기 음직(蔭職) : 고려시대 공신功臣과 5품 이상의 고급 관료 자제들에게 부조父祖의 문음門蔭으로 주어 진 관직)으로 통훈대부 전주판관(通訓大夫 全州判官)에 보충발령(補充發令)을 받으시고 성화원년(成化元年) 1465년(세조11년)에 문과(文科)에 급제(及第)하셨으나 공의 질서(姪婿)되는 유양춘(柳陽春)이 예조(禮曹)에 소송(訴訟)하여 과거(科擧) 급제(及第)를 삭제 당하시자 2년 후인 「정해년(丁亥年)에 길주(吉州)의 이시애(李施愛)가 반역(叛逆)을 모의하고 군사를 일으켜 전쟁이 발발(勃發)되어 일국(一國)이 다 놀라게 되니 공은 이 때에 의병을 일으켜 적을 치려고 나아가시어 처음에는 공을 세우시다가 그 군세(軍勢)와 군력(軍力)이 쇠진해졌어도 안색도 변치 않으시고 앉아 죽기만 기다리고 있을 때 적이 항복하라고 위협하여도 공은 큰 소리로 적을 꾸짖으시며 죽을 지경에도 항복하지 않으시니 적은 모두 탄식(歎息)하며 말하기를 이는 참으로 충신이며 의사(義士)라 하여 공의 시체를 땅에 묻고 그곳에 충의장군현모(忠義將軍玄某)가 묻히신 곳이니 사람들은 소와 말이 밟지

않도록 하게 하라고 경계표목(警戒標木)을 세웠다.」

公이 전쟁에 나아가시던 날 그 왼손 무명지(無名指)를 잘라 부인에게 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지금 떠나면 생사를 알지 못할 것이니 이 손가락 빛깔이 변하는 날은 내가 곧 죽는 날이니 이것을 잘 살피라」 하시니 부인이 울음을 머금고 그 손가락을 받아 청금(靑錦)주머니에 넣어 옷상자에 간직하고 날마다 펴 보아도 혈색이 처음에 자르던 날과 같이 곱고 아름답더니 하루는 홀연(忽然)히 검게 변하였다.

부인은 공께서 전사하신 줄 알고 목을 놓아 통곡하여 슬퍼하던 중 말 한필이 화살을 물고 와서 향하여 슬퍼하므로 다시 살펴보니 출전하시던 날 타고 가신 말이었다. 생전에 입으시던 옷에 그 화살과 손가락을 염습(歛襲)하여 환성(歡城) 서쪽 이십리 도종(道宗: 현재 천원군天原郡 풍세면豐歲面 용정리龍井里) 북쪽 산(山) 묘향(卯向)에 묘소가 있다. 부인 숙인 천안전씨(淑人 天安全氏)는 부호군(副護軍: 종사품從四品 무관직武官職) 효신(孝信)의 따님이신데 공의 묘소 왼편 곁에 같이 합장하였다.

(이 글은 구암선생(龜巖先生) 이원배(李元培)의 시문집 구암집(龜巖集)의 고적기(古蹟記)에서 발췌하였다)

* 이재형(李載亨, 1665~1741, 호는 송암이고 시문집 송암집(松巖集)이 있다)의 학문을 이어받은 학자 이원배(李元培 : 1745~1802, 호는 구암(龜巖)의 시문집 구암집(龜巖集)에 현배후(玄培厚, 판윤공파 28세)와 현익수(玄翊洙, 판윤공파 28세)등과 문답한 내용이 있다. 구암집은 1820년 현익수 등이 간행하였다.

38.判官公事蹟

公諱得利判書公曾孫也嘗以蔭補通訓大夫全州判官矣 成化元年世祖朝乙酉登文科以姪婿柳陽春(一云妹子)構訴禮曹削科(按科榜註柳陽春以構外叔事亦被謫云則妹子似是)丁亥年吉州賊李施愛謀叛起兵一國震駭公舉往討初頗立功及其勢窮力竭顏色不變坐而待死賊欲脅降則厲聲叱罵至死不絕賊皆嗟歎曰此真忠臣也義士也爲埋公屍立標其處曰忠義將玄某埋此處人不可放牛馬踐踏云(自上文初頗立功至此抄出於龜岩先生李載亨所藏古蹟記)○公於出戰之日斷其左手第四指授其夫人曰我今行生死未可知此指色變之日卽吾死之日也以此爲驗夫人掩泣而受其指以青錦囊盛之藏諸巾笥每日披視血色鮮紅宛然若始斷之日矣一日色忽黯黑而變知其爲戰亡乃放聲大哭蒼黃罔措之際有一鬣者啣矢而至向夫人悲鳴不已果公之出戰時所騎也嗚呼異哉以遺衣裹其矢斂其指葬于天安郡遠西面下道宗北麓西坐之原淑人全氏附左噫公之忠義如彼卓卓故賊亦感服有瘞屍立標之事馬雖微物有啣矢悲鳴之異而九重深遽旣不能褒揚於當世北關絕遠又未能返葬於故鄉子孫之痛恨極矣顧此後孫微劣尙未能叫 闡而得蒙追馳之典尤切痛恨嗚呼公議不泯碩果有報則安知無後日奏達 天陞而追蒙崇典仰慰客土泉下之先靈下伸後孫腔裏之至恨也哉



十世 判官公 諱 得利와 配淑人 天安全氏의 墓(令封)
所在地: 충청남도 천안시 상세면 용정리(하도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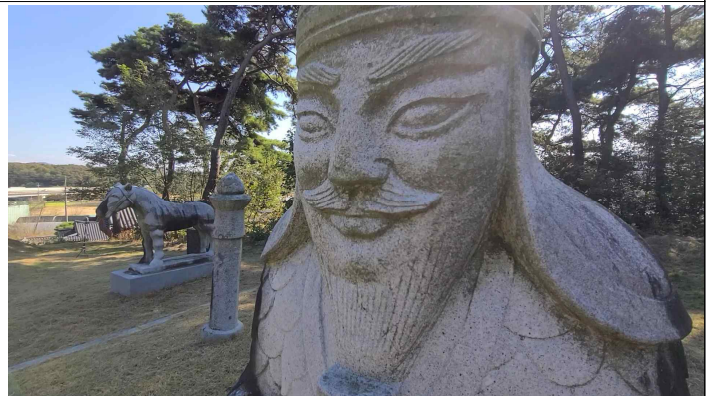
판관공 득리 묘소



판관공 득리 묘제



말 석상



판관공 득리 석상과 말 석상

전주판관현공묘갈명병서(全州判官玄公墓碣銘并序)에 있는 묘소와 직계 후손에 대한 기록
(전주판관현공묘갈명병서 요약)

환성(歡城) 서쪽 이십리 도종(道宗)(현 천원군(天原郡) 풍세면(豐歲面) 용정리(龍井里)
북쪽 산 묘향(卯向)에 묘소가 있으니 즉 고(故) 충신판관(忠臣判官)(종오품(從五品) 현(現)
시장급(市長級)) 현공(玄公) 휘(諱) 득리(得利)의 분묘(墳墓)이다. 이 분묘에는 득리 공의
시신은 없고 생전에 입던 옷과 왼손 네번째 손가락(무명지) 그리고 공이 타던 말이 묻고
온 화살이 묻혀있다고 한다.

부인(夫人) 숙인 천안전씨(淑人 天安全氏)는 부호군(副護軍)(종사품(從四品) 무관직(武官
職)) 효신(孝信)의 따님이신데 공의 묘소 왼편 곁에 같이 합장(合葬)하였다.

공의 아드님은 휘(諱) 분(賁)이시고 송화현감(松禾縣監)이시다. 공의 장손(長孫)인 휘(諱)
윤문(允文)은 습독(習讀, 종6~9품)이요, 차손(次孫)의 휘(諱)는 윤명(允明)이며 관(官)은 사
직(司直, 정5품) 법(法)을 다루는 관직(官職))이시며, 삼손(三孫)의 휘(諱)는 윤무(允武)요
관(官)은 부사직(副司直, 종5품)이다.

39.全州判官玄公墓碣銘并序

歙城西二十里道宗之原有面卯而封者曰故忠臣判官玄公衣履之藏

也公後孫彩東應周抱公遺事謁余以墓銘其懇苦切不忍牢讓乃按而叙之公諱得利星州人高麗平章事景憲公諱覃胤爲其始祖生諱德秀兵部尙書生諱元烈太僕尹生諱敬輿右叅贊生諱嶽左贊成生諱致龍仕本朝都僉議寺事贈領議政卽公高祖以上也曾祖諱玉亮禮曹判書祖諱用武司宰監副正考諱珪郡守妣青松朴林彦女公有器局尙忠節世祖乙酉登文科尋拜全州判官丁亥有北賊李施愛之亂公舉義往討初頗立功竟以衆寡不敵枚賊不屈而死賊嗟歎曰此真義士也忠臣也爲埋公屍而題其所曰忠義將軍某公之墓戒人勿踐傷公出戰日斷其左手第四指授夫人曰今行生死未可知此指變色卽吾致命之日也以此爲驗夫人泣受而盛錦囊藏諸巾笥每日披視血色鮮紅如初一日色忽變黑夫人知其死放聲大哭際有一鬣者啣矢而至向夫人悲鳴不已果公出戰時所騎馬也乃以遺衣裹矢歛指而葬夫人淑人天安全氏副護軍孝信女墓附左有一男曰賁松禾縣監男允文習讀允明司直允武副司直習讀男琛璘孝福僉正以原從勳受錄券司直男球縣監外孫曰梧陰尹公斗壽月汀尹公根壽焉 穆陵名臣副司直男瑚璉通禮院引儀琦宣務郎璫叅奉玄孫曰德升文科禮曹正郎棄官昏朝享天安六賢祠有希庵集八代孫曰尚璧號冠峰學行薦洗馬道德遠高世稱江門八學士之一餘不盡載噫公之烈烈忠義固已樹立於當日如彼其卓身後宜有崇褒之典而寥寥數百稷未得聞其偉蹟實爲識者之恨而內外後孫多以科宦勳業顯者是可驗報施之天而時之顯晦人之知否於公何與焉銘曰粵昔北亂 宗社幾危公能挺身殉忠如歸馬啣矢至并指以葬後之過者疇不敬仰矧是後承克蕃克顯惟德之報神理奚舛道宗之阡化碧攸藏凡百君子式此銘章

隆熙紀元後丙戌孟夏下澣

嘉善大夫 侍講院兼輔德原任 奎章閣直學士 禮安 李貞烈 撰
嘉善大夫前吏曹叅判弘文館副提學同知 經筵義禁府

春秋館事 奎章閣直提學 侍講院檢校輔德 驪興 閔丙承 書并篆

追記

於戲我先祖判官府君之墓今始樹碣實累世積久之功而府君忠義節烈之盛既有原序可考但內外子孫中名宦行義之可書者亦多如諱德仁郡守莅官清直諱應臣殉節壬辰縣監 贈兵叅諱德良治郡有偉蹟贈兵叅諱德顯郡守叅原從勳 贈戶叅德潤軍資正 贈嘉善諱尚龜生員有經行諱僉龜篤孝善書諱鼎龜水軍節制勇力絕人諱遇元判尹有風節諱徵司馬以孝棄叅奉諱徵有文行諱若昊號三碧堂崇氣節爲尤庵宋先生所稱獎諱希喆孝行道薦諱鎮坤生員善文藝諱鎮商文科府使諱永基以文學名諱永益號晚晦齋學問邃高諱基奉生員叅議有孝義風領府使南公九萬文簡公趙公復陽亦以外裔顯猗歟盛矣此可見府君深仁厚德有以啓無疆之休於後嗣而後嗣之克世續述與有光乎烈是皆可記而原序略之故謹就譜牒各派中取其勳德事行之特異書之如右

十三代孫 彩東 敬識

十五代孫 基周 謹書

분賁, 11세, 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 송화현감(松禾縣監)

판관공 득리의 아들이다. 조선전기 문신이며 학자인 광성군(廣城君) 이극감(李克堪)의 사위이다. 벼슬길에 나아가심을 꺼려하셨다. 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로 특보(特補)되어 부득이 그 자리에 나아가셨다가 다시 송화현감(松禾縣監)으로 전임(轉任)하셨으나 바로 사임하신 후 1495년에 돌아가셨다.

* 이극감(李克堪, 1423년 세종5년 ~ 1465년 세조11년) : 조선 전기의 문신이며 학자이다. 세조 1년에 좌익공신 3등에 녹훈되었으며 동부승지, 이조참판을 거쳐 형조판서에 이르렀다. 신숙주와 함께 국조보감(國朝寶鑑)을 수찬하였으며, 『치평요람(治平要覽)』, 『의방유취(醫方類聚)』 등을 교정하여 간행하였다. 시호는 문경(文景)이다. 사후 2년 1467년(세조13년)에 광성군에 봉해졌다.

조선왕조실록에 분(賁)공의 벼슬 임명에 관한 기록이 있다

조선왕조실록 성종 14년 계묘(1483, 성화) 7월 14일(갑진)

이조와 병조 등 각 관사에 국상 중에 수고한 신하들을 논상하게 하다

이조(吏曹)·병조(兵曹)에 전지(傳旨)하기를,
“영평군(鈴平君) 윤계겸(尹繼謙)·사첨시 첨정(司膳寺僉正) 김심(金諶)·예조 참판(禮曹參判) 신준(申浚)·(중략)·사도시 직장(司導寺直長) **현분(玄賁)**·사옹원 봉사(司饗院奉事) 최귀수(崔龜壽)·(중략) 경산 현령(慶山縣令) 손상장(孫尙長)은 각각 한 자급(資級)을 올리도록 하라.

○傳旨吏、兵曹：“鈴平君尹繼謙、司膳寺僉正金諶、禮曹參判申浚、(중략) **司導寺直長玄賁**、司饗院奉事崔龜壽、(중략) 慶山縣令孫尙長，各加一(資)。



* 사도시 (司導寺) : 조선시대 궁중의 미곡과 장(醬) 등의 물건을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서로 직장(直長)은 종7품 관직이다.

현감현공묘갈명병서(縣監玄公墓碣銘并序)에 의하면,(현감현공묘갈명병서 요약)

공의 휘(諱)는 분(賁)이요 성주(星州) 사람이시다. 묘소(墓所)가 영성(寧城;천안시天安市) 북쪽 부대리(富垓里) 동편진좌(東便辰坐) 산언덕에 모셔져 있다.

公께서는 대대로 내려오는 명문거족(名門巨族)으로서 광성군(廣城君) 이극감(李克堪)의 사위가 되었으니 그 성품이 고결하시어 벼슬길에 나아가심을 꺼려하셨다가 늦게야 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로 특보(特補)하니 공께서는 정도가 아닌 것을 아시면서도 부득이 그 자리에 나아가셨다가 잠시 후에 또 다시 송화현감(松禾縣監)으로 전임하셨다가 바로 사임하신 후 서기1495년 (연산(燕山)1년)에 사망하셨다.

공의 처가(妻家)는 명문오군(名文五君)의 집으로 부귀가赫赫(赫赫)하여 한 때 세도가 당당하였는데 범인(凡人)이라면 이 세도처가(勢道妻家)에 의지하여 영화와 부귀를 차지하려고 계책을 도모하였으련만 공께서는 능히 그 시기와 기회를 살피셔서 절개와 지조를 지키기 위하여 벼슬에서 사임하셨으므로 연산군(燕山君)의 폐조(廢朝;폐군의 시대) 때도 무사하셨으니 참으로 깨끗하시고 고귀하신 정신과 백세(百世)의 뒷일을 내다보신 결과가 아닌가 하노라.

공의 부인은 광주이씨(廣州李氏)이신데 공의 묘소와 합폄(合窆 : 합장)하시다. 삼남을 두셨는데 장남은 윤문(允文)인데 벼슬은 습독(習讀)이요, 차남은 윤명(允明)인데 벼슬은 사직(司直)이요, 삼남은 윤무(允武)인데 벼슬은 부사직(副司直)이시다.



十一世 縣監公 諱 貫과 配淑人 廣州李氏의 墓(合封)와 墓碑
所在地 : 충청남도 천안시 북면 부대리(구 불토리)

40. 縣監玄公墓碣銘并序

故縣監玄公墓于寧城北富垵之辰原殆五百有餘年後孫彩東應周奉譜牒謁余以墓銘而曰先祖墓舊有表石實南溟曹先生所述而歲久字沒全不記得將改刻願得吾先生一言揭諸余辭以謏聞不獲乃按其牒公以世家華胄爲女婿於廣城君李克堪性伉高不屑進取晚以蔭補司憲府監察亦以直道忤當路出爲松禾縣監未幾棄歸卒於燕山乙卯蓋李氏世稱五君之家而富貴隆赫震耀一時宜其依附于進以圖倘來之榮貴而公能審時見機介貞自守超然免乎廢朝之日清哉高哉是可以見公於百世之下矣公諱寅星州人始祖有曰草胤高麗平章事景憲公曰德秀兵部尙書曰元烈太僕尹曰敬輿右叅贊曰嶽左贊成曾有公孤大著勝國公五代以上也曰致龍仕 本朝都僉議寺事 贈領議政曰玉亮禮曹判書曰用武司宰監副正曰珪郡守曰得利判官殉忠於北關高曾祖稱外祖曰副護軍天安全孝信妣淑人廣州李氏與公同原爲上下封公有三男允文習讀曰允明司直曰允武副司直習得男曰琛曰璘曰孝福僉正叅原從勳司直男曰球縣監女海澄府院君海平尹忤梧陰文靖公斗壽月汀文貞公根壽其所出勳德冠世副司直男曰珣曰璉通禮院引儀曰琦宣務郎曰璿叅奉男曰德升號希菴文科司藝享天安六賢祠宣務郎五代孫曰尙璧號冠峰逸洗馬世稱江門八學士之一南文忠公九萬趙文簡公復陽亦以外畧顯猗歟盛矣有德者之有後宜如是也於乎公以正直清高之資見時不可則棄官如屣違晦自靖以全其性命詩所云旣明且哲以保其身殆公之謂而內外後承甚蕃衍無慮爲千億益可驗德厚者流光也銘曰燕山之際善類難容惟時惟公色舉潛踪嶢然不滓清明凝神一縣之試太虛浮雲流慶百世子孫千億非麗之以克闡厥德富垵窈窕哲人攸宅過是阡者式敬無斁

隆熙紀元後丙戌重五節

西河 任憲瓚 撰

嘉義大夫前吏曹叅判弘文館副提學同知 經筵義禁府
春秋館事 奎章閣直提學侍講院檢校輔德 驪興 閔丙承 書并篆

득리得利 ->분貰 계보(系譜)

11세	12세	13세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분(貰) 감찰(監察) 송화현감 (松禾縣監) (~1495)	1 윤문(允文) 습독(習讀)	1 침(琛)	1 덕원(德元) 군수(郡守)					
			2 덕형(德亨) 出系구(球)					
		2 인(隣)	덕일(德一)	간(侃) 동지중추부사 同知中樞府事 1581~	慶後경후 1657진사합격	萬極만극	1 尙雲상운 5 漢雲한운	1 守善수선
		2 효복(孝福) 침정(僉正) 원종공신 原從功臣						
	12세	13세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2 윤명(允明) 부사직 副司直 1479~	구(球) 현감縣監 1509-1580	덕형(德亨) 장사랑(將仕郎) 계자(系子) 生父 琛침	건(健) 주부(主簿) 계자(系子) 生父 덕옥 1572-1656	1 榮後영후 출계 척(僞)			
					2 유후(裕後) 참봉			
					3 진후(振後)	징(徵) 광릉참봉(光陵參奉) 미(微) 출계 영후榮後	약호(若昊) 系子 삼벽당	수중(守中)
		사위 윤변 (윤두수 父)	윤두수 윤근수					
	12세	13세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3 윤무(允武) 부사직 (副司直)	1 호(瑚)	덕인(德仁) 군수(郡守)	응신(應臣) 1583 무과합격 현감(縣監)				
		2 련(璉) 인익리儀	1 덕옥(德郁) 좌부장(左部將)	偶척 ~1597	榮後영후 계자(系子) 생부 건健 ~1596	微미 생부 진후振後 1632~	약호 출계 徵징	
				건(健) 출계德후덕형				
			2 덕윤(德潤) 군자정(軍資正)	검(儉)	수후(垂後)	재청(再淸)	약연(若淵)	
		3 기(琦) 습독관선무랑 習讀官宣務郎	1 덕량(德良) 인동현감					
			2 덕옹(德顙) 군수(郡守)	위(偉) 통덕랑(通德郎)	2 석하(錫夏) 선교랑(宣敎郎)	구령(九齡)	상벽(尙璧) 세마(洗馬)	
					3 錫晉 석진	2 億齡 억령	1 尙綱 상경	1 希天 희천
			3 덕룡(德龍)					

			군수(郡守)					
			4 덕린(德鄰) 무장현감					
		4 숙(璫) 참봉 계공랑(啓功郎)	1 덕승(德升) 북평사(北評事)	언(僊) 계자 生父휘 통덕랑	흥준(興俊)?	만원(萬元)	성규(聖圭)	
			2 덕민(德敏) 장사랑(將仕郎)	계(係)	상구(尙龜) 생원(生員) 명구(命明龜)	이원(履元)	진규(震圭) 系子	희철(希喆) 효자
			3 덕립(德立) 통덕랑(通德郎)	식(식)	1 성구(聖龜) 6 정구(鼎龜) 수군절제사 (水軍節制使)	우원(遇元) 판윤(判尹) 2 處元처원	진규(震圭) 出系이원 1 尙穆상목	1 希麟희혁
			4 덕휘(德輝) 통덕랑(通德郎)	언(僊) 출계덕승				
11세	12세	13세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득리得利 ->분貰 -> 1자 윤문(允文) 계보(系譜)

윤문 允文, 12세, 분(貰)의 장남 습독(習讀), 부사직(副司直)

득리(得利, 전주판관공파 중시조)의 손자, 분(貰)의 장남이다. 습독(習讀), 부사직(副司直) 벼슬을 한 것으로 족보에 기록되어 있다. 침(琛), 인(璘), 효복(孝福, 첨정僉正, 원종공신原從功臣) 세 아들을 두었다



* 습독(習讀) : 조선 시대에, 훈련원, 승문원, 사역원, 관상감, 전의감 등에 두었던 종육품~종구품의 임시 벼슬. 또는 그런 벼슬아치. 각기 이문·중국어·천문학·의학·군사학 관계의 지식을 강

습시키기 위해 선발되었다.

* 부사직(副司直) : 조선 시대에, 오위에 속한 종오품 무관 벼슬. 현직에 있지 않은 문관·무관, 그리고 기타 잡직에 있는 사람 가운데서 등용하였다.

간侃, 15세, 자 간여(侃汝), 윤문의 증손(曾孫), 1581년(선조宣祖 14년)생, 노직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老職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 1674년(숙종肅宗, 원년) 11월13일 84세로 돌아가셨다.

* 노직(老職) : 노인에게 특별히 내려 주던 직무가 없는 벼슬. 대개 80세 이상의 양인, 천인에게는 1계(一階)를 주고, 원래 관계(官階)가 있는 종친이나 벼슬아치에게는 1품계(一品階)를 올려 주었다.

경후 慶後, 16세

간(侃)의 차남, 1629년(인조 7년) 출생, 1657년(효종 8년) 식년시(式年試) 생원에 합격한 내용이 사마방목 기록에 있다. 참봉 벼슬을 했다고 족보는 기록하고 있다.

경후(慶後) 식년시(式年試) 생원 합격 기록	정유식년사마방목(丁酉式年司馬榜目)
[생원] 효종(孝宗) 8년(1657) 정유(丁酉) 식년시(式年試) [생원] 3등(三等) 20위 (50/100) · 자(字) 문경(雲卿) · 생년 기사(己巳) 1629년 (인조 7) · 합격연령 29세 · 본인본관 성주(星州) · 거주지 천안(天安)	嚴侍下 鴈行元贊 牙賢賀 幼學姜及 萬用 本晉州 居龍宮 父生貧 胤先 嚴侍下 鴈行 茅濤 沃藏 幼學李亨萬 匡世 本星州 居星州 父幼學 縮 癸亥 吳慶下 鴈行 元亨百 亨北 亨連 幼學玄慶後 已巳 本星州 居天安 父幼學 德 吳慶下 鴈行 元晉後 牙支後 閔後 幼學朴賓 觀國 本密陽 居京縣壁 父通訓大夫行省嶺道察訪 敏行

조선 시대 과거는 문과, 무과, 잡과(역과, 의과, 음양과, 율과)가 있었는데 통칭하여 제과(諸科)라 하였다. 문과는 다시 대과(大科)와 소과(小科)로 나뉘어지나 흔히 문과, 생원시·진사시로 일컫는다. 문과와 생원시·진사시, 잡과는 예조에서, 그리고 무과는 병조에서 주관하였다. 생원시는 오경의(五經義)와 사서의(四書疑)의 제목으로 유교 경전에 관한 지식을, 그리고 진사시는 부(賦)와 시(詩)의 제목으로 문예창작의 재능을 각각 시험하였다. 그리하여 합격자에게 생원 또는 진사라고 하는 일종의 학위를 수여하였다. 생원·진사시에는 3년에 한 차례씩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식년시(式年試)와 국왕의 즉위와 같은 큰 경사가 있을 때 이를 기념해 실시하는 증광별시(增廣別試)가 있었다. 이 시험에서 생원과 진사를 각각 100인씩 뽑고 이들에게 성균관에 입학할 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었다. 소과(小科) 또는 사마시(司馬試)라고도 한다. 관리임용제로서 출발한 문과(文科) 및 무과(武科)나 잡과(雜科)와는 그 성격이 기본적으로 달랐다. 합격자 중의 일부 극소수가 생원 또는 진사의 자격으로 관직에 임명되는 경우가 있기는 했지만, 관리임용제와 직결되는 제도가 아니었다.

과거 급제자의 명단인 사마방목(司馬傍目)에는 급제자의 자(字), 생년(生年), 본(本), 거주지, 부친 이름과 관직, 그리고 가족관계를 표시하고 있다. 具慶下(구경하: 양친 생존), 永感下(영감하: 양친 사망), 嚴侍下(엄시하: 부친만 생존), 慈侍下(자시하: 모친만 생존)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鴈行(안향)이라 하여 형제의 이름까지 기록했다.



十六世 生員 恭奉 諱 慶後와 配 寶城 吳氏의 墓(合葬)
 十七世 號 洛隱 諱 萬極과 配 全州 李氏의 墓(合葬)
 所在地: 大邱廣域市 慶尙道 玄風面 午山二里(葛浦) 松亭

16세 경후(慶後, 생원)와 아들 17세 만극(萬極) 묘소

12세	13세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20세	21세	22세	23세
1 윤문(允文) 습독(習讀)	인(璘)	덕일(德一)	간(侃) 동지중추부사 同知中樞府事	2 慶後경후 1657진사 합격	萬極만극	1 尙雲상운 5 漢雲한운	1 守善수선 守昱수립	1 載弼재필 載元재원	2 鎭樞진추 鎭錫진석	2 永範영범 永吉영길	1 東挺동정 東德동덕
23세	24세	25세	26세	27세	28세	29세	30세				
1 東挺동정	3 應默응묵	1 俊坤준곤	4. 鍾學중학	1 鎭澤진택 2 鎭浩진호	6 慶子경자 국회의원, 夫박철언 2 靜和정화 국가대표탁구선수						
東德동덕	福默복묵	洪奎홍규	英甲영갑	壽鳳수봉	濟明제명 작곡가, 서울음대학장	相悅상열 한양대교수, 재미	勝勛승훈				

경자 慶子, 28세, 1947년생, 제14대 국회의원, 夫박철언(朴哲彦)



정화 靜和, 28세.

국가대표 탁구선수, 감독, 태릉선수촌장. 1969년 부산생, 2000년 서울 올림픽 여자 단체 은 메달리스트, 탁구 세계그랜드슬램(탁구 전종목 우승)단식 세계제1위, 복식 세계제1위, 혼복식 세계제1위, 단체전 세계제1위. 한국마사회 탁구단, 워드플레이어(사외이사), 대한탁구협회 부회장(2017),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2008년 제20회 윤곡여성체육대상 지도자상. 저서<꿈의 비망록>



제명 濟明 28세, 작곡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학장 (출처:민족대백과사전)

해방 이후 경성음악학교 교장,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학장 등을 역임한 교육자. 성악가 · 작곡가 · 교육자. 1903년 1월 6일 경상북도 대구 남산동에서 2남 2녀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호는 현석(玄石)이고 창씨개명한 이름은 쿠로야마 사이메이(玄山濟明)다. 기독교 집안에서 성장하여 교회음악을 통해 서양음악에 접하였다. 대구의 기독교학교인 계성학교를 거쳐 1924년 평양 숭실학교 대학부를 졸업하고 전주 신흥학교 교사로 부임하였다. 1925년 미국 시카고 무디성경학교(Moody Bible School)에 입학하였다가 인디애나주에 있는 건음악학교(The Gunn school of Music)로 옮겨 1년간 수학하여 1927년 6월 졸업하고 음악학사

(B.M.)가 되었다.

귀국한 후 연주 및 창작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1929년 2월 27일 공회당에서 귀국독창회를 열었을 때 자작곡인 「석양(후에 「고향생각」)」을 노래불렀고, 같은 해 9월 연희전문학교에서 음악전임강사로 부임하였다. 1929년부터 발매된 빅타음반에 창작 가곡 및 외국 가곡을 취입하였다. 1932년 2월 『현제명 작곡집』 제1집을 발간하였으며, 4월 조선음악가협회를 창설하는 데도 앞장섰다. 1933년 홍난파와 함께 작곡발표회를 가졌으며, 같은 해 교육 면에서도 연희전문학교에 재직하며 관현악단 · 취주악단 · 합창단 · 중창단 등을 조직하였고, 교양 과목과 특별활동의 음악부를 육성하여 음악 보급에 힘썼다. 이후 1936년 6월 미국 시카고 음악연구원에서 「자연발성법의 원리와 그 결과」라는 논문으로 음악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고 전해진다. 졸업 후 유럽을 거쳐 1937년 2월 귀국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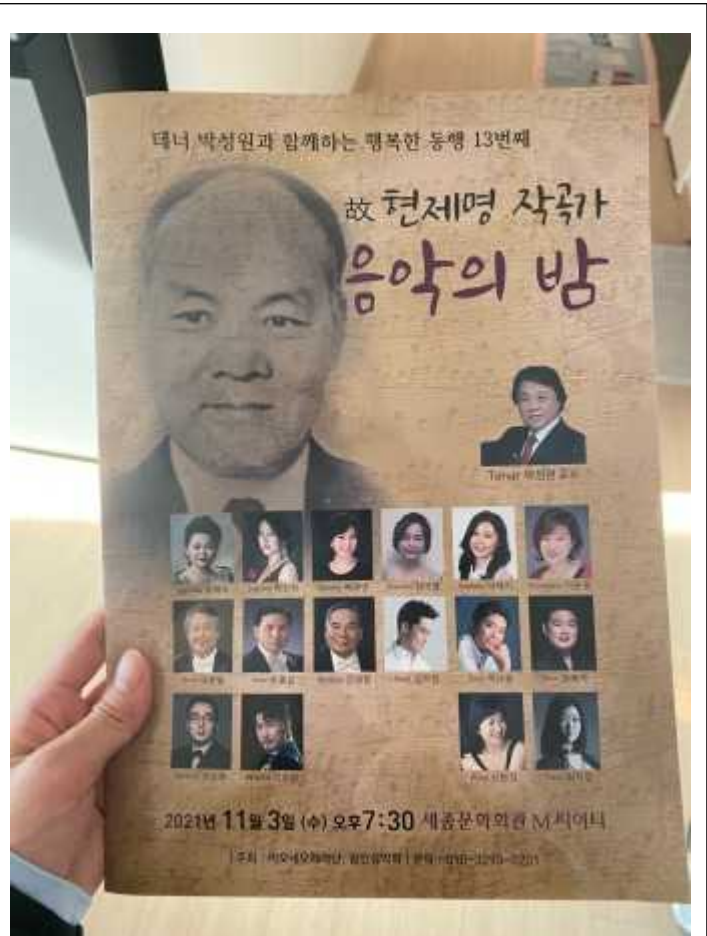
1937년 ‘동우회(同友會) 사건’을 전후하여 일제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을 지지하는 가요를 작곡하고 친일단체에 가입하였다. 1937년 5월 창립된 친일문예단체인 조선문예회 위원으로 참여하였고, 6월 ‘동우회사건’에 연루되어 검거되어 고초를 치렀으며, 7월 조선문예회 작품 발표회에서 자신이 작곡한 「송별」, 「장성(長城)의 파수(把守)」를 발표하였다. 9월 30일 매일 신보사가 주최하고 조선문예회가 후원한 ‘바오딩[保定] 전첩(戰捷) 축하 기념연주회’에서 「송별」, 「장성의 파수」를 다시 연주하였고, 「정의의 사(師)여」와 「장성의 파수」를 직접 노래하였다. 10월 경성고등음악학원이 주최하고 경성군사후원연맹과 경기도군사후원연맹이 후원하는 ‘음악보국대연주회’에 출연해 「전지(戰地)로」를 독창하였고, 출연자 수익금 모두를 일제의 침략전쟁을 위한 국방헌금에 헌납할 것을 결의하였다.

1938년 6월 사상전향자를 회원으로 하면서 반공을 내세운 대동민우회에 동우회사건 관련자들과 함께 가입하였고 ‘전향성명서’를 발표하였다. 10월 음악을 통해 내선일체를 굳게 하자는 취지의 경성음악협회를 조직할 때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간사에 선임되었다. 1941년 9월 조선임전보국단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10월 평의원에 선임되었다. 1943년 2월 경성후생실내악단이 주최하고 국민총력조선연맹이 후원한 국민음악연주회에서 「바다로 가면」과 「이 결의」를 개창 지도하였고, 3월에는 ‘전의양양국민대합창음악회’에서 「아시아의 힘」과 「십역의 진군」 등을 불렀다. 1944년 4월 조선연극문화협회 회원자격심사회의 부문심사위원으로 위촉되었고, 5월 경성후생실내악단 이사장에 취임하였으며, 7월 조선음악협회 이사로 선임되었고, 8월 음악기예자 자격시험 심사위원으로 활동하였다. 1945년 5월 ‘결전음악 수립과 활발한 공연 공적’을 기려 신태양사가 주는 조선예술상을 수상하였고, 부상으로 받은 500원을 해군훈병금으로 헌납하였다.

해방 후 1945년 9월 고려교향악단을 조직해 1948년까지 이사장으로 운영하였으며, 1945년

9월 한국민주당 발기인 겸 중앙위원회 문교부 위원에 선임되었다. 1946년 2월 경성음악연구원이 경성음악학교로 인가받으며 교장으로 취임하였고, 8월 서울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부로 편입되면서 초대 음악부장을 맡았으며 1952년 학장이 되었다. 1949년 1월 문교부 예술위원회 음악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고, 1953년 한국음악가협회를 창립하여 초대 이사장으로 선출되었고, 1954년 예술원 종신회원으로 선임되었다. 1954년과 1955년에 미국 NBC교향악단의 내한공연 등을 주선하였고, 1955년 마닐라 아시아음악회의 참석과 1958년 유네스코국제음악회의 참가 등을 계기로 한국음악의 국제적 진출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1954년 제1회 예술원상을 받았다. 1960년 10월 16일에 고혈압으로 사망하였다. 사후 1965년 문화훈장이 추서되었다.

대표작품으로 가곡 「춘향전」·「왕자 호동」 등이 있고, 가곡 「고향생각」·「산들바람」·「그 집앞」·「희망의 나라로」·「나물캐는 처녀」 등이 있다.



고향 생각 (Orig. Ab Major) 조성모 작곡 조성모 편곡 Andantino	
--	--

* 동우회(同友會) 사건 :

1937년에 일제가 수양 동우회와 관련된 180여 명의 지식인을 검거한 사건. 41명이 기소되었다가 무죄로 석방되었으나, 이 과정에서 지식인 다수가 친일로 돌아섰다.

참고문헌

『동아일보』(1931.2.13.)/『한겨레음악대사전』(송방송, 보고서, 2012)/『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 IV-19(친일반민족행위자진상규명위원회, 현대문화사, 2009)/『친일인명사전』(민족문제연구소, 2009)

득리得利 ->분賁 -> 2자 윤명(允明) 계보(系譜) -> 3-1 (영암)사직공계(靈巖司直公系)

득리得利 ->분賁 -> 3자 윤무(允武) 계보(系譜)

12세	13세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20세	21세	22세	23세
1 윤문允文 습독習讀	1 침(琛)	1 덕원(德元) 군수(郡守) 2 덕형(德亨) 出系구(球)									
	2 인(璘)	덕일(德一)	간(侃) 동 지 중 추 부사 同 知 中 樞 府事	慶後경후 1657진사합격	萬極만극	漢雲한운					
	3 효복(孝福) 첨정(僉正) 원종공신 原從功臣										
12세	13세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20세	21세	22세	23세
2 윤명允明 부사직 副司直 1420~	구(球) 현감縣監	덕형(德亨) 장사랑(將 仕郎) 계자(系子) 生父 琛침	건(健) 주부(主簿) 계자(系子) 生父 덕욱	1 榮後영후 출계 척(倬)							
				2 유후(裕後) 참봉							
				3 진후(振後)	1 징(徵) 광릉참봉 (光陵參奉) 2 미(微) 출계 영후榮後	약호(若昊) 系子 삼벽 당 수중(守中)					
	사위 윤변 (윤 두 수 父)										
12세	13세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20세	21세	22세	23세
3 윤무允武 부사직 副司直	1 호(瑚)	덕인(德仁) 군수(郡守) 1583 무과합격 현감(縣監)	응신(應臣) 1583 무과합격 현감(縣監)								
	2 련(璉) 인의 引儀	1 덕욱(德郁) 좌부장 (左部將)	1 倬척 ~1597	榮後영후 계자(系子) 생부 건健 ~1596	微미 생부 진후振後 1632~	약호 출계 徵징					
			2 건(健) 출계 德亨덕형								
		2 덕운(德潤) 군자정 (軍資正)	검(儉)	1 수후(垂後)	재청(再淸)	약연(若淵)	희증希曾	載成재성	鎭坤진곤	永升영승	厚東후동
	3 기(琦) 습독관	1 덕량(德良) 인동현감		4 碩後 석후	1 沃옥	1 若漢 약한	1 載應 재응	1 載應 재응	1 鎭學 진학	1 永位 영위	5 大東 대동

	선무랑 習讀官 宣務郎	2 덕옹(德頤) 군수(郡守)	위(偉) 통덕랑 (通德郎)	석하(錫夏) 선교랑 (宣敎郎)	구령(九齡)	상벽(尙璧) 세마(洗馬)	희원希遠	載岳재악	鎮常진상	永益영익	
				3 錫晉 석진	2 億齡 억령	1 尙桐 상경	1 希天 희천	6 載七 재칠	1 鎮九 진구	1 永璿 영선	1 箕東 기동
		3 덕룡(德龍) 군수(郡守)									
		4 덕린(德鄰) 무장현감									
	4 숙(璫) 참봉 계공랑 啓功郎	1 덕승(德升) 북평사 (北評事)	언(僊) 통덕랑	흥준(興俊)?	만원(萬元)	성규(聖圭)	희일希一	재복載福	진옥鎮玉	영기永基	
							희증希曾	재성載成	진곤鎮坤		
		2 덕민(德敏) 장사랑 (將仕郎)	계(係)	상구(尙龜) 생원(生員)	이원(履元)	진규(震圭) 系子	희철(希喆) 효자	재흥載弘	진구鎮九	영오永五	익동翼東 종사랑 從仕郎
		3 덕립(德立) 통덕랑 (通德郎)	식(식)	1 성구(聖龜)	우원(遇元) 판윤(判尹)	진규(震圭) 出系이원					
				6 정구(鼎龜) 수군절제사 水軍節制使	2 處元처원	1 尙穆상목	1 希憐희혁	1 載寅재인	4 鎮配진배	2 永祿영록	2 世東세동
		4 덕휘(德輝) 통덕랑 (通德郎)	언(僊) 출계덕승								
12세	13세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20세	21세	22세	23세

윤무 允武, 12세. 보공장군(保功將軍), 충무위 부사직(忠武衛 副司直)

득리(得利)의 손자, 분(賁)의 3남, 보공장군(保功將軍), 충무위 부사직(忠武衛 副司直) 벼슬을 한 것으로 족보에 기록되어있다. 네 아들 호(瑚), 련(璉, 인의리儀 벼슬), 기(琦, 습독관習讀官, 선무랑宣務郎 벼슬), 숙(璫, 참봉參奉, 계공랑啓功郎 벼슬)을 두었다.



12세 윤무의 묘소

3자 윤무-1자 호(瑚)系

호 瑚, 13세. 묘 천안풍세면 대정리

12세	13세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20세	21세	22세	23세	24세	25세	26세	27세	28세	29세	30세
윤 무 允武 부사직 副司直	1 호 瑚	2 덕인 德仁 군수 郡守	응신 應臣 1583 무과합격 武科合格 현감 縣監															
		2 德義 덕의	2 豐南 풍남	1 戒立 계립	1 萬徵 만징	2 奎世 봉세	2 得莘 득신	1 仁復 인복	2 鎭弼 진필	2 永珠 영주	2 明東 명동	1 光錫 광석	2 昌周 창주	1 錫埴 석준	1 棟淳 동순			

응신 應臣, 15세. 형조좌랑(刑曹佐郎), 임실현감(任實縣監)

윤무(允武)의 증손자, 호(瑚)의 손자다. 형조좌랑(刑曹佐郎)과 임실현감(任實縣監)을 역임했으며 임진왜란(壬辰倭亂) 때 현감(縣監)으로 순절(殉節)하셨다. 호성공신(扈聖功臣)에 봉해졌으며, 인조 기묘년에 병조참판(兵曹參判, 종2품(從二品))으로 증직(贈職)을 받으셨다는 족보의 기록이 있다.

현응신의 무과 합격 기록	
[무과] 선조(宣祖) 16년(1583) 계미(癸未) 별시(別試) 을과(乙科) 30위 (31/500) 자(字) 경보(景甫) 생년 정사(丁巳) 1557년 (명종 12) 합격연령 27세 본인본관 성주(星州) 거주지 아산(牙山)	만력11년계미9월초3일별시방목(萬曆十一年癸未九月初三日別試榜目)

保人金 憲 原仲 冷士 六元州 居長臺 父修義副尉 大年 慈侍下 鴈行 無司成永遇 景時 丙午 本昌寧 居京 大成均進士 院 慈侍下 鴈行 元永建 永遵 身永建 定勇玄應臣 景甫 丁巳 本星州 居牙山 父分字 德仁 具慶下 鴈行 身應元 定李大年 仁又 丙午 本慶州 居靈光 父樂梅 軍 天	
--	--

이충무공전서(李忠武公全書)와 조선왕조실록 등에 현응신의 기록이 있다.

李忠武公全書卷之八(이충무공전서8권/亂中日記四(난중일기4)) 1597년(丁酉,선조30년, 7월) 初一日庚寅。曉雨晚晴。是日。乃仁廟國忌。而黃從事聽笛于大川邊云。可愕。 十二日辛丑。方應元，玄應辰，洪禹功，林英立等。自朴名賢處來到。 방응원, 현응신, 홍우공, 임영립 등이 박명원 이 있던 곳에서 왔다. 十三日壬寅。晴。南海送簡。多致食物。又云戰馬率去。晚。李台壽，趙信玉，洪大邦來言討賊之事。十四日癸卯。晴。戰馬率來事。送鄭翔溟于南海。與方應元，尹先覺，玄應辰，洪禹功等話。禹功不欲從軍。托臂病可愕。 방응원, 윤선각, 현응신, 홍우공 등과 함께 얘기하였다. 홍우공은 팔이 아파서 종군하고 싶지 않다고 하니 놀랄 일이다. ○ 十八日丁未。晴。曉。李德弼，卞弘達來傳。十六日曉。舟師大敗。統制使元均，全羅右水使李億祺忠清水使崔湖及諸將等多數被害云。不勝痛哭。有頃。元帥到來曰。事已至此。無可奈何。話到巳時。不能定策。余告以吾往沿海之地。聞見而定云。則元帥欣然。余與宋大立。柳滉，尹先覺，方應元，玄應辰，林英立，李元龍，李喜男，洪禹功發程。到三嘉縣。則主倅新到出待。韓致謙亦來。 나는 "내가 연해안 지대로 가서 직접 보고 듣고 한 연후에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더니 원수가 기뻐하였다. 나는 송대립, 유향, 윤선각, 방응원, 현응신, 임영립, 이원룡, 이희남, 홍우공 등과

之聞賊首劉七男孫子我劉順行在生其
難來此云聞來復可憐矣我李帥恃性在舟
師舟師如是無復可望極將李峰為賊所縛
云尤極痛恨

初七日丙午雨遂李喜男于黃從事處傳世男
之訖

十八日丁未晴曉李德嗣下弘達來傳十六日
十八日
賊舟師大敗統制使元均全羅右水使李億
祺退清水使崔湖及諸將等多數被害云不
勝痛哭有頃元帥到來曰事已至此無可奈
何詰到已時不能支稟告以吾往沿海之
地聞見而定云元帥欣然余與宋大立柳
深尹先覺方應元玄應辰林吳立李元龍李
喜男洪禹功拔程到三嘉縣則主伴新到出
待籍致議亦未

十九日戊申雨兩上丹城東山山城觀其形勢
則極險賊不能窺也因宿于丹城

二九一

事

十四日癸卯曉戰馬率來事遂鄉相濱于南海
與方應元尹先覺玄應辰洪禹功等語禹功
不欲從軍平賊病可憐○黃從事遂鄉仁懇
問安且示金海附賊人金億告曰初七初八
倭船五隻餘倭出來于釜山廿九日倭船十
隻合勢與我舟師相戰于絕影島前洋而我
柔容事書卷之八 十七

戰船漂沉于釜浦七隻無去處云聞之不
勝憤慨即馳去于黃從事處議事
十五日甲辰或雨或晴李中軍德嗣來因開舟
師二十餘隻為賊敗敗憤憤痛憤
十六日乙巳雲霞松進面居和奴奴世男有西
生浦赤身到來嚴其則七月初五日以虞
使所騎船格柙漆川梁到泊初六日入于王
浦初七日未明由未串到多大浦則倭船八
隻留泊諸船直突賊人無遺下陸空船掛在
我舟師曳出衝火仍向釜山絕影島外洋值

李億事書卷之八 十八

言山城之事○午後往于元帥陣則左兵使
軍官押降倭二名而來乃清正所率云
初四日癸巳晴黃從事遂鄉仁怒問安李芳及
柳泥來自募軍
初五日甲午雨下存緒往馬訖訪
初六日乙未晴下存緒自馬訖訪還來安珪兄
承亦隨與伯而來

李億事書卷之八 十九

初七日丙申晴宜倅倅金餘來自高靈雲言兵
使處事頗煩
初八日丁酉晴家主李於海與崔白輔來見
初九日戊戌晴明欲遂葦于牙山應親悲泣向
夜不寐
初十日己亥晴以遂葦與下存緒事坐以待曉
情不能自抑痛哭而遂○黃從事來話移時
夕獨坐空堂懷思甚惡向夜不寐
十一日庚子晴下弘達仲等來見
十二日辛丑方應元玄應辰洪禹功林英立等

병조가 아뢰기를,
"요즘 각진(各陳)의 전후 장계(狀啓)에 기록된 도망한 군졸 중에 정범(情犯)이 좀 가벼운 자는 전에 계하하신 대로 벌미(罰米)를 바치도록 이미 각도(各道)에 행이(行移)하고 일건의 책을 만들어 호조에 이문(移文)해서 호조에서 독촉하여 받아들이게 하였으며, 정범이 좀 중한 자는 비밀히 본도(本道)에 이문하여 일일이 붙잡아서 본조(本曹)에 압송해 본진(本陣)에 전송(轉送)함으로써 주장(主將)들로 하여금 각각 경중에 따라 차례로 과죄(科罪)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범이 가장 무거운 자는 효시(梟示)하여 군중(群衆)을 징계시키기도 하고, 율(律)에 의하여 처단하기도 하라는 것으로 계하(啓下)하신 것을 행이(行移)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변(事變)을 겪은 뒤로는 각 고을에 전송(轉送)되는 해조(該曹)의 공사(公事)를 으레 보통의 일로 보아 대죄(大罪)를 범한 사람을 오래도록 버려둔 채 논죄하지 않고 있으니 이 또한 매우 온편하지 못한 일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심한 자는 잡아다가 국문(鞫問)하여 그 정범(情犯)을 살펴서 참작하여 죄를 정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요즈음 왕옥(王獄)이 가득 차 있는데 대해 의자(議者)들은 자못 불행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조(本曹)가 우선 기대하는 바가 있어 감히 품재(稟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어사(防禦使)고언백(高彦伯)의 장계에는 ‘군관(軍官)함백규(咸伯奎)가 심복(心腹) 정예병 15명을 이끌고 도망하였으니 군중(軍中)에 효시(梟示)하여 다른 사람을 경계시켜야 한다.’ 하였고, 경상 좌병사성윤문(成允文)의 장계에는 ‘첨정(僉正)김세창(金世昌)이 이처럼 전쟁이 한창일 때에 맨 먼저 앞장 서서 도망하였으니, 군중에 효시하여 다른 사람을 경계해야 한다.’ 하였고, 통제사(統制使)이순신(李舜臣)의 장계에는 ‘주부(主簿)현응신(玄應臣)이 어란(魚鰐) 앞바다에서 접전(接戰)한다는 기별을 듣고 밤을 타 도망갔으니 군율(軍律)로 다스려 다른 사람을 경계해야 한다.’ 하였으므로, 본조에서 이 장계에 의거하여 각각 행이한 것이 무려 수십 번인데, 한 사람도 체포된 자가 없습니다. 이처럼 한 장의 공문(公文)만으로는 외방(外方)에서 시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사람을 뽑아 보내 잡아다가 국문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兵曹啓曰：“近日各陣前後狀啓，逃軍等中，情犯差輕者，則依前啓下罰米事，已爲行移各道，一件成冊，移文戶曹，使之督納，而情犯差重者，則密移本道，一一捕捉，押赴本曹，轉送本陣，使主將各隨輕重，差次科罪。其情犯最重者則或以梟示警衆，或以依律處斷事，啓下行移矣。事變之後，該曹公事，轉送于各官者，例爲歇看，而身犯大罪之人，久置不論，亦甚未便。似當就其中尤甚者，拿來鞫問，察其情犯參酌定罪，而頃日王獄盈滿，議者頗以爲不幸，故本曹姑有所待，今敢稟裁。防禦使高彦伯狀啓內，軍官咸伯奎腹心精兵十五名，倡率逃亡，梟示軍中，以警他人。慶尙左兵使成允文狀啓內，僉正金世昌，當此交鋒之時，首倡逃亡，梟示軍中，以警他人。統制使李舜臣狀啓內，主簿玄應臣，聞魚鰐前洋接戰之奇，乘夜逃去，繩以軍律，以警他人。

為不幸故本曹姑有呀待令啟 稟裁防禦使高音伯狀 啓
內軍官咸伯奎腹心精兵十五名倡率逃亡集示軍中以警他
人慶尚左兵使成兌文狀 啓內金正金世昌當此交鋒之時
首倡逃亡集示軍中以警他人 統制使李舜臣狀 啓內主簿
玄應臣聞魚蘭前洋接戰之奇乘夜逃亡以軍律以警他人
本曹據此狀 啓各各行移無庸累十餘度可推一人就捕一
紙公文多不得行之於外方似當發人拿來鞫問往在甲午年
八月間自 上盤松亭觀武時有崔應國稱名者於羣武士
中昂然獨出跪伏於塔下自願試才赴戰別立奇功翌日來言
於本曹曰自 上特命賞布賜以弓箭願速赴戰仍請戰馬而
去應國於獲程之日即為逃躲終不現身本曹憤其欺罔之狀
令本曹械繫上送矣變生以後紀綱解弛赴戰逃躲者前後何
限而若乃應國則 咫尺之下肆然欺罔情狀極為痛憤日月
雖久似當從重科罪敢此並 稟 傳曰依啓○傳曰李嘉善
大夫吉州牧使趙仁得後前例別置贖○乙丑 王世子晝問

我國略給銀子開關買之而至於外方自來不知用意無知小民觀錄
不甚為重用之於京中則猶或可也而用之於外方則其價尤輕且其
謂以萬兩可買千匹者察以一兩之價而十兩云也而令馬價日高
銀價日輕市上交易之際其直十兩之馬不過平時形體大實卜馬
而已定價十兩則夫無得戰馬之理若此則未准千匹之數自我國之
難充數況雖給厚價至於千匹之多則在今各處騎馬雖沒數而買之
亦未易得其意端好其實難行此等曲折合併使從容開陳於旅計
慶為當其時帖壁在應國以入 傳曰依啓○甲戌司憲府 啓曰
臣等取考統制使軍官玄應臣、尹思忠、陳夢日、吳大器、崔大晟等逃避公
事則兵曹於上年十月因統制使李舜臣狀啓 移文各道根 尋捕
捉押送于李舜臣處一依軍律處斷事 啓下行移 既經四朔之久不
為捉送則為本兵者所當請推監司催督械送軍門梟示警衆而乃於
今年正月托以各人之罪今不敢必以為的然拿來鞫問情犯參酌定罪
罪事又為入 啓使臨戰逃走之人不即梟示極為痛憤 請兵曹堂上
色郎廳 竝命推考依前公事械送于統制使李舜臣處取其中情犯尤
甚者依律處斷且陳夢日以出身軍官敢為逃避不可不痛懲 其贖米
公文勿令舉行其餘逃躲者亦令窮尋捕捉定罪 答曰依啓 既納米受公文勿施則失信非

선조실록 99권, 1598년(선조 31년) 4월 20일 甲戌 1번째 기사 1598년 명 만력(萬曆) 26년 사헌부가 전시에 도망친 자들과 그들을 처리하지 못한 병조 관리의 추고를 아뢰다

사헌부가 아뢰기를,

"신들이 통제사(統制使)의 군관(軍官)현응신(玄應臣)·윤사충(尹思忠)·진몽일(陳夢日)·오대기(吳大器)·최대성(崔大晟)등의 도피 공사(公事)를 취고(取考)하였더니, 병조(兵曹)가 지난해 10월에 통제사이순신의 장계에 의하여 각도에다 공문을 발송하여 그들을 철저히 찾아내어 체포한 다음 이순신에게로 압송(押送)하여 모두를 군율에 의해 처단하도록 계하받아 행이(行移)하였는데, 4개월이라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잡아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본병(本兵)061)으로서는 마땅히 감사를 추고하도록 청하고 독촉해서 잡아내어 그들을 군문으로 계송(械送)하여 대중 앞에 효시(梟示)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금년 1월에 와서는 그들의 죄가 지금으로서는 꼭 분명하다고 할 수 없으니 그들을 잡아들여 국문한 후 정상을 참작하여 죄를 정해야겠다는 것으로 다시 아뢰어 전쟁에 임해 도주했던 자들을 즉시 효시를 못하게 만들었으니, 극히 통분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병조의 당상과 색낭청을 모두 추고하소서.

그리고 종전 공사(公事)대로 그들을 통제사이순신에게로 계송하여 그 중 정범(情犯)이 더욱 심한 자를 골라내어 법대로 처단하게 하소서. 또 진몽일은 출신(出身) 군관으로서 감히 도피하였으니 통렬히 징계하지 않을 수 없는 바, 그의 속미(贖米)에 관한 공문(公文)은 거행치 말도록 하실 것이며, 그 나머지 도피한 자들도 모두 철저히 찾아내어 체포한 후 죄를 정하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그러나 진몽일은 이미 쌀을 바치고 공문을 받았으니 시행하지 않는다면 신의를 잃는 것이 적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甲戌/司憲府啓曰: "臣等取考統制使軍官玄應臣、尹思忠、陳夢日、吳大器、崔大晟等逃避公事, 則兵曹於上年十月, 因統制使李舜臣狀啓, 移文各道, (根) [跟] 尋捕捉, 押送于李舜臣處, 一依軍律處斷事, 啓下行移, 既經四朔之久, 不為捉送, 則為本兵者, 所當請推監司催督, 械送軍門, 梟示警衆, 而乃於今年正月, 托以各人之罪, 今不敢必以為的然, 拿來鞫問, 情犯參酌定罪事, 又為入啓, 使臨戰逃走之人, 不即梟示, 極為痛憤. 請兵曹堂上、色郎廳, 竝命推考, 依前公事, 械送于統制使李舜臣處, 取其中情犯尤甚者, 依律處斷. 且陳夢日以出身軍官, 敢為逃避, 不可不痛懲. 其贖米公文, 勿令舉行, 其餘逃躲者, 亦令窮尋捕捉定罪." 答曰: "依啓, 既納米受公文勿施, 則失信非細."

* 선조실록의 현응신(玄應臣)과 난중일기의 현응신(玄應辰)은 동일 인물로 보인다.

창주 昌周, 25세. 1939년생, 촬영감독, 대중회 이사

3자 윤무 - 2자 련(璉)系

연 璉, 13세

자 언성(彦盛), 1513년 중종(中宗) 계유癸酉)생, 통훈대부 통례원 인의(通訓大夫 行通禮院
引儀), 선조(宣祖) 임진(壬辰)에 80세로 돌아가셨다. 묘는 원당 석곡 미좌 구석물
(통례원 인의는 조선시대 조화와 의례 등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통례원에 소속된 종6품)



13세 련(璉)
묘소

十三世 通訓大夫 行通禮院 引儀公 諱 璉의 墓
所在地: 忠清南道 天安市 豐藏面 三谷里 元堂山(석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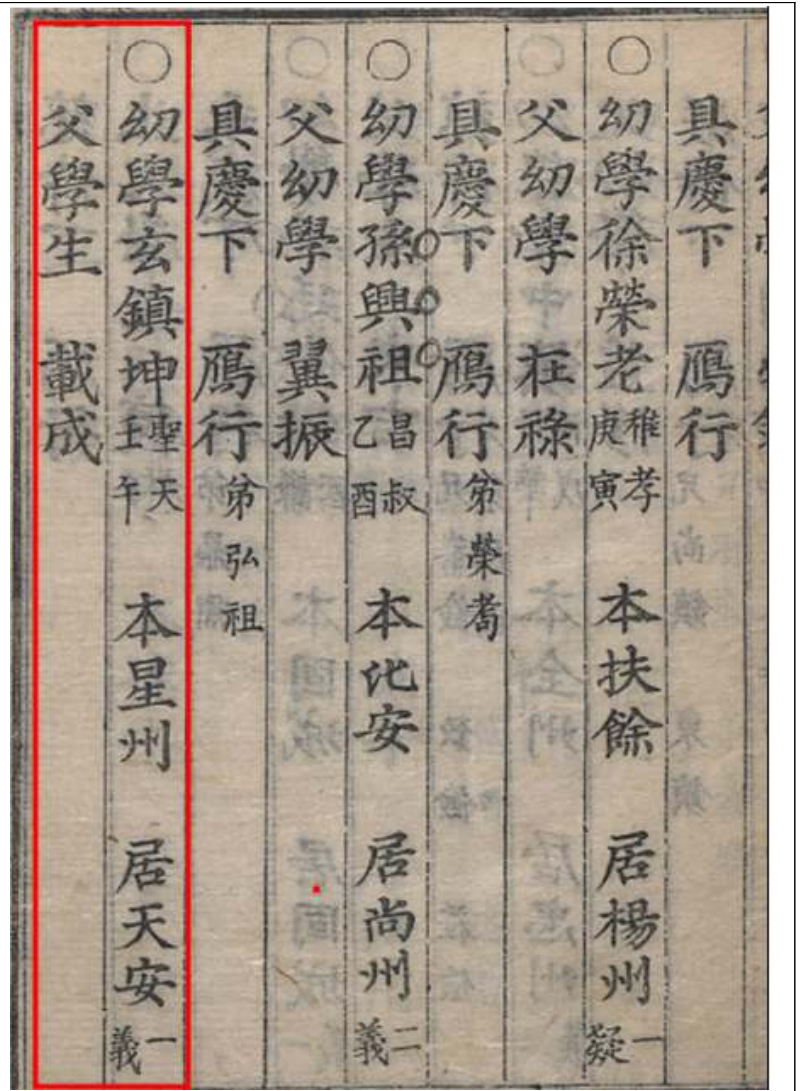
(벼슬, 行(행)은 품계가 높은 자가 낮은 관직을 맡는 것을 말한다.)

13세	13세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20세	21세	22세	23세	24세	25세	26세	27세	28세	29세	30세
3 윤무 允武 부사직 副司直	련 (璉) 인의 引儀	1 덕욱 德郁 좌부장 左部將	1 倜적 ~1597	榮後 영후 계자系子 생부건健 ~1596	微미 생부 진후 振後 1632 ~	약호 출계 徵징												
			2 건健 출계 德亨 덕형															
		2 덕윤 德潤 군자정 軍資正	검儉	1 수후 垂後	재청 再淸	약연 若淵	희증 希曾	載成 재성	鎭坤 진곤	永升 영승	厚東 후동							
				3 仁後 인후	3 漫 만	2 若深 약심	3 希德 희덕	1 載輔 재보	3 鎭台 진태	2 永夏 영하	1 基東 기동	1 光必 광필	1 喜周 희주	1 錫佑 석우				
				4 碩後 석후	1 沃옥	1 若漢 약한	1 載應 재응	1 載應 재응	1 鎭學 진학	1 永位 영위	5 大東 대동	1 光弼 광필	1 寬周 관주	1 錫弘 석홍	1윤수允洙 壽德수덕 동 양 고 무 회장		1병룡柄龍 順九순구 한주건설 대표	
																	2병태柄泰 眞九진구	3주엽周燁 농구 선수
															2상수相洙 壽昌수창 동 양 고 무 대표			
															3 晚洙만수 修明수명 풍영화성 회장	1 柄煥병환 承勳승훈 (*)와승 대표	1 東烈동렬 智皓지호 화승그룹부회장	1 在謨 재모
																	2동원東原 皙皓석호 화승그룹부회장	

진곤 鎭坤, 21세(1762~1822)

득리(得利)의 11세손, 윤무(允武)의 9세손, 연(璉 引儀) 8세손이다. 1762년(영조38년) 출생, 1792년(정조 16년) 식년시(式年試) 생원에 합격한 내용이 사마방목 기록에 있다. 문예(文藝)를 잘하시어 지역사회(地域社會)의 귀감(龜鑑)이셨다고 족보는 기록하고 있다. 두번째 대동보인 기미보(己未譜, 1799년 편수)를 만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현진곤의 식년시(式年試) 합격 기록	
[생원] 정조(正祖) 16년(1792) 임자(壬子) 식년시(式年試) [생원] 3등(三等) 24위(54/100)	
자(字) 성천(聖天) 생년 임오(壬午) 1762년 (영조 38) 합격연령 31세 보인보관 성주(星州) 거주지 천안(天安)	숭정3임자식년사마방목(崇禎三壬子式年司馬榜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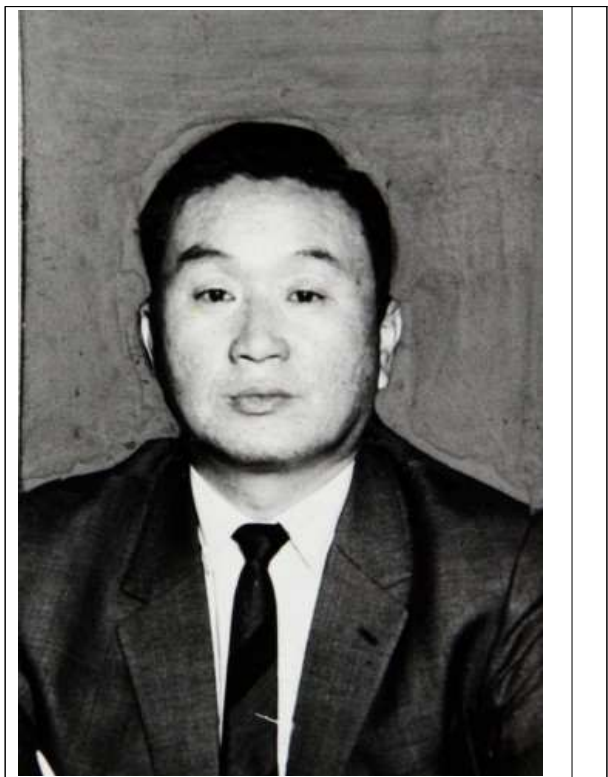
희주 喜周, 25세.

1959년생, 서일이앤씨 대표이사, 대종회 부회장

윤수 允洙, 27세. 자 수덕(壽德), 호 영암(榮巖), 1912년생

6.25 전쟁으로 피란 중이던 1951년 동생 수창(壽昌), 수명(修明)과 함께 부산시 초량동의 한 유리 공장을 인수하여 동양고무공업사라는 상호의 신발 공장을 창립했으며, 이후 동신전기 공업·동신화학공업·은성산업 등 17개의 기업을 설립하여 운영했다.(기차표 동양고무)

1946년 서울동양고무산업주식회사 창설, 1950년 부산동양고무산업주식회사 창설, 1953년 서울은성산업주식회사 창설, 1956년 서울동신전기공업주식회사 창설, 각사 회장,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고무공업협회, 한국타이어협회, 한국합성수지공업협회, 신발수출조합 등 발기이사, 1966년 한국최고경영자로서 미국무성초청으로 45일간 미국경제계시찰, 국가산업훈장수상, 1975년 동신전자공업 주식회사 창설, 회장



병룡 柄龍 28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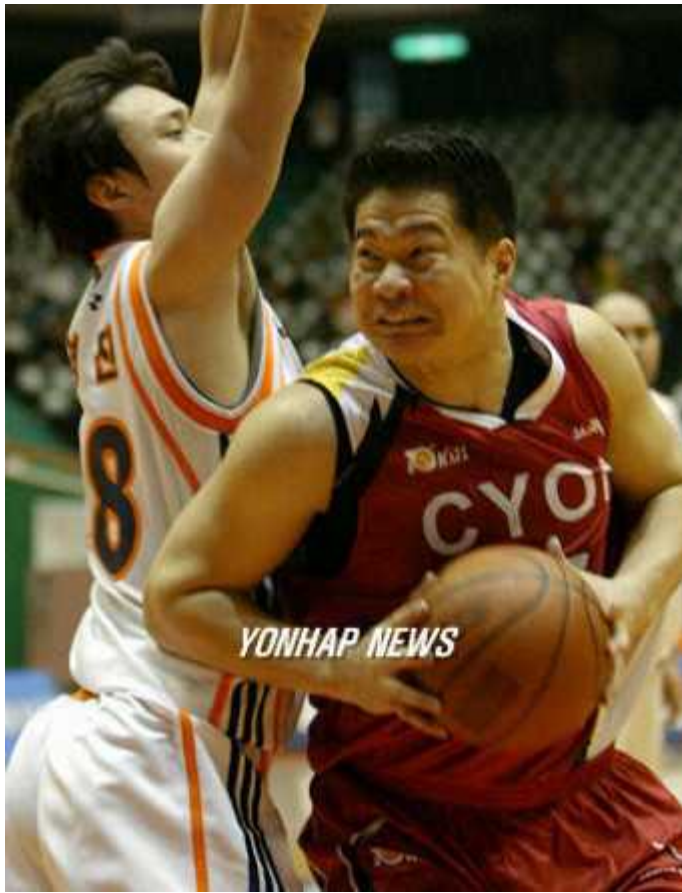
윤수(수덕)의 장남, 자 순구(順九), 1941년생, 1967년 동신화학공업주식회사 부사장, 1968년 은성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1991년 동신전자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 1977년 한주건설주식회사 창설 대표이사, 1979년 한서공업주식회사 창설 대표이사

병태 柄泰, 28세.

윤수(수덕)의 차남, 자 진구(眞九), 1945년생, 고려대 졸업, 길림물산(佳林物産) 대표, 室남양 홍성화(南陽洪性和), 국가대표 농구선수

주엽 周燁, 29세.

병태(진구)의 3남, 1975년생, 고려대 졸업, 길림물산(佳林物産) 대표, 국가대표 농구선수, 프로농구선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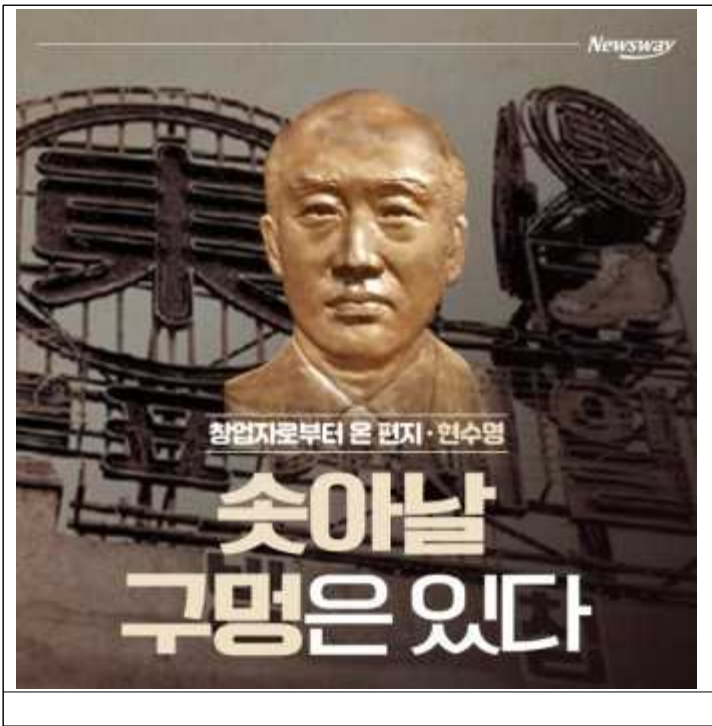


상수 相洙, 27세.

자 수창(壽昌), 호 우당(友堂), 1917년생, 대학졸, 주식회사대표이사, 1950년 부산동양고무산업 주식회사 부사장, 1953년 서울대광고무공업주식회사 취제역, 1962년서울동양고무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 동양고무공업주식회사(화승 그룹의 모태) 회장

만수 晩洙, 27세.

자 수명(修明, 異名 수한) 1922년생, 1950년 부산동양고무산업(주) 전무, 1960년 부산동양고무산업(주) 대표이사, 1970년 풍영화성(주) 창설, 회장. 1972년 통일주체국민회의 의원, 1973년 철탑산업훈장수상, 부산경남지구 체육회장

	 화승그룹, `고무신`부터 `전기車소재`까지 3대 걸쳐 이어지는 혁신 DNA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4689857
---	---

병환 柄煥, 28세. 자 승훈(承勳),

만수(수명)의 장남, 1942년생, 1977년 (주)화승산업 대표이사, 1978년 (주) 화승화학 대표이사, 1979년 (주)화승실업 대표이사, 1980년 (주)화승 대표이사, 금탑산업훈장 수상, 1981년 화승그룹 부회장, 화승그룹 회장, 부산제조협회 회장, 한국신발수출조합이사장, 1982년 부산상공회의소 부회장, 1984년 한국능률협회 이사, 1987년 부산시체육회 부회장,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사, 1989년 태국명예총영사, 1990년 금탑산업훈장 수상, 2007년 부경대 명예경영학박사, 2009년 제1회 동명대상 산업부문 대상 수상, 대중회 고문

동렬 東烈, 28세.

병환(승훈)의 장남, 자 지호(智皓), 1971년생, 2002년 화승비나 부회장, 2008년 화승그룹 총괄부회장

동원 東原, 28세.

병환(승훈)의 차남, 자 석호(皙皓), 1973년생, 2011년 화승그룹 부회장



현승훈 화승그룹 회장(오른쪽부터)
장남 현지호 총괄부회장. 차남 현석호 부회장.



3자 윤무-3자 기(琦)系

기 琦, 13세, 습독관 선무랑(習讀官 宣務郎)

12세	13세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20세	21세	22세	23세	24세	25세	26세	27세	28세	29세	30세
3 윤무 允武 부사직 副司直	기琦 습독관 선무랑 習讀官 宣務郎	1 덕량德良 인동현감																
		2 덕옹德顙 군수郡守	위偉 통덕랑 通德郎	석하 錫夏 선교랑 宣敎郎	구령 九齡	상벽尙璧 세마洗馬	희원 希遠	載岳 재악	鎭常 진상	永益 영익								
		3 덕룡德龍 군수郡守	2重중	1 錫善 석선	1 惠信 덕신	2 尙碩상석	1 希燦 희찬	2 載孝 재효	2 鎭民 진민	1 永萬 영만	1 求東 구동	1 光彦광언 육군소장	1 相圭 상규					
		4 덕린德鄰 무장현감																



13세 기(琦) 묘소

十三世 宣務郎 諱 琦와 配宜人 金海金氏의 墓(雙封)
所在地：충청남도 아산시 도고면 도산리 산151번지

덕량 德良, 14세, (1544~1610), 인동현감(仁同顯監)

득리(得利)의 고손자(高孫子), 윤무(允武)의 손자, 기(琦)의 장남이다. 1544년(중종 39년)에 태어나서 1610년(광해군 2년)에 돌아가셨다. 조선 광해군 때의 무신으로 1569년(선조 2년) 무과에 급제하였고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군공(軍功)을 세워 여러 고을의 현감을 지내다가 1604년(선조 37년)에 인동현감(仁同顯監)이 되었다. 무력이 출중하고 기사(騎射)에 뛰어났으며 지조가 있어 존경을 받았다. 병조참판(兵曹參判)에 추증(追贈)되었다고 족보에 기록되어있다.

조선왕조실록에 덕량公의 벼슬 임명에 관한 기록이 있다

조선왕조실록 선조 37년 갑진(1604) 윤 9월 20일(정유)
이광윤·민경기·윤수겸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광윤(李光胤)을 홍문관 수찬으로, 민경기(閔慶基)를 사간원 정언으로, 윤수겸(尹守謙)을 세자 시강원 사서로, 권제(權濟)를 공조 좌랑으로, 이민성(李民成)·윤양(尹讓)을 성균관 전적으로, 소광진(蘇光震)을 평안도 도사로, 구덕령(具德齡)을 창성 부사(昌城府使)로, 송몽룡(宋夢龍)을 고원 군수(高原郡守)로, 이자해(李自海)를 흠곡 현령(歙谷縣令)으로, 현덕량(玄德良)을 인동 현감(仁同縣監)으로, 이두망(李斗望)을 교하 현감(交河縣監)으로, 조계종(趙繼宗)을 방답 첨사(防踏僉使)로, 이인경(李寅卿)을 벽단 첨사(碧團僉使)로 삼았다.



○以李光胤爲弘文館修撰, 閔慶基爲司諫院正言, 尹守謙爲世子侍講院司書, 權濟爲工曹佐郎, 李民成·尹讓爲成均館典籍, 蘇光震爲平安道都事, 具德齡爲昌城府使, 宋夢龍爲高原郡守, 李自海爲歙谷縣令, 玄德良爲仁同縣監, 李斗望爲交河縣監, 趙繼宗爲防踏僉使, 李寅卿爲碧團僉使。

송강 정철(鄭澈)의 송강집(松江集), 김상헌(金尙憲)의 청음집(淸陰集) 조익(趙翼) 포저집(浦渚集) 등에 현덕량의 이름이 나온다.

포저집(浦渚集) : 조선 중기의 문신 조익(趙翼)의 문집. 조익은 우의정, 좌의정, 중추부영사(中樞府領事)를 지냈으며 호는 포저(浦渚)이다. 현덕량(玄德良)의 딸과 결혼했다. 부친은 중추부첨지사 조영중(趙瑩中)이다.

松江續集卷之二 / 啓
又啓萬曆二十年十月二十五日
前巡察使尹先覺。假差守令溫陽郡守玄德良, 黃澗縣監朴夢說, 恩津縣監李曇, 延豐縣監金舜卿等。今因下批。使仍供職。沃川郡守宣義問, 木川縣監愼好義, 陰城縣監李慶龍。皆不合撫禦之任。竝爲汰去。沃川則權希仁。木川則尹興龍。陰城則李龍沈權差事。已爲狀啓矣。權希仁曾爲連山假差。而盡心禦賊。且有斬馘之功。權差沃川。本縣則前縣監李麒壽權差。平澤則前縣監明光祖慈詳撫摩。最得人心。滿庭號訴。無非願留。權仍前任。扶餘爲縣。旣在內地。假差趙景禧。又爲不合。以前縣監朴東燾權差。淸州一路。正當賊衝。判官李景祥。蔭官無才。以前縣監權大信。代爲權差。連原察訪趙翽。不知去處。以前萬戶閔閔道權差。靈光郡守南宮倪, 泰仁縣監趙守憲, 長城縣監白守宗皆在喪。理難察任。靈光則前僉使李安繼。泰仁則前佐郎申應槩。或作渠長城則前直長楊士衡權差。報恩縣監邊或作玄德顒。忠州判官陞差代。同縣監。宣傳官具惟謹權差。上項權差人等朝辭。令吏曹依例急速成送。詮次云云

전 순찰사 윤선각의 보고에 따라 여러 지역의 수령 임명에 대한 결정이 내려졌다. 온양군수 **현덕량**, 황간현감 박몽설, 은진현감 이담, 연풍현감 김순경 등은 현재 직위를 유지하게 되었다. 옥천군수 선의문, 목천현감 신호의, 음성현감 이경룡은 적을 방어하는 임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모두 해임되었다. 옥천에는 권희인을, 목천에는 윤흥룡을, 음성에는 이용심을 임시로 임명했다고 이미 보고했다. 권희인은 이전에 연산에서 임시로 임명되어 적과 싸우는 데 힘썼고 적의 목을 벤 공로도 있어 옥천군수로 임명되었다. 평택에는 전 현감 명광조가 주민들의 마음을 얻어 유임을 바라는 소리가 높아 그대로 임명되었다. 부여현의 경우 조경희가 부적합하여 전 현감 박동도로 교체되다. 청주는 적의 침입 경로에 있어 중요한데, 판관 이경상이 능력이 부족하여 전 현감 권대신으로 교체되었다. 영광군수 남궁엄, 태인현감 조수현, 장성현감 백수종은 모두 상중이라 임무를 맡기기 어려워 각각 이안계, 신응구, 양사형으로 대체되었다. 보은현감(報恩縣監) 변(邊) 혹은 현(玄)이라고도 한다. 덕옹(德顙)은 충주판관(忠州判官)으로 승진 대차(代差)하고, 동현감(同縣監)은 선전관(宣傳官) 구유근(具惟謹)을 차송하였나이다. 윗 조항에 임시 차송한 사람들의 조정 사령을 이조(吏曹)로 하여금 전례에 따라 급속히 작성 하송하시어 차서를 정하도록 하소서 이러한 인사 결정들은 모두 이조(吏曹)에 보고되어 신속히 처리되도록 하였다.

松江集 卷二 因下 批使仍供職。汝川郡守宣義閣木川縣監慎好義陰城縣監李慶龍皆不合撫禦之任。並為汰去。汝川則權希仁木川則尹興龍陰城則李龍沉權差事。高狀啓奏權希仁曾為連山假差而盡心禦賊且有斬賊之功。權差汝川本縣則前縣監李顯壽權差平澤則前縣監明光祖惠詳撫摩最得人心。兩庭號訴無非願留。權仍前任扶餘高縣既在內地假差趙景禔又為不合以前縣監朴東壽權差清州一路正當賊衝判官李景祿陰官無才以前縣監權大信代為權差連原察訪趙翹不知去處以前萬戶閔開松江續集 卷二 十九 又啓 今就守慶順兵到牙山而守慶過執謙遜行軍之時官舍避不肯入至於官軍抄發等事一切不與此則大臣在外以無朝廷命令不敢當也守慶夙兼文	近來賊勢益盛京城畿輔無處不熾焚掠屠戮日甚一日攻勦殄滅不容少緩而師出已久兵力極弱大計小計皆未出場徵兵兩湖迄今不至此未必緩急而熙蓋亦出於二道兵力自救不贖也近緣自節次催併湖南則今月念間發程湖西則千兵已發而亦有繼來者熙而本兵屢經喪敗疲憊居半必須別募精勇以一當百者賊後緩急可倚第自生變之後人皆畏懼或投竄深谷或潛伏海濱其中精銳不為不多而空言召募莫肯來赴因竊伏念當此急難之時必有別視舉措贊動人心乃可濟事警勦之策莫如科舉況臣未到之前此處人民咸以為必設科舉莫不有歆動希觀之心得人添兵之術莫此復益如以高可則似當自江華一府始兩湖亦可次第舉行第惟科舉重事非外臣所可擅更文武對舉儼然是朝廷平日事尤有所不敢輕議而愚臣此請特出於權宜不得已之計則只設武科偶一行之恐或無妨請令廷臣獻議定奪施行謹次云云 又啓 高麗二十五年十一月 前巡察使尹先覺假守守溫陽郡守玄德晏貞潤縣監朴夢說恩津縣監李處延豐縣監金舜卿等今
--	--

清陰先生集卷之三十一 / 墓碣銘十二首

증(贈) 의정부 영의정(議政府領議政) 행 첨지중추부사(行僉知中樞府事) 조공 영중(趙公瑩中)의 묘갈명병서 贈議政府領議政行僉知中樞府事趙公墓碣銘并序

善七箸。御鞍馬出入自如。性好酒。遇輒引滿。陶然
甚適。平生不事生產。不喜干請。以此家業旁落。常
不免困窶。弗恤也。晚試邑政。猶不失赤子心。視吏
民如家人。及歸。不以邑中一物自隨。夫人海平尹
氏。牙山縣監。贈左贊成春壽之女。懿行淑德。別
具墓誌。舉子女六人。男曰翼。即太宰。文學名世。女
適清安縣監李廷望。餘俱夭。太宰娶郡守玄德良
女。生五丈夫子。夢陽鴻山縣監。進陽青陽縣監。復
陽司諫院獻納。來陽進士。顯陽生貢狀元。皆義而
材。不替世德。清安一男命聘鴻山。一男二女。男曰
持綱。女未字。青陽二男三女皆幼。獻納四男三女。
男持衡。女適洪彥慶。餘幼。進士一男二女。生貢二
男。女男幼。女適進士李相胄。持綱二女。洪彥慶
一女。命聘男女各一人。太宰登八座。又參靖社。
振武兩勲原從。推恩屢。贈公議政府領議政。妣
封貞敬夫人。都事公。贈吏曹參判。節度公。前以
李子豐壤君倣討倭功。贈左贊成。公生於戊午
七月戊申。卒於丙戌五月十九日。壽八十九。夫人
己於辛未三月十日先歿。葬廣州下道北坊里。贊
成墓後。至是以其地脛。改其地某室某向之原。

清陰先生集卷三十一

手五

공의 휘는 영중(瑩中)이고, 자는 군수(君粹)이며, 풍양인(豐壤人)이다. 함경남도 절도사(咸鏡南道節度使) 휘 안국(安國)의 손자이고, 의빈부 도사(儀賓府都事) 휘 간(侃)의 아들이다. 상대(上代)에는 평장사(平章事)를 지낸 맹(孟)이라는 분이 고려 태조를 도와 삼국을 통일해 맹부(盟府)에 공이 기록되었다. 이분으로부터 700여 년을 내려오는 동안에 고관대작이 대를 이어 나와 마침내 명문대가가 되었다. 어머니 의령 남씨(宜寧南氏)는 우리 조선조의 개국 공신(開國功臣)인 정승(政丞) 남은(南閔)의 후손으로 가문이 세상에서 첫째 둘째로 치는 집안이다.(생략)

공은 여러 차례 과거 시험을 보았으나 급제하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39세 때 비로소 음보(蔭補)로 전설사 별좌(典設司別坐)가 되었다. 중국의 여러 장수들을 접대하면서 수고한 공로로 군자감 가설주부(軍資監加設主簿)로 승진하여 산질(散秩)에서 한가로이 지내며 요로(要路)에는 자취를 끊었다. 한참 뒤에 보은 현감(報恩縣監)에 제수되었다가 얼마 뒤에 파직되어 돌아왔다가 한참 뒤에 사직서 영(社稷署令)에 제수되었다. 5년 뒤에 선공감 첨정(繕工監僉正)에 승진하였으며, 3년 뒤에 사재감 첨정(司宰監僉正)으로 개차되었다가 또다시 5년 뒤에 선공감으로 돌아왔다.

병자년(1636, 인조14)의 난리에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가 호서(湖西)의 신창(新昌)에 붙어살았다. 무인년(1638)에 공의 나이가 81세가 되었으므로 국가의 전례(典禮)에 따라 당상관의 품계에 오르고 첨지중추부사에 제수되었다. 태재로 있던 큰아들이 당시에 종백(宗伯)의 자리에서 면직되어 돌아와 슬하에서 모시면서 뜻과 물품의 봉양을 흠이 없게 하였고, 자손들이 앞에 가득히 있으면서 다방면으로 기쁘게 해 주었으며, 과거 시험에 잇달아 급제하여 인꾼이 아름답게 빛났으므로 사대부의 집안에서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생략)

부인 해평 윤씨(海平尹氏)는 아산 현감(牙山縣監)을 지내고 좌찬성에 추증된 윤춘수(尹春壽)의 따님이다. 아름다운 행실과 정숙한 덕은 별도의 묘지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자녀는 모두 여섯을 두었다. 아들 익(翼)은 바로 태재로, 문학(文學)으로 세상에 이름이 났다. 딸

은 청안 현감(淸安縣監) 이정망(李廷望)에게 시집갔다. 나머지는 모두 요절하였다.

태재는 군수 현덕량(玄德良)의 딸에게 장가들어 5남을 두었다. 몽양(夢陽)은 홍산 현감(鴻山縣監)이고, 진양(進陽)은 청양 현감(靑陽縣監)이고, 복양(復陽)은 사간원 헌납(司諫院獻納)이고, 내양(來陽)은 진사이고, 현양(顯陽)은 생원시에 장원하였는바, 모두 아름다우면서도 재주가 있어 집안의 덕을 끊지 않았다. 청안 현감은 1남을 두었는데, 이름이 이명담(李命聃)이다.

홍산 현감 몽양은 1남 2녀를 두었는데, 아들은 지강(持綱)이고 딸은 아직 시집가지 않았다. 청양 현감 진양은 2남 3녀를 두었는데, 아직 모두 어리다. 헌납 복양은 4남 3녀를 두었는데, 아들은 지형(持衡)이고, 딸은 홍언경(洪彦慶)에게 시집갔으며, 나머지는 아직 모두 어리다. 진사 내양은 1남 2녀를 두었고, 생원 현양은 2남 □녀를 두었는데, 아들은 아직 어리고 딸은 진사 이상주(李相胄)에게 시집갔다. 지강은 2녀를 두었고, 홍언경은 1녀를 두었고, 이명담은 1남 1녀를 두었다.(생략)

公諱瑩中。字君粹。豐壤人。咸鏡南道節度使諱安國之孫。儀賓府都事諱侃之子。上世有平章事孟。佐麗祖統一。功在盟府。傳七百餘祀。圭組世襲。迄爲大家。母曰宜寧南氏。我朝開國功臣政丞閭之後。門第世所稱甲乙者也。(생략)屢試不利。年三十九。始以蔭補典設司別坐。接待天朝諸將課勩。陞軍資監加設主簿。婆娑散秩。絕要路跡。久之。除報恩縣監。亡何罷歸。尋拜社稷署令。五歲陞繕工監僉正。三歲改司宰監。又五歲還繕工。丙子之難。轉輾流寓湖西之新昌。至戊寅。公年八十一。用國典加緋玉。拜僉知中樞府事。太宰時免宗伯。歸侍膝下。志物之養無缺。子姓盈前。多方以悅之。科第繼榮。印紱交映。士大夫家莫不艷稱。(생략)夫人海平尹氏。牙山縣監贈左贊成春壽之女。懿行淑德。別具墓誌。舉子女六人。男曰翼。卽太宰。文學名世。女適淸安縣監李廷望。餘俱夭。太宰娶郡守玄德良女。生五丈夫子。夢陽鴻山縣監。進陽靑陽縣監。復陽司諫院獻納。來陽進士。顯陽生員狀元。皆美而材。不替世德。淸安一男命聃。鴻山一男二女。男曰^P持綱。女未字。靑陽二男三女皆幼。獻納四男三女。男持衡。女適洪彦慶。餘幼。進士一男二女。生員二男[■]女。男幼。女適進士李相胄。持綱二女。洪彦慶一女。命聃男女各一人。(생략)

浦渚先生集卷之三十三 / 墓誌銘十首

선비(先妣) 숙인(淑人)의 묘지문(墓誌文) 先妣淑人墓誌文

先妣淑人。姓尹氏。其先海平縣人。麗朝有爲守司空尙書左僕射。曰君正。其鼻祖也。世有聞人。祖諱忭。軍資監正。以兩子領議政。海原府院君。文靖公斗壽。海平府院君。文貞公根壽勳且貴。贈議政府領議政。海澄府院君。考諱春壽。牙山縣監。贈資憲大夫。議政府左參贊。妣公州李氏。以嘉靖戊午四月二十六日。生于公州外家。年十八。歸于我家君諱某。姓趙氏。凡生男女七人。所有唯一男一女。男翼也。女適漢城府參軍李廷望。翼娶永川郡守玄德良女。生五男一女。男長夢陽。廣興倉主簿。次進陽。復陽。來陽。皆已娶。^P顯陽未冠。女幼。外孫男一人。命聃。未冠。

선비 숙인의 성은 윤씨(尹氏)이다. 그 선조는 해평현(海平縣) 사람이다. 고려조에 수 사공 상서 좌복야(守司空尙書左僕射)가 된 군정(君正)이라는 분이 그 비조(鼻祖)인데, 그 뒤 대대로 저명한 후손들이 배출되었다. 조부 휘(諱) 변(忭)은 군자감 정(軍資監正)인데, 두 아들인 영의정 해원부원군(海原府院君) 문정공(文靖公) 두수(斗壽)와 해평부원군(海平府院君) 문정공(文貞公) 근수(根壽)가 공훈을 세우고 귀한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의정부 영의정에 추증되고 해징부원군(海澄府院君)에 추봉되었다. 고(考) 휘 춘수(春壽)는 아산 현감(牙山縣監)으로 자헌대부(資憲大夫) 의정부

좌참찬에 추증되었다. 비(妣)는 공주 이씨(公州李氏)이다.

선비는 가정(嘉靖) 무오년(1558, 명종 13) 4월 26일에 공주(公州)의 외가(外家)에서 태어났다. 18세 되던 해에 휘는 모(某)요 성은 조씨(趙氏)인 우리 가군(家君)에게 시집왔다. 아들과 딸을 모두 합쳐서 7인을 낳았는데, 기른 자식은 오직 1남 1녀였다. 아들은 나이고, 딸은 한성부 참군(漢城府參軍) 이정망(李廷望)에게 출가하였다.

나는 영천 군수(永川郡守) 현덕량(玄德良)의 딸에게 장가들어 5남 1녀를 낳았다. 장남 몽양(夢陽)은 광흥창 주부(廣興倉主簿)이고, 다음 진양(進陽)과 복양(復陽)과 내양(來陽)은 모두 장가들었고, 현양(顯陽)은 아직 관례(冠禮)를 행하지 않았다. 딸은 어리다. 외손으로는 손자 이명담(李命聃) 1인이 있는데 아직 관례를 행하지 않았다.(이하 생략)

사촌지간(四寸之間)인 현덕승(玄德升)의 희암선생유고(希菴先生遺稿) 권3, 95題, 律詩七言 중에〈甲子回甲宴酬唱韻〉은 1624년에 회갑을 맞아 李廷龜, 李好信, 朴澈 등과 수창(酬唱, 시가를 서로 주고받으면 부름)한 시이며, 만시(挽詩,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시)에 尹根壽, 玄德良, 洪可臣, 金忠男 등에 대한 내용이 적혀있다.

덕옹 德顙, 14세, 군자감정(軍資監正), 보은현감(報恩縣監)

12세	13세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3 윤무(允武) 부사직 (副司直)	3 기(琦) 습독관, 선무랑 習讀官, 宣務郎	1 덕량(德良) 인동현감 1544~1610					
		2 덕옹(德顙) 군수(郡守)	위(偉) 통덕랑(通德郎)	석하(錫夏) 선교랑(宣敎郎)	구령(九齡)	상벽(尙璧) 세마(洗馬)	희원(希遠)
		3 덕룡(德龍) 군수(郡守)					
		4 덕린(德鄰) 무장현감					

득리(得利)의 고손자(高孫子), 윤무(允武)의 손자, 기(琦)의 차남이다. 조선 선조(宣祖) 때의 문신으로 군자감정(軍資監正), 보은현감(報恩縣監)을 지냈다고 족보에 기록되어있다. 족보에 있는 아래 기록으로 보아 송강 정철과도 교유한 것으로 보인다

임진정송강철위삼남도체찰사 계천충주판관지순창군수소도이청백칭참원종공신
(壬辰鄭松江澈爲三南都體察使 啓遷忠州判官至淳昌郡守所到以清白稱叅原從功臣)

임진년 정철 송강이 삼남도체찰사를 하면서 품의를 올려 충주판관에서 순창군수로 벼슬을 올렸다. 부임한 곳에서 청백리로 칭해졌다. 원종공신이다

상벽 尙璧, 18세, (1673~1731), 성리학자, 익위사세마(翊衛司洗馬)

득리(得利) 8세손, 윤무(允武)의 6세손, 기(琦)의 5세손이다. 호(號)는 관봉(冠峰)으로 이이(李珥) · 송시열로 이어지는 기호학파의 정통 계승자인 권상하(權尙夏)의 문인이다. 영조(英朝) 때 유일(遺逸)로써 천거되어 장릉참봉(長陵參奉), 익위사세마(翊衛司洗馬)를 지냈다. 강문팔학사(江門八學士)의 한 사람으로서 예론(禮論)에도 정통하였다. 시재(詩才)가 뛰어나 많은 저작을 남겼으며 성리학에도 일가를 이루었다. 이기이원론(理氣二元論)에 입각하여 기발이승일도설(氣發理乘一途說)이라는 성리학의 정통성을 이어받았다. 이간(李柬)과 함께 낙론(洛論)에 속하여 인(人)과 물(物)의 성(性)이 같다고 주장하였다. 한원진(韓元震)에게 답한 별지는 현상벽의 대표적인 성리설의 집약으로, 『중용』의 천명지성(天命之性)과 『맹자』의 성선설을 인용하여 태극(太極)을 통한 오성(五性)의 본원을 밝힘으로써 이이(李珥)의 이통기국설(理通氣局說)을 계승, 발전시켰다. 주요 저서로 『관봉문답』·『관봉유집』이 있다. 묘소는 충남 예산읍 관작리에 있다.

권상하(權尙夏, 1641~1721) : 호는 수암(遂菴) · 한수재(寒水齋). 송준길(宋浚吉) · 송시열(宋時烈)의 문인이다. 이이(李珥) · 송시열로 이어지는 기호학파의 정통 계승자이며, 인물성동이 논쟁(人物性同異論爭)인 호락논변(湖洛論辨)이 일어나게 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유일(遺逸) : 조선시대 초야에 은거하는 선비를 찾아 천거하는 인재 등용책
세마(洗馬) : 조선시대,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에 소속된 정9품 관직이다. 세자익위사는 세자의 호위를 담당하던 관서였으며, 익위사의 관직은 무반직이었으나 문반도 임명되었다. 세자가 거동할 때 의장을 준비하여 들고 호위하였다. 세자를 가까이에서 호위하는 만큼 신뢰도와 충성도가 중요한 관직이었고, 때로는 외척이나 공신의 자제들을 임명하기도 하였다
강문팔학사(江門八學士) :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의 수제자였던 수암(遂庵) 권상하(權尙夏)는 충청도 청풍(淸風)의 황강(黃江) 옆 한수재(寒水齋)에서 살았다. 그래서 그의 문하생들을 ‘강문(江門) 제자’라고 하였고, 그 중에서 특히 저명한 여덟 명의 제자들을 ‘강문팔학사(江門八學士)’ 혹은 ‘호중팔학사(湖中八學士)’라고 하였다. 전거마다 그 명단이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남당(南塘) 한원진(韓元震), 외암(巍巖) 이간(李柬), 병계(屏溪) 윤봉구(尹鳳九), 봉암(鳳巖) 채지홍(蔡之洪), 봉암(鳳巖) 한홍조(韓弘祚), 관봉(冠峯) 현상벽(玄尙璧), 천서(泉西) 윤혼(尹焜) 등을 칭한다. 책에 따라서는 추담(秋潭) 성만징(成晩徵), 화암(華巖) 이이근(李頤根), 매봉(梅峰) 최징후(崔徵厚)를 넣고, 윤봉구와 한홍조, 윤혼을 빼기도 한다.

승정원일기와 조선왕조실록에 상벽(尙璧)公의 벼슬 임명에 관한 기록이 있다

승정원일기 영조 1년 을사(1725) 11월 12일 (병오) 맑음	
병조가 학성군(鶴城君) 이현(李愼)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였다	
병조가 구전 정사를 하여 학성군(鶴城君) 이현(李愼)과 신광하(申光夏)를 부총관으로, 현상벽(玄尙璧) 을 세마로 삼았다.	

○ 兵曹口傳政事，以鶴城君愼·申光夏爲副摠管，以玄尙璧爲洗馬。	奉勅時分府堂上不可備員而副摠管李順祥今于在外病甚重上未 賜期一頁未嘗發劄守宮及宿衛若之移之結全錄曹 栗曰 通以在京宿衛人乃力口傳差出以備宿衛之也何 傳曰先年 今下矣副摠管李順祥病重上未嘗以宿衛之行臨之不可 通之通令帖改其代及未多之代並口 傳差上何 傳曰先年 以兵曹意 啓曰以攝相衛司勝難判 王世子受冊及習儀時 分司官員不可不備員洗馬登科 代差通差出云宿衛之除似不 可不備員洗馬趙明翼登科 代乃口 傳差上何 傳曰先年 曹 傳政事以鶴城君愼中先員之副摠管以玄尙璧爲洗馬 趙明世 啓曰若者右議政李觀今又使孫事未納 今乃何以 東傳曰遣史官傳政 安重尙以官忠應意 啓嶺南岩沿海少而山 即多上細米穀常上不足於一年之用而今年果事未定出款明年 用誠力苟同矣今道若邑鎮所在戰其船則餉米年之取耗臣今元 至於三萬餘石之多矣已年以來萬餘石已上納京廳之例今亦以此 限一萬石使之上納以補京廳需用何 傳曰先年 又戶曹意

조선왕조실록 영조 3년 정미(1727) 윤 3 월 29일(병술)	이응·박사성·김응복·채지홍·현상벽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응(李膺)을 장령(掌令)으로,박사성(朴 師聖)을 헌납(獻納)으로,김응복(金應福)을 보덕(輔德)으로,채지홍(蔡之洪)을 빙고 별 제(氷庫別提)로,현상벽(玄尙璧)을 장릉 참 봉(長陵參奉)으로 삼았다. 채지홍과 현상 벽은 모두 선정신(先正臣)권상하(權尙夏) 의 문인이다.	○丙戌/以李膺爲掌令,朴師聖爲獻納,金應福 爲輔德,蔡之洪爲氷庫別提,玄尙璧爲長陵參 奉. 之洪、尙璧,皆先正臣權尙夏門人也。

則十一歲 景廟則九歲行禮必於十一歲九歲而行之者蓋有意矣永旨洪
 好人曰似以奇耦數而然矣 上曰然矣仍 命明春嘉禮進定於今年○行
 書講○判尹金興慶引疾乞遑承旨李重協奏曰興慶雖是一品重臣榻前辭
 職極渙猥煩仍請推考 上曰 先朝已有申飭而重臣則或有榻前辭職之
 規仍 命勿推○丙戌以李膺爲掌令朴師聖爲獻納金應福爲輔德蔡之洪
 爲氷庫別提玄尙璧爲長陵參奉○洪尙璧皆先正臣權尙夏門人也○判府
 事洪致中禮曹參判李喬岳請對入侍復申 東朝進宴之請 上曰予當自
 內更爲力懇初致中劄請宗臣等亦陳疏而 慈聖終不允許故 上教如此
 ○判府事洪致中奏曰 英陵石物幸審則傷處不大不必盡改全體昔 崇
 陵馬石傷缺而不爲全改稍小其形仍以舊石用之且聞匠人之言則鑿其舊
 石補以他石加以隱釘填以油灰則必無年久動退之慮云依此修改何如
 上曰既有 崇陵已行之例依匠人言只改其傷處可也○四月朔丁亥以洪
 聖輔爲修撰金鎮玉爲江原監司鎮王文元公長生之後也以蔭仕屢領郡符
 至是擢授監司蔭官之爲監司近世所無也○行書講○命銓曹權授李守謙
 六品之職守謙先正臣混之後也以嶺南人未經痘疫故前後除拜輒以避痘

한수재(寒水齋) 권상하(權尙夏)의 문집에 현상벽에 대한 기록이 있다

한수재선생문집 제5권 / 서(書)

이동보(李同甫)에게 보냄 - 10월 與李同甫十月

九月入山中。行萬東享事。會士百三十七人。成達卿，李柬，尹焜，玄尙璧，崔徵厚，韓弘祚諸人皆來。祭罷行鄉飲禮。仲淳爲賓。清牧爲主人。甚盛舉也。移院之計。已定以今二十四。上櫟於祠宇。文則淳筆也。事鉅力微。求請雖不便。若干相親處。欲作書要助矣

9월달에 산중에 들어가 만동묘(萬東廟) 향사(享事)를 거행하였네. 그곳에 모인 선비는 137인이었는데 성달경(成達卿 성만징(成晩徵))·이간(李柬)·윤혼(尹焜)·**현상벽(玄尙璧)**·최징후(崔徵厚)·한홍조(韓弘祚) 등이 다 왔었네. 제향이 끝난 뒤에 향음례(鄉飲禮)를 행하였는데 중순(仲淳 정호(鄭濤))이 빈(賓)이 되고 청주 목사(淸州牧使)가 주인이 되어 매우 성대하게 행사를 하였네. 서원을 옮기는 계획은 이미 이달 24일에 사우에다 상량을 하기로 정했는데 그 글은 중순의 솜씨이네. 일은 거창하고 힘은 미약하므로, 요구를 한다는 것이 거북하긴 하지만 몇몇 서로 친근한 곳에 서신을 보내 협조를 요구할 생각이네.

寒水齋先生文集卷之二十二 / 記

집성사기(集成祠記)

晦翁夫子生於周程張子之後。折衷群言。發揮經傳。以垂萬世之典。則所謂集群賢而大成者。信不誣矣。及夫子歿。聖學無傳。異言喧豗。斯道晦昧而不彰。天佑我東。眞儒輩出。抽關啓鑰。縷析毫分。明理之功。駸^P駸乎濂洛之盛矣。至我尤菴宋文正先生。則擴而大之。闡而明之。遠接考亭之統。近集諸儒之成。蔚然爲百世之師宗。其功可謂大矣。近來湖中彬彬多學問之士。咸一口言曰晦翁。孔子後一人。尤菴。晦翁後一人也。後學之尊尙模範。宜莫如兩先生。遂立祠於禮山之飛鵲里。以妥眞像。夫子北壁。先生配左。扁以集成。以爲瞻依放仰之所矣。變怪出於意外。皆以爲仍奉未安。且祠在僻隅。實妨游息。乃於癸巳月日。移建于冠峯之下黔溪之上。山水清麗。洞府明塏。正宜於學者之絃誦。其下幾步地。**舊有玄尙璧彥明之書齋。**^P又似乎鹿洞之變塾爲庠。斯亦奇乎哉。是役也。彥明管其始終。太守李鴻瞻伯致力甚勤。崔徵厚成仲，尹焜晦甫，李柬公舉。俱以文字相之。皆不可以無傳也。嗚呼。學宮者。豈但爲俎豆參拜而設哉。入是庭而居是齋者。其必有羹牆江漢之思。讀其書味其訓。發憤勇猛。一言一動。悉以夫子先生爲法。然後庶不負先哲啓後之至意。可不勉哉。崇禎甲申後七十一年甲午孟夏既望。安東權尙夏敬識。

회옹 부자(晦翁夫子)가 주자(周子)·정자(程子)·장자(張子)의 뒤에 태어나서 여러 사람의 말을 절충하여 경전(經傳)을 발휘해서 만세의 법칙으로 전하였으니, 이른바 군현(羣賢)을 집대성(集大成)했다는 말이 진실로 거짓이 아니다. 그러나 주 부자가 작고하신 뒤로는 성학(聖學)이 전하지 못하고 이단(異端)의 말이 시끄럽게 떠돌으로써 사도(斯道)가 어두워져서 드러나지 못했다. 그런데 하늘이 우리 동방을 보우하사 참다운 유학자들이 배출되어 학문의 정수를 뚫고 들어가 아주 세밀히 이치를 분석함으로써, 이치를 밝힌 공이 그 성대했던 염락(濂洛) 시대로 급진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우리 우암(尤菴) 송 문정 선생(宋文正先生)에 이르러서는 그 이학(理學)을 확대하고 천명하여, 멀리는 고정(考亭 주희를 가리킴)의 도통을 접속하고 가까이는 제유(諸儒)가 각각 조금씩 이룬 것들을 집대성함으로써 성대히 백세의 사종(師宗)이 되었으니, 그 공은 진정 크다고 이를 만하다.

그리하여 근래 학문을 많이 하여 문질(文質)이 겸비해진 호중(湖中)의 선비들이 모두 말하기를 “회옹은 공자 이후 일인자이고 우암은 회옹 이후 일인자이니, 후학들로서 존송하여 모범으로 삼을 분은 의당 이 두 선생만한 이가 없다.” 하고, 마침내 예산(禮山)의 비곤리(飛鵠里)에 사당을 세워 진상(眞像)을 봉안하되 주 부자는 북벽(北壁) 아래 봉안하고 선생은 그 왼쪽에 배향시켜, 여기에 집성(集成)이란 편액을 걸어서 우러러 의지하고 본받을 곳으로 삼았다. 그런데 뜻밖에 변괴가 생기자, 모두 ‘그대로 봉안하기가 미안하고 또 사당이 너무 구석진 곳에 있어 실로 학자들이 와서 유식(游息)하기에 불편하다.’고 하여, 계사년 모월 모일에 관봉(冠峯)아래 검계(黔溪) 가에다 사당을 옮겨 세우니, 산수가 맑고 고우며 골짜기가 환하게 탁 트여 학자들이 학문을 닦기에 꼭 알맞았다. 그 아래로 몇 걸음을 내려가면 옛날 현상벽 언명(玄尙璧彦明)의 서재가 있어 또 백록동(白鹿洞)의 숙(塾)이 상(庠)으로 변화한 것과 비슷하니, 이 또한 기이한 일이다. 이 일을 하는 데 있어 언명(彦明 현상벽(玄尙璧))이 그 시종을 주관하였고, 태수(太守) 이옥 첨백(李澳瞻伯)이 이 일에 매우 힘썼으며, 최징후 성중(崔徵厚成仲)·윤혼 회보(尹焜晦甫)·이간 공거(李柬公舉)는 모두 문자(文字)로 도와주었으니, 모두 이름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아, 학궁(學宮)이 어찌 제수(祭需)나 차려 놓고 참배나 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이겠는가. 이 마당에 들어와 이 재(齋)에 거처하는 자는 반드시 선사(先師)를 깊이 사모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그 글을 읽고 그 교훈을 음미하면서 용맹하게 분발하여 말 한마디, 행동 한 가지라도 모두 주 부자와 우암 선생을 본받은 다음에야 거의 선철(先哲)들이 후진을 계도시킨 지극한 뜻을 저버리지 않게 될 것이니, 힘쓰지 않아서 되겠는가.

승정 갑신년 후 71년인 갑오년(1714, 숙종40) 4월 16일에 안동(安東) 권상하(權尙夏)는 삼가 기록한다.

현상벽의 [관봉선생유고]에 수암 임상하 제문이 실려있다.

수암 임상하(遂庵 任相夏, 1641-1721) : 조선 중기의 유학자, 우암 송시열의 제자로, 성리학 연구에 기여했다. 임상하는 경세치용을 강조하며, 여러 저서를 남겼다. 그의 학문적 업적은 후학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역사와 문학에 대한 연구가 두드러진다.

冠峯先生遺稿卷之十 / 祭文 / 祭遂庵先生文辛丑

관봉 선생이 수암 선생을 추모하며 쓴 글

吾道既東。眞儒輩出。猗歟石潭。一主閩學。由沙逮尤。益闡益擴。繄我先生。應期挺特。沖和之氣。凝重之質。嶷嶷其像。蕩蕩其臆。早自得師。門路端的。樸實用功。三省四勿。守道山樊。永矢不告。斯文邁厄。楚山傳鉢。杜門愈深。素志益確。內修不輟。蔚然成德。以善及人。束修相屬。諄諄不倦。兩端斯竭。多士作成。一世斐蔚。四方山仰。衆星拱北。休聲轍天。至尊側席。爵祿既辭。謙光愈篤。道否柔兆。愠于羣慝。尺疏嚴正。允蹈麟筆。下關諛辭。上回睿識。事一之義。日星明白。天眷彌隆。寤寐如渴。勉赴行宮。庸答殊渥。故山遄歸。白駒難繫。斂手在野。一ㅍ念惟國。嗚呼哀哉。小子失學。晚始負笈。從容函丈。飲和薰德。潤如時雨。煦如春日。冒懷洞然。徹視無隔。所以賢愚。皆獲其益。仰鑽萬一。如服七十。願染素絲。奈彫朽木。粗知齊語。實自莊岳。性道之蘊。罕聞從昔。滄溟無際。有蠡莫測。益俟飲河。庶幾卒業。山川既脩。貧病交掣。曠我操几。在巾結轡。天不慙遺。樛木遽折。蓍龜其亡。父母其沒。邦國殄瘁。士林寂寞。舉世貿貿。衆疑誰決。人才眇眇。統緒誰接。小子俛俛。摘埴靡托。中夏一侍。千古永訣。病不舉扶。沒不殮飾。承訃又晚。後人奔哭。終天之恨。沒齒何洩。儀形永閔。警欬如昨。間氣之聚。悠散何適。尙有ㅍ不昧。鑑此衷曲。嗚呼哀哉。

우리의 도가 동쪽으로 전해져 참된 유학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석담(石潭) 선생께서 주자학을 주로 하였고, 사계(沙溪)와 우암(尤庵) 선생을 거치며 더욱 발전하고 확장되었습니다. 우리 수암 선생께서는 시대의 요구에 맞춰 특별히 나타나셨습니다. 선생께서는 온화한 기운과 중후한 품성을 지니셨고, 그 모습이 우뚝하고 마음이 넓으셨습니다. 일찍이 스승을 얻어 올바른 학문의 길을 걸으셨고, 성실히 공부하며 항상 자신을 반성하셨습니다. 산속에서 도를 지키며 평생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유학이 위기에 처했을 때 선생께서는 더욱 깊이 학문에 몰두하셨고, 내면을 갈고닦아 덕을 이루셨습니다. 많은 제자들을 가르치시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고, 사방에서 존경을 받으셨습니다. 임금께서 곁에 모시고자 하셨으나, 관직과 녹봉을 사양하시고 겸손함을 더하셨습니다. 세상의 악함에 분노하셨지만, 엄정한 상소로 임금의 마음을 돌리셨습니다. 선생께서는 항상 나라를 걱정하셨고, 만년에는 고향으로 돌아가 은거하셨습니다. 제가 늦게나마 선생님을 찾아뵈어 가르침을 받았으나, 제 능력이 부족하여 선생의 깊은 뜻을 다 배우지 못했습니다. 이제 선생께서 돌아가시니, 세상은 어지럽고 의지할 곳 없어졌습니다. 선생의 가르침을 받지 못한 것이 한이 되어 평생 아쉬움으로 남을 것입니다. 선생의 모습은 사라졌지만, 그 정신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는 듯합니다. 아, 슬프도다!

영익 永益, 22세, 1784년생, 금부도사(禁府都事), 사옹직장(司饗直長, 종7품)

12세	13세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20세	21세	22세	23세
3 윤무允武 부사직 副司直	3 기(琦) 습독관 선무랑 習讀官 宣務郎	1 덕량德良 인동현감 1544~1610									
		2 덕옹德頤 군수郡守	1 위(偉) 통덕랑 通德郎	2 석하錫夏 선교랑 宣敎郎	2 구령九齡	1 상벽尙壁 세마洗馬	1 희원希遠	1 載岳재악	1 鎮常진상	1 永益영익	
				3 錫晉석진	2 億齡억령	1 尙綱상경	1 希天희천	1 載夏재하	1 鎮默진묵		

상벽(尙壁)의 현손(玄孫), 진상(鎭常)의 장남이다. 1784년 (정조正祖 8년)에 태어났다. 순조 때 음참봉(蔭叅奉), 금부도사(禁府都事), 조봉대부(朝奉大夫), 사포서직장(司圃署直長), 사옹직장(司饗直長, 종7품)을 지냈다고 족보에 기록되어있다.

현영익[음관] 음보(蔭譜)기록	『음보(蔭譜)』 貞(규장각한국학연구원[古929.3-Eu55])
[이력사항] 관직 : 신사(辛巳) 9월(九月) 소령수(昭寧守) 관직 : 계미(癸未) 4월(四月) 도봉(導奉) 금비진환(禁非進換) 관직 : 을유(乙酉) 7월(七月) 포직(圃直) 관직 : 병술(丙戌) 11월(十一月) 개(改) [부(父)] 성명 : 현진상(玄鎭常)	

관직 : 군수(郡守)





덕룡(德龍)
묘소

광언 光彦, 24세, 1942년생

야전포병 단장, 국방장관 보좌관,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부 차장, 육군 소장 예편, 인헌무공훈장, 보국훈장 천수장, 대통령 표창, 영남대학교수, LG정밀 상무, 재향군인회 기조실장, 한미안보연구회 부회장, 대중회 부회장 및 고문





3자 윤무- 4자 숙(璫)系

숙 璫, 13세. (1831~ 헌릉(獻陵, 태조대왕릉(太祖大王陵) 참봉

12세	13세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20세	21세	22세	23세	24세	25세
3 윤무 允武 부사직 副司直	숙(璫) 참봉 계공랑 啓功郎	덕승(德升) 북평사 (北評事)	언(僊) 통덕랑	흥준(興俊)	만원(萬元)	성규(聖圭)	희일希一 희증希曾	재복載福 재성載成	진옥鎮玉 진곤鎮坤	영기永基			
							희익希益	재목載穆	진상鎮商 부사府使	영익永益 만희재 晩晦齋			
		덕민(德敏) 장사랑 (將仕郎)	계(係)	상구(尙龜) 생원(生員)	이원(履元)	진규(震圭) 系子	희철(希喆) 효자	재흥載弘	진구鎮九	영오永五	익동翼東 종사랑 從仕郎		
				명구 命(明)龜									
		덕립(德立) 통덕랑 (通德郎)	식(식)	1 성구(聖龜)	우원(遇元) 판윤(判尹)	진규(震圭) 出系이원							
				6 정구(鼎龜)	2 處元처원	1 尙穆상목	1 希麟희혁	1 載寅재인	4 鎮配진배	2 永祿영록	2 世東세동	2 光來광래	1 湔周일주
				수군절제사 水軍節制使									
		휘(德輝) 통덕랑 (通德郎)	언(僊) 출계덕승										

득리(得利)의 손자, 윤무(允武)의 4남이다. 1523년(중종中宗 18년) 2월7일에 출생하셨다. 과거(科擧)를 멀리하고 부모봉양(父母奉養)에 전력하셨다. 1562년(명종明宗, 18년)에 나라에서 효행천거(孝行薦擧)로 헌릉(獻陵; 태조대왕릉太祖大王陵) 참봉(參奉)이 되셨다가 얼마안되어 사직하고 집에 돌아오셨다. 1591년(선조 24년)년 12월14일에 돌아가셔서 천안시(天安市) 부대동(富垔洞) 현감공(縣監公)의 묘소 우편(右便) 간좌원(艮坐原)에 장사(葬事)한 것으로 족보에 기록되어 있다.



十三世 參奉公 諱 璫斗 配安東金氏의 墓(合封)
所在地：忠清南道 天安市 北面 富堡里(구 富斗里)

13세 속(璫) 묘소

42. 參奉玄公墓碣銘并序

公諱璫字彥琛玄氏貫延州高麗平章事諱覃胤其始祖屢傳有諱玉亮禮曹判書顯於 本朝曾祖曰得利全州判官殉義於李施愛亂祖曰貴縣監考曰允武副司直妣蔚山李氏別提舜弼女公以 中廟癸未三月七日生自幼有至性孝事二親盡其志體之養才思穎悟不煩教督而文理夙達成童已通詩書常曰讀書歸天行行必以孝悌爲本故曰本立而道生爲人之道蓋不外此伯仲兩兄旣通仕籍吾亦出仕則養親末由遂廢舉業專力供奉兼治書疇旨甘常充歲餽有盜數十突入家內公負母越牆爲盜所擊血流被面竟屏處而安之父病求藥昏夜踰嶺有猛獸當路公諭以湯藥急歸之意虎遂俛首少避殆數十里隨後護行及到家忽不見人謂孝感仍盧墓終制後喪亦如之至今有遺址 明廟壬戌以孝行薦爲 獻陵參奉未幾辭歸有四同氣公其季也而與伯氏同居一室湛樂式好尺布斗粟不爲私儲如飲食之常不敢先箸仲氏異居朝夕問候至衰老靡懈有疾則親湯藥以進撫養諸姪無間已出其孝友事行之大略如此也辛卯十二月十四日卒墓于天安北面富土里縣監公塋右艮原配安東金氏參奉彥邦女生甲申正月卒乙酉三月二十日有淑行墓附公有四男德升號希庵文科北評事有節義享天安六賢祠德敏將仕郎德立通德郎德輝女延日鄭漢歎城全得一內外孫曾不盡錄嗚呼公孝友旣篤且有文學之才薄試郎僚罔展其他步惜矣公後承繫衍至今十餘世往往以文學科宦爲湖中聞族天道報應其在茲乎後孫將豎碣來請銘者十代孫彩東十二代孫武周十三代孫鍾完旣不得辭則據家傳叙之如右繼以銘曰

猗歟維公天賦美兮家政云何孝友是兮虎護神指孝感然兮分外榮貴視如雲兮志高行備奚翹文兮流慶無極後嗣昌兮我銘于石於千霜兮

戊子南至節

嘉善大夫 侍講院兼輔德原任 奎章閣直學士 宣城 李貞烈 撰

참봉헌공묘소와 묘갈명병서(參奉玄公墓碣銘并序) 원문

참봉헌공묘갈명병서(參奉玄公墓碣銘并序) 공의 휘(諱)는 숙(璿)이요 자(字)는 언경(彦璟)이요 현씨(玄氏)의 관(貫)은 연주(延州)니 고려평장사(高麗平章事)(정일품관(正一品官)) 휘(諱) 담윤(覃胤)이 그의 시조(始祖)요 여러 대(代)를 내려와서 휘(諱) 옥량(玉亮)이 있으시고 예조판서(禮曹判書)(이름관(二品官))시니 본조(本朝)(이씨조선(李氏朝鮮))에 신분(身分)이 현저(顯著)하시고 증조(曾祖)의 휘(諱) 득리(得利)시니 전주판관(全州判官)(종오품관(從五品官))으로 이시애반란(李施愛叛亂)에 순의(殉義)(나라를 위하여 몸바쳐 죽음)하시고 조(祖)의 휘(諱)는 분(賁)이시니 송화현감(松禾縣監)이요 고휘(考諱)는 윤무(允武)신대 벼슬은 부사직(副司直)(종오품관(從五品官))이요, 비(妣)는 울산(栗山)이씨 별제(別提)(벼슬이름) 휘(諱) 순필(舜弼)의 따님이시다. 公께서 중종(中宗) 계미(癸未)(西紀一五二三年)二月七日에 출생(出生)하시어 어릴 때부터 부모(父母)님께 효도(孝道)로서 봉양(奉養)하시고 재질(才質)이 영매(英邁)하시어 번거롭게 가르치지 않아도 문리(文理)가 일찍 통달(通達)하시어 성동(成童)(十五歲)에 벌써 시전(詩傳)·서전(書傳)을 능통(能通)하시고 항상(恒常) 말씀하시기를 「글을 읽는 것은 실지(實地)로 실천(實踐)하기를 더 귀중(貴重)하게 여기도록 할 것이니 행실(行實)은 반드시 부모(父母)에게 효도(孝道)하고, 형제간(兄弟間)에 우애(友愛)하고, 일가간(一家間)에 화목(和睦)함을 근본(根本)으로 하므로 행실이 올바르면 사람의 도리(道理)가 되는 것이고, 근본(根本)이 서게 되면 사람의 도리(道理)가 자연(自然)히 우리나라오는 것이니 사람이 되는 도	리(道理)는 이 밖에 또 있으리오. 백씨(伯氏)와 증씨(仲氏)가 모두 벼슬길에 오르셨으니 내 또한 벼슬길에 나아가게 되면 부모봉양(父母奉養)은 누가 하리오」 하시며 과거(科擧)를 아니 하시고 부모봉양(父母奉養)에 전력(專力)하시고 겸(兼)하여 글공부(工夫)를 하시며 감지(甘旨)로 봉양(鳳陽)하시더니 흉년(凶年)을 맞이하여 수십명(數十名)의 폐도적이 몰려드니 공께서는 모친(母親)을 등에 업고 담을 넘어가다가 화(禍)를 입어 얼굴에서 피가 흘러 방황할 때 마침 숨을 곳을 찾게 되어 어머님을 편안하게 모시고 아버지의 병환(病患)에 약(藥)을 구(求)하러 어두운 밤에 험한 산(山)고개를 넘게 되자 호랑이가 앞을 막으므로 공께서 부친병환(父親病患)에 약(藥)을 가지고 급(急)히 집에 돌아가야 할 뜻을 일러 말하니 범이 드디어 머리를 구부리고 길을 열어주고 수십리(數十里)까지 뒤를 따라 호위해 오다가 급기야(及其也) 공의 집에 이르자 홀연(忽然)히 사라지니 사람들이 공의 효성(孝誠)에 감동(感動)함이라 하고 부친상(父親喪)에 시묘(侍墓)로 삼년복제(三年服制)를 마치시고 그 뒤 모친상(母親喪)에도 또한 부친상(父親喪) 때와 같이 시묘(侍墓)하셨으므로 시묘(侍墓)하셨던 터가 지금까지 남아있으며 명종(明宗) 임술(壬戌)(西紀一五六二年)年에 나라에서 효행천거(孝行薦擧)로 헌릉(獻陵)(태조대왕릉(太祖大王陵)) 참봉(參奉)이 되셨다가 얼마 안되어 사직(辭職)하고 집에 돌아오셨다. 사형제(四兄弟)가 있으니 공께서는 막내시다. 백씨(伯氏)와 항상(恒時)한 집에서 사시게 됨을 즐거워하시며 한 치의 웃감이나 한말의 곡식을 따로 사사롭게 저축하신 일이 없고,
--	--

음식(飲食)에 있어서도 감(敢)히 먼저 시저(匙箸)를 들지 아니하고, 증씨(仲氏)께서는 각거(各居)하시는 고(故)로 병환(病患)이 있으시면 손수 약(藥)을 다려 봉진(奉進)하고 여러 조카들도 부양(扶養)하기를 친(親)아들 딸과 다름없이 하셨으니 공의 효도(孝道)와 우애(友愛)하심이 대략 이와 같으셨다.

신묘(辛卯)(西紀一八九一年)十二月十四일에 기세(棄世)하셔서 천안시(天安市) 부대동(富岱洞) 현감공(縣監公)의 묘소 우편(墓所右便) 간좌원(艮坐原)에 장사(葬事)하고 배위(配位)는 안동김씨(安東金氏) 참봉(參奉) 휘(諱) 언방(彦邦)의 따님 이시다. 갑신(甲申)(西紀一五二四年) 正月에 출생(出生)하시어 을유(乙酉)(西紀一五八五年)三月二十일에 돌아가시니 현숙(賢淑)하시고 묘(墓)는 부군(夫君)과 합평(合窆)하였다. 사남(四男)을 두시니 휘(諱) 덕승(德升)은 호(號) 희암(希庵)이시며 문과(文科)에 급제(及第)하여 북평사(北評事)(벼슬명칭)로 도학(道學)과 절의(節義)가 있어 천안육현사(天安六賢祠)에 봉안(奉安)하고 유림(儒林)이 제향(祭享)하며, 휘(諱) 덕민(德敏)은 장사랑(將仕郎)(구품(九品) 벼슬)이요, 삼남(三男) 휘(諱) 덕립(德立)은 통덕랑(通德郎)(오품관(五品官))이요, 사남(四男) 휘(諱) 덕휘(德輝) 호(號) 청암(淸庵)은 역시 통덕랑(通德郎)이요, 여서(女婿)는 연일정 익(延日鄭 漢)과 환성전득일(歡城全得一)이요, 본외손(本外孫)을 다 기록(記錄)하지 못한다.

아! 슬프다. 공개서는 효도(孝道)와 우애(友愛)가 이 처럼 두터우시고 문학(文學)의 재능(才能)이 있으시어 잠깐 낭료(郎僚)(낯선벼슬)에 나가시었다가 높고 큰 뜻을 펴지 못하

셨으니 참으로 애석(哀惜)하도다. 공의 후손(後孫)이 번연(繁衍)하여 십여대(十餘代)에 이르기까지 왕왕(往往)히 학문(學問)과 벼슬로써 호중(湖中)(호남지방(湖南地方))에 그 명성(名聲)을 떨치고 있으니 이는 하늘의 도움으로써 이뤄진 것이라 할 것이다.

후손(後孫)들이 장차(將次) 공의 묘(墓)에 비(碑)를 세우고자 십대손(十代孫) 채동(彩東), 십二代손(十二代孫) 무주(武周), 십삼대손(十三代孫) 종완(鍾完)이가 나에게 와서 명장(銘章)을 청(請)하므로 부득이(不得已) 사양(辭讓)하지 못하고 가전(家傳)하는 바에 의거(依據)하여 우(右)와 같이 저술(著述)하고 좌(左)와 같이 명장(銘章)을 쓰노라.

아 ! 아름답도다. 공개서는 천성(天性)이 아름다우시고 부모(父母)에게 효도(孝道)하고 형제간(兄弟間)에 우애(友愛)하심이 지극(至極)하시어 법이 호위(護衛)하고 신명(神明)이 가르치시니 효성(孝誠)에 감동(感動)하심이라. 문수(分數)밖에 부귀영화(富貴榮華)는 허공에 뜬 구름처럼 보시고 뜻이 높고 행실(行實)이 갖추졌으니 어찌 학문(學問)뿐이리오. 이로 인한 경사(慶事)가 끝없이 흘러 후손(後孫)들이 창성(昌盛)할 지어다. 내가 이와 같이 글을 지어 돌에 새기니 천추(千秋)에 이어 갈 것이다.

무자(戊子)(西紀一九四八年)남지절(南至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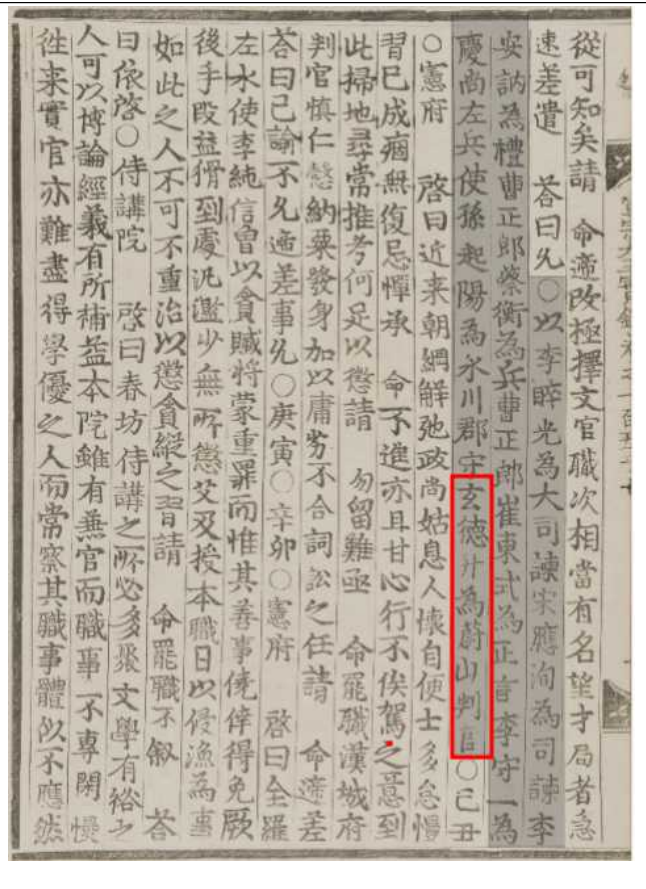
가선대부(嘉善大夫) 시강원(侍講院)(왕(王)이 강론하는 자리)첨보덕원임(兼輔德原任)(벼슬이름) 규장각(奎章閣)(어필보관(御筆保管)하는 곳)직학사(直學士) 선성(宣城) 이정렬(李貞烈) 찬(撰)

덕승 德升, 14세. 희암(希菴), 울산판관, 지평

11세	12세	13세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20세	21세	22세	23세
분(賁) 감찰(監察) 송화현감(松禾縣監)	3 윤무(允武) 부사직 (副司直)	4 숙(璫) 참봉 계공랑 啓功郎	1 덕승(德升) 북평사 (北評事)	언(僊) 통덕랑	흥준(興俊)	만원(萬元)	성규(聖圭)	희일希一 희증希曾	재복載福 재성載成	진옥鎮玉 진곤鎮坤	영기永基	
								희익希益	재목載穆	진상鎮商 부사府使	영익永益 만희재 晩晦齋	

득리(得利)의 현손(玄孫), 윤무(允武)의 손자, 숙(璫)의 아들이다. 1564년(명종 19년) 태어나서 1627년(인조 5년)에 돌아가셨다. 호는 희암(希菴)이다. 울산판관, 지평 등을 역임한 문신, 성리학자이다.

선조 35년 임인(1602) 12월 1일(무자)
이수광 · 송응순 · 이안눌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수광(李睟光)을 대사간으로, 송응순(宋應詢)을 사간으로, 이안눌(李安訥)을 예조 정랑으로, 채형(蔡衡)을 병조 정랑으로, 최동식(崔東式)을 정언으로, 이수일(李守一)을 경상 좌병사로, 손기양(孫起陽)을 영천 군수로(永川郡守)로, 현덕승(玄德升)을 울산 판관(蔚山判官)으로 삼았다.
○以李睟光爲大司諫,宋應詢爲司諫,李安訥爲禮曹正郎,蔡衡爲兵曹正郎,崔東式爲正言,李守一爲慶尙左兵使,孫起陽爲永川郡守,玄德升爲蔚山判官。



* [민족문화대백과]에는 ‘현석린(玄碩璘)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현구손(玄龜孫)이고, 아버지는 현숙(玄璫)이다’라고 되어있다. 평장사공파(平章事公派)에 健(건, 10세)-石璘(석린, 11세)-龜孫(구손, 12세)-璫(숙, 13세, 1505년생)-克祿(극록, 14세, 1536년생)이 있는 바, 동명이인(同名異人)을 착오한 오기(誤記)로 보임

1588년(선조21) 진사가 되고 1590년(선조23) 증광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다. 병예조 정랑(正郎)·사헌부 지평(持平, 정5품)·성균관(成均館) 사예(司藝)를 지냈다.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광해군의 동궁기사관(東宮記事官)으로 시위(侍衛)하다가 몰래 창기(娼妓)와 잤다고 하여 승문원저작에서 파직되기도 하였으나, 전공(戰功)으로 여러 곳의 수령을 지냈다. 1606년 북평사(北評事)로 있을 때 사헌부의 탄핵으로 파직되었다가 다음 해 울산판관을 거쳐, 지평에 이르렀다. 광해군이 즉위하여 실정함을 보고는 벼슬을 버리고 학문에만 열중하였다. 문장(文章)과 필법(筆法)이 그 당시 세상에서 으뜸이었다. 1627년(인조 5년)에 돌아가셨다. 세상에 희암선생(希菴先生)이라고 부르며 천안(天安)의 육현사(天安六賢祠)에서 유림이 제사(祭祀)를 받든다. 저서로는 『희암유고』 4권 2책이 있다. 직계 후손인 현영익(22세)이 시집. 문집을 수집하여 정리하고 1902년 현익동(23세)이 활자로 인쇄하여 간행했다.

희암유고(希菴遺稿)

조선시대 때의 학자, 현덕승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902년에 간행한 시문집. 4권 2책. 목활자본으로 권두에 8대손 영익(永益)과 최익현(崔益鉉)의 서문이, 권말에 장유(張維)의 발문이 있다. 규장각 도서·장서각 도서·국립중앙도서관에 있다. 희암 현덕승이 돌아가신 후 문인 徐挺然이 詩稿 2권을 抄集하여 1636년 6월에 張維의 발문을 받아 두었다. 그러나 병자호란을 겪는 와중에 간행은 하지 못한 채로 家藏하여 왔다. 1883년에 8대손 玄永益(1831~1884)이 서정연이 편차해 둔 舊本을 바탕으로 詩集, 文集을 다시 교정 편차하고 편말에 附錄을 붙여 ‘希菴先生遺稿’라 명명하여 보관하였다. 그 후 저자의 방9대손 玄翼東(1853~1917)이 定山의 崔益鉉에게 서문을 받아 1902년에 4권 2책의 활자로 인행하였다. 《초간본》은 규장각(古3428-370), 국립중앙도서관(한46-가2243),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D1-A649),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장서각(K4-6706),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권1~3에 시 455수, 권4에 서(書) 2편, 서(序)·발(跋)·묘지·기우문 각 1편, 인(引) 2수, 상량문 3편, 책문 2편, 시 2수, 부록으로 행장, 보유, 갑계좌목(甲契座目)의 서·발, 제문, 축문, 찬(贊), 시, 만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는 「월토후무제(月吐後無題)」 등 오언고시 47수, 「만성(謾成)」의 육언고시 1수, 「고우(苦雨)」·「경술분세체읍서(庚戌分歲涕泣書)」·「야문인가새신(夜聞隣家養神)」 등 칠언고시 10수, 「삼월삼일시종영제자(三月三日示宗英諸子)」·「만성취서(謾成醉書)」 등 오언절구 5수, 「수기개창십이호(睡起開窓十二號)」·「월사회양관벽상시(月沙淮陽館壁上詩)」·「하처난망주(何處難忘酒)」 등 오언율시 81수, 「영시월국(詠十月菊)」·「취와파옥(醉臥破屋)」·「휴암낙조(鵠巖落照)」·「십리평무(十里平蕪)」·「율리취연(栗里炊烟)」 등 칠언절구 121수, 「야작십이호(夜酌十二號)」·「산정만흥(山亭謾興)」·「수필만성(隨筆謾成)」·「염구(念九)」·「야설구호(夜雪口號)」·「서강태초독배(書姜太初牘背)」·「견자양선생훈수지종학첩유감(見紫陽先生訓受之從學帖有感)」 등 칠언율시 190수로 되어 있다.

부록의 「갑계좌목」은 저자와 동갑인 이정구(李廷龜) 등 당시 계원의 이름을 적어놓은 것이다. 부록의 제자 서정연(徐挺然)이 쓴 「용두형승제(龍頭形勝題)」에는 그 지역이 저자가 온 뒤로부터 명승지가 되었다고 기리고 있는 내용이 있다.

희암선생유고권일율시오언(希菴先生遺稿券一律詩五言)

한거(閑居 ; 한가하게 지냄) 四首(4수) 희암(希菴) 현덕승(玄德升)

其一

湖山眞脫略(호산진탈략) 호산은 참으로 세속을 벗어났으니
十載閉空簾(십재폐공렴) 10년간 찾는 사람 없었네
未暇追姬孔(미가추희공) 주공(周公:姬)과 공자를 따를 겨를이 없는데
何妨學老嚴(하방학노엄) 어찌 노자와 장자(莊嚴) 배우는 걸 막겠는가
聾多霆在耳(농다연재이) 세상사에 귀 막아도 우레소리 들리고
年邁雪渾髯(연매설혼염) 나이 들어 귀밑머리 눈내린 듯 희구나
寂寞應吾道(적막응오도) 고요히 나의 도(吾道:儒學)에 응하니
人嘲也不嫌(인조야불겸) 사람들이 비웃은들 개의치 않노라

* 호산(湖山)은 충청도 서천의 옛 지명

其二

宿雲出竹房(숙운출죽방) 간밤의 구름이 죽방을 벗어나고
山鳥上書床(산조상서상) 산새는 책상 위에 날아든다
夕照穿霞逗(석조천하두) 석양의 낙조는 노을 뚫고 머무르고
光風泛蕙香(광풍범혜향) 비온 뒤 부는 바람[光風]에 난초 향기 가득하다
長歌任衰白(장가임쇠백) 늙은 몸에 긴 노래 읊으며
孤坐度曛黃(고좌도훈황) 외로이 앉아 황혼을 넘는다
近覺添生活(근각첨생활) 근래 삶의 정취를 더해주는 것을 알았으니
新傳釀酒方(신전양조방) 새로이 술빚는 방법을 전하는 것이라네

其三

結茅溪水上(결모계수상) : 이영 엮은 뗏집을 개울물가에 지었더니
簷影落潭心(첨영락담심) : 처마 그림자가 못 속에 비쳐 일렁이네
醉睡風吹醒(취수풍취성) : 취하여 자다보면 바람 불어 깨워주고
新詩鳥和吟(신시조화음) : 새로운 시를 지어 읊으면 산새들도 화답하네
放牛眠細草(방우면세초) : 고삐 풀린 소는 잔 풀 위에 누워 잠들고
驚鹿入長林(경록입장림) : 놀란 사슴은 숲속으로 드는구나
依杖青松側(의장청송측) : 지팡이 의지하고 푸른 소나무 곁에 섰노라니
千峰紫翠深(천봉자취심) : 모든 산봉우리 청록색 푸른빛이 짙어만 가누나.

其四

懶慢作勢起(나만작세기) 게으름이 일어나려하기에
巖臺隨意行(엄대수의행) 발길 가는대로 바위 위 누대에 오르니
鳬雛沙上睡(부추사상수) 오리 새끼는 모래 위에서 졸고 있고
魚子雨餘生(어지우여생) 비온 뒤 물고기는 생기가 도는구나
雲物堪乘興(운물감승흥) 구름은 흥을 일으키고
溪山足放情(계산족방정) 시내 산은 정취를 내뿜네
風流有欠事(풍류유흠사) 풍류 생활에 모자람이 있으니
無與耦而耕(무여우이경) 함께 밭 갈 벗이 없구나

1902년(대한제국 고종황제 6년, 영력永曆 256년)에 면암 최익현(崔益鉉) 선생이
<희암선생유고(希庵先生遺稿)에 대(對)한 서문(序文)>을 지었다. (요약)

43.希庵先生遺稿序

希庵玄公沒而無記事之狀闕揭阡之文寥寥近三百年至今學士大夫往往有談及公類企慕徘徊恨不及並時齊美致慷慨之情也是必其咳唾之遺人皆愛而寶之不啻如吉光之羽則雖殘章短吟在所剗剗廣布耳目不可緩也顧後承單寒又無好善慕義之士爲之致力者泯泯以至于今尙論者慊焉蓋公早歲釋褐進途于于而光海敦倫杜門歛跡 仁廟改玉不就徵辟才豪氣直聳拔一世一世之愛重者如尹月汀李月沙姜睡隱李陶庵諸賢并在觀善之列而洪學士翼漢孫翰林必大乃其高弟門人則交遊傳授之盛書交志尚之高顧何如也至若各家敘述有曰良玉其質冰蘖其操有曰其文也奇班馬餘骨其詩也古李杜遺風云者亦以見當時推轂之萬一則百世景仰實是出於秉彝同情而決非阿私之論也余僑居湖右之定山有玄生翼東過從乃是公九世傍孫裔袖公遺稿二局屬以玄晏余愧非其任而亦不能辭也遂叙大略以寓緇衣之感至於詩文之聲律校卒有不敢論公諱德升字聞遠星州世家 萬曆庚寅登科由承文正字歷長興通判至成均館司藝字號希庵居士云

永曆二百五十六年歲次壬寅季秋日

嘉善大夫戶曹叅判同知義禁府事兼 經筵特進官 月城 崔

益鉉 序

(상략) 그 세대(世代)에 애중(愛重)하게 생각하신 분(分)은 윤월정(尹月汀)(휘 근수(諱根壽)해평인(海平人)) 이월사(李月沙)(휘 정구(諱廷龜) 연안인(延安人) 문장(文章)) 강수은(姜睡隱)(휘 침(諱沉) 진주인(晉州人)) 이도암(李陶庵)(휘 재(諱穉) 우봉인(牛峰人) 문장(文章))과 같은 여러 현인대열(賢人隊列)에 병립(并立)하셨으며 홍학사(洪學士)(휘 익한(諱翼漢) 남양인(南陽人)으로 병자호란(丙子胡亂)에 수절(守節)하신 분(分)) 손한림(孫翰林)(휘 필대(諱必大))은 公의 문인(門人)이니 위와 같은 고명인사(高明人士)들과 교제(交際)하여 상호간(相互間)에 전수(傳授)하며 글로써 사귀어 그 아름다운 뜻을 숭고(崇高)하였으니 이것이 과연(果然) 어떠하였으리오.

(중략) 公의 구세방손(九世傍孫) 현생익동(玄生翼東)이 公의 유고이편(遺稿二編)을 가지고 찾아왔으니 간절히 公의 유고서문(遺稿序文)을 기술(記述)하여 달라고 청(請)하오나 그 청(請)을 맞기가 부끄러워서 사양(辭讓)하다가 할 수 없이 대략(大略)을 엮어서 치의지감(緇衣之感)(부끄러운 마음)으로 현생(玄生)에게 주었으며 公의 시문(詩文)에 있어 성률(聲律)과 교졸(巧拙)한 것을 감(敢)히 말할 수 없는 바이다.

현덕승이 사헌부지평 벼슬 때, 이순신 장군과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 是無國家, (만약에 호남이 없다면 나라가 없다))'라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주고받았다. 이 말은 호남의 위상과 자존심을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호남이 왜적의 수중에 들어가지 않도록 지키기 위해 진영을 한산도로 옮길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현윤명의 증손자 15세 현건(玄健, 1572~1656)도 이순신과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그 편지들이 종가에 전해지고 있다. 이순신이 현덕승에게 보낸 편지 3통, 현건에게 보낸 편지는 4통 중 일부는 충남 아산에 있는 현충사에 기증되어 보관되어 있다.

현지평 정안 회답

임금님의 건강이 아주 회복되셨다니, 신민으로서의 경사스러운 일입니다. 즐겁고, 경축함을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이리저리 유리 파산한 나머지 기리는 정이 간절하든 차에 문득 하인이 와서 이달 초순에 보낸 편지를 받아보니, 마음의 위로가 되고, 마음이 시원한 것이 보통 때보다 더 간절하웁고, 특히 편지에 담긴 말씀이 참으로 정중하시니 감사합니다. 찬바람이 나는 계절에 정중기체후 평안하시다니, 마음속으로 말할 수 없이 위로가 됩니다. 척하는 병대에서 적고를 해서 국은이 망극하시어 정헌대부로 승진시켜주시니 감송함이 그지없습니다. 가만히 생각건대, 호남은 우리나라의 보장이니 만약에 호남이 없다면, 이는 국가가 없어진 것임으로 어제 한산도로 진을 옮겨서 바닷길을 차단하려고 계획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난리 가운데서도 구정을 잊지 않으시고, 멀리 위문을 해주시고, 겸하여 각종의 물품을 받고 보니, 모두가 진중에 귀물이 되므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날에나 이 비린내 나는 먼지를 털어 버리고, 옛날 종유하던 회포를 풀어 볼지 알 수 없고, 답답할 뿐입니다. 자리가 시끄러워 감사의 말씀 이만 줄입니다.

癸巳(1593)년 칠월 십육일 척하 이순신 배수

보내 주신 물품은 마포 면포 각 3필, 장지 백지 각 3권, 황촉 한 쌍, 대복 이청, 수어 민어 10마리, 유자 100개는 보내기는 했으나, 오지않았으니 혹시나 짐이 무거워서 그리된 것인지 거리가 멀어서 알 수 없으므로 자세히 써 올립니다.

玄持平 靜案 回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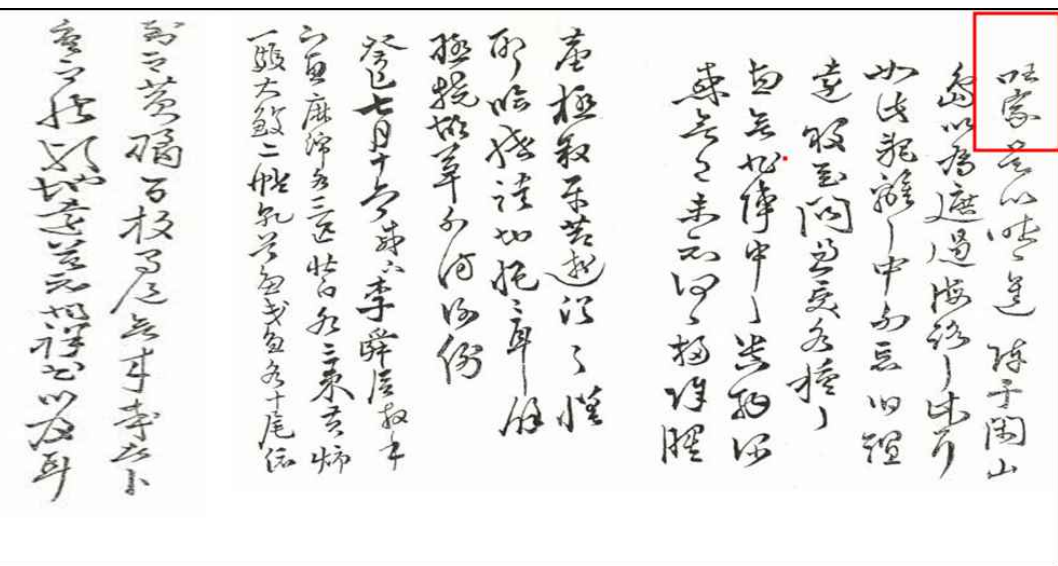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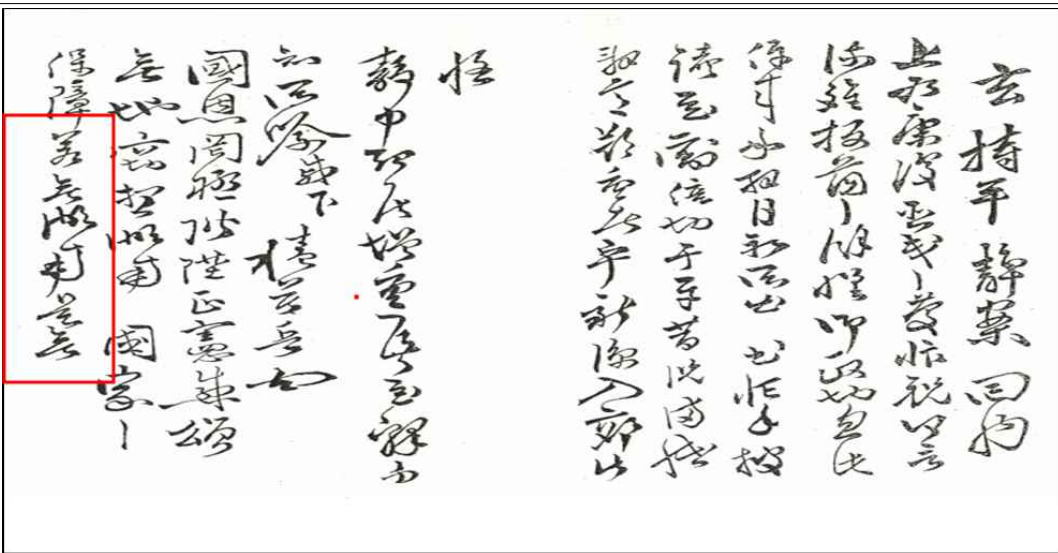
上 候 康 復 臣 民 之 慶 忭 祝 何 言 流 離 板 蕩 之 餘 懷 仰 政 切 忽 此 汙 來 丞 拜 月

初 所 出 書 忙 手 披 讀 慰 豁 信 切 于 平 昔 况 滿 紙 辭 意 鄭 重 者 乎 新 涼 入 郊

伏惟靜中起居增重區區慰釋不知仝喻戚下積苦兵間國恩罔極階陞
正憲感頌無地節想湖南國家之保障若無湖南是無國家是以作日進陣
于閑山島以爲此亂離之中不忘舊誼遠叙慰問兼愛各種之惠撫非陣中
之貴物深感無已未知何日掃除腥塵穩叙平昔遊縱之懷耶臨紙徒切悵
悵耳餘極撓胡草不備謝倒

癸巳 七月十六日 戚下(註) 李舜臣 拜手

下惠麻綿各三匹壯白各三束黃燭一雙大鰻二帖乾首魚民魚各十尾依
到而黃橘百枚有送無來或者卜重而然與地遠莫知故詳書以及耳



* 지평(持平) : 조선시대 사헌부의 정5품 관직.

(주: 戚下척하: 성이 다른 거레붙이에 대하여 자기를 낮추어 가르키는 말)

2017년도에 전남도청의 예산 1억 3천여만원을 지원받아, 영암군 군서면 구림리에
비석(碑石)을 세웠다. 전남 여수시 식물원에 ‘약무호남시무국가’ 비석과 이순신 장군이 현
덕승 지평에게 에게 보낸 서신을 설명한 표지석이 있다.



현재 전남 여수시 앞 바다에 떠 있는 거북선



서신 내용 표지석



44.希庵玄公墓碣銘并序

嘗聞士非博學之難能審明辨之爲難希庵玄公自少書無不讀至於討論經籍必欲推原是正俾學者知所依據矣公諱德升字達夫希庵其號星州人曾于麗朝兵部尚書諱德秀自是冠冕隆赫入 本朝諱得利廣陵朝文科屢典郡邑吉州李施愛之亂舉義殉身是爲公高祖曾祖諱賁宰松禾縣南溟曹公撰墓表祖諱允武司直考諱璫啓功郎著行誼妣安東金氏考曰彥邦公生於寧城西道宗村性至孝自幼已知事親之道先以順志愛本聰穎過人才器熟就見者嘖嘖家貧四壁徒立公與其弟竭誠供甘旨務悅親心餘力學問就正於梧陰月汀兩公卽公戚兄也盛稱才學其學也專攻性理書不以事物經心嘗曰道義須從成性而做明誠必賴讀書而知一日有僧持綱目一帙欲賣力不能辨留僧三晝夜盡閱領會與人言不錯一字又工筆法與韓石峯爲伯中戊子司馬榜仍居齊泮長策試諸生公對甚博雅聲名藉甚月沙李公睡翁姜公浦渚趙公諸名碩以道義推重浦渚公之姻黨尤愛重焉庚寅登文科隸正字攝堂后歷金吾郎出宰長興卽歸棄行李蕭然人服其清白親瘠嘗糞驗甘苦及喪廬于墓側哀音動人除制拜禮曹正郎北評事除直講司藝公當昏朝廢唐之論盛行因謝絕世路家居作戀君思一曲歌之日與多士講書於所居就陰亭若將終身及門之士日益衆考德問業莫不悅服丁卯二月二十九日考終于正寢距生甲子七月三日享年六十四葬于天安遠西三台里向癸之原有遺稿谿谷張公跋尾行于世配晉州鄭氏持平

思誠孫直長吉之女無育以姪子偃爲嗣偃生四男一女男興後次弘後有至行母病以指血進延壽徵後凝後有孝行興後有二男三女萬元萬亨女李秀寅鄭鍾勳李宣慶餘繁不記公好神采美鬚髯譚笑琅琅奉先克誠俎豆牲割親檢醴醢祭醴於枕邊因甕風病聾不以爲意芝村李公治郡也登眺公就陰亭釣臺慨然興感謀士民爲公將立祠享之未果至仁陵戊辰因多士齊籲許享六賢祠此可以概公矣學不志道乃冥行也道不法聖乃曲涂也公以審思明辨之學修其倫紀發諸孝悌止其定履至光海士人夫鮮不趨利染跡辱先喪身而公獨褰裳遠避獨爲完人噫其盛矣公之後孫武周鍾九請余曰先祖墓道尚闕顯刻蓋有待也願以不朽請余今寄生之踪不事鉛槧文莫吾猶人曷敢當是役辭而不能得遂序次如右系之銘曰

受之厚而獨孔仁守身爲大名愈振是維民之司表而可爲王庭輔弼之臣彼其之伎而我益伸而遂其初而返其真不知者以爲不知而知者斷斷乎元祐完人

嘉善大夫前史曹參判弘文館副提學同知 經筵義禁府春秋館事 奎章閣直提學 侍講院檢校輔德 驪興 閔丙承 撰
完山後人 前參奉 崔英憲 書

희암헌공묘갈명병서(希庵玄公墓碣銘并序) (요약)

(상략)公께서는 영성서도종촌(寧城西道宗村)(현(現) 천원군(天原郡) 풍세면(豐歲面) 용정리(龍井里) 도종(道宗))에서 출생하시어 그 성품이 지극한 효성이 있으시어 어려서부터 부모를 모시는 도리를 아시므로 먼저 부모의 뜻을 거스리지 않는 것을 근본으로 하였으며, 총명하심이 월등하시어 재능이 일찌기 발달되시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깜짝 놀랄 정도 이시나 빈한(貧寒)하시어 사시는 집이 네 벽만 서 있을 정도이니 가히 알지로다. (중략) 하루는 한 종이 강목(綱目)(책(冊)이름) 한 질(帙)을 가지고 와서 팔고자 하는데 공께서 이 책을 사시고 싶어도 책 값을 능히 치를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그 종을 삼주야(三晝夜)를 당신(當身)집에다 머무르게 하면서 그 책(冊) 한 질을 다 읽으셨다. 다음에 친우와 더불어 강론(講論)하시는데 한 자의 틀림이 없으시며, 또한 글씨 쓰는 필법에 있어서도 한석봉(韓石峯)과 더불어 백중을 가리기가 어려웠으니 필적도 가히 알 수 있으며 서기1486년무자(戊子)에 사마방(司馬榜)(보통고시(普通考試)를 치르는 장소(場所))에 나아가 계실 때에 반장(泮長)이 유생(儒生)들에게 시험을 보인 바 과연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시어 그 명성이 자자하여 월사이공(月沙李公)과 수옹강공(睡翁姜公)과 포저조공(浦渚趙公)(주) 여러 석사(碩士)들께서 공의 도의가 탁월하시어 추중(推重)하셨으니 포저(浦渚)는 공의 인당(姻黨)(처족(妻族))이라 더욱 애중(愛重)하셨다. 1590년(선조 23년)에 문과(文科)에 합격하시어 예정자(隸正字)와 섭당후(攝堂后)를 거쳐서 금오랑(金吾郎)을 역임한 후 장흥(長興, 지명)을 맡으셨다가 바로 사임하시고 귀향하시는데 그 행리(行李)(이삿짐)가 너무도 간단하였으므로 공께서 그 청백하신 것을 알게 되자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탄복하게 하였으며,

친환(親患)이 계실 때에 대변(大便)을 맛보시고 달고 쓴 것을(달면 살 기능이 없고 쓰면 살 수 있음) 시험하셨으니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며 급기야 그 상을 당하셨으므로 묘소옆에 여막(廬幕)을 짓고 애통하시는 소리가 사람들을 감복케 하였으며, 그 효성을 능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중략) 서기1627년(정묘(丁卯)에 사시던 집에서 천명(天命)에 의하여 잠드셨으니 가위(可謂) 오복중(五福中)에 하나인 고종명(考終命)을 하셨다. 서기 1564년 갑자(甲子)7월3일에 출생(出生)하시어 향년(享年)64세이시고, 장지(葬地)는 천안원 서삼태리(天安遠西三台里)(현(現) 천원군(天原郡) 풍세면(豐歲面) 삼태리(三台里) 원당(元塘))의 계좌(癸坐)의 산록(山麓)이다. (중략) 일점 혈육이 없어 조카 언(偃)을 사자(嗣子)로 양입(養入)하셨으며 언(偃)은 4남1녀(四男一女)를 두셨는데 일휘(一諱)는 흥준(興俊), 이휘(二諱)는 홍후(弘後), 3남(三男)의 휘(諱)는 징후(徵後)요, 4남(四男)의 휘(諱)는 응후(凝後)이다. (중략) 공께서는 체국(體局)과 풍채가 좋으시며 수염이 아름다우시고 웃음소리가 낭랑하셨다. 그리고 선조를 받드시는 정성이 극진하시어 제수(祭需)를 친히 장만하시고 제주(祭酒)를 손수 비저 머리맡에 놓으시어 외인들을 엄금(嚴禁)하셨다. 이 술독 바람으로 말미암아 이롱(耳聾)까지 있으셨으나 이것은 조금도 염려치 않으셨다. 그 때의 군수(郡守) 지촌이공(芝村李公)이 공이 계신 뉘시터에 나와 공의 유업(遺業)을 보고 감개한 나머지 사민(士民)들과 더불어 공의 사당을 세우려고 모사(謀事)하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인릉(仁陵)(순조(純祖)) 서기1808년무진(戊辰)에 많은 선비가 일제(一齊)히 육현사(六賢祠)를 세우자고 부르짖어 관(官)의 허가를 얻어 사당을 건립하고 향사(享祀)하니 이것은 가히 공의 절개로 인연한 것이었다. (중략) 공의 후손(後孫) 무주(武周)와 종구(鍾九)가 나에게 찾아와서 선조(先祖)의 묘도(墓道)에 지금(至今)까지 꺾(闕)하였던 묘갈명(墓碣銘)을 저술하여 줄 것을 청하므로 모든 것이 때가 있는 법이라 비문(碑文)을 초(草)하는 일도 역시 시기가 있어서 지금껏 지연된 것이며 내가 글이 남만 못한 것이 아니라 위대(偉大)하신 선생(先生)의 비문(碑文)을 감히 감당할 수가 없어 사양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드디어 위와 같이 서문(序文)을 하고 다음과 같이 계통(系統)을 찾아 명장(銘章)을 쓰노라.

가선대부전이조참판홍문관부제학동지(嘉善大夫前吏曹參判弘文館副提學同知)경연의금부춘추관사(經筵義禁府春秋館事)규장각직제학시강원검교보덕(奎章閣直提學侍講院檢校輔德)여흥(驪興)민병승(閔丙承)찬(撰). 완산후인(完山後人)전(前)참봉(參奉)최영헌(崔英憲)서(書)

* 참고문헌 : 『선조실록(宣祖實錄)』 『국조방목(國朝榜目)』 『국조인물고(國朝人物考)』

(주) (月沙李公: 이정구 李廷龜, 1564~1635, 좌의정, 중국어 능통, 문집으로 月沙集이 있다.

浦渚趙公: 조익 趙翼, 1597~1655, 성리학대가, 좌의정, 외조부(윤근수)가 현윤명(판관공파18세)의 외손이므로 희암공과는 인척관계이다. 수옹강옹(睡翁姜公)은 확인 불명.

진상 鎭商, 21세.

사헌부집의(司憲府執義), 북청부사(北靑府使, 정4품)

11세	12세	13세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20세	21세	22세	23세
본(貢) 감찰(監察) 송화현감(松禾縣監)	3 윤무(允武) 부사직 (副司直)	4 속(璫) 참봉 개공랑 啓功郎	1 덕승(德升) 북평사 (北評事)	인(僊) 통덕랑	흥준(興俊) 흥후(興後) ?	만원(萬元)	성규(聖圭)	희일希一 희증希曾 희익希益	재복載福 재성載成 재목載穆	진옥鎭玉 진곤鎭坤 진상鎭商 부사府使	영기永基 영익永益 만희재 晩晦齋	

윤무(允武)의 9세손, 덕승(德升)의 7세손이다. 1779년(정조3)에 태어났다. 1810년(순조10) 문과(文科)에 급제(及第)하셨다. 승문원정자(承文院正字), 성균관전적(成均館典籍),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 장령(掌令), 사간원정언(司諫院正言), 예조정랑(禮曹正郎), 양양도호부사(襄陽都護府使), 사간원헌납(司諫院獻納), 통례원좌통례(通禮院左通禮), 사헌부집의(司憲府執義), 북청부사(北靑府使, 정4품) 등을 지냈다고 족보에 기록되어 있다. 1834년(순조(純祖34년)에 돌아가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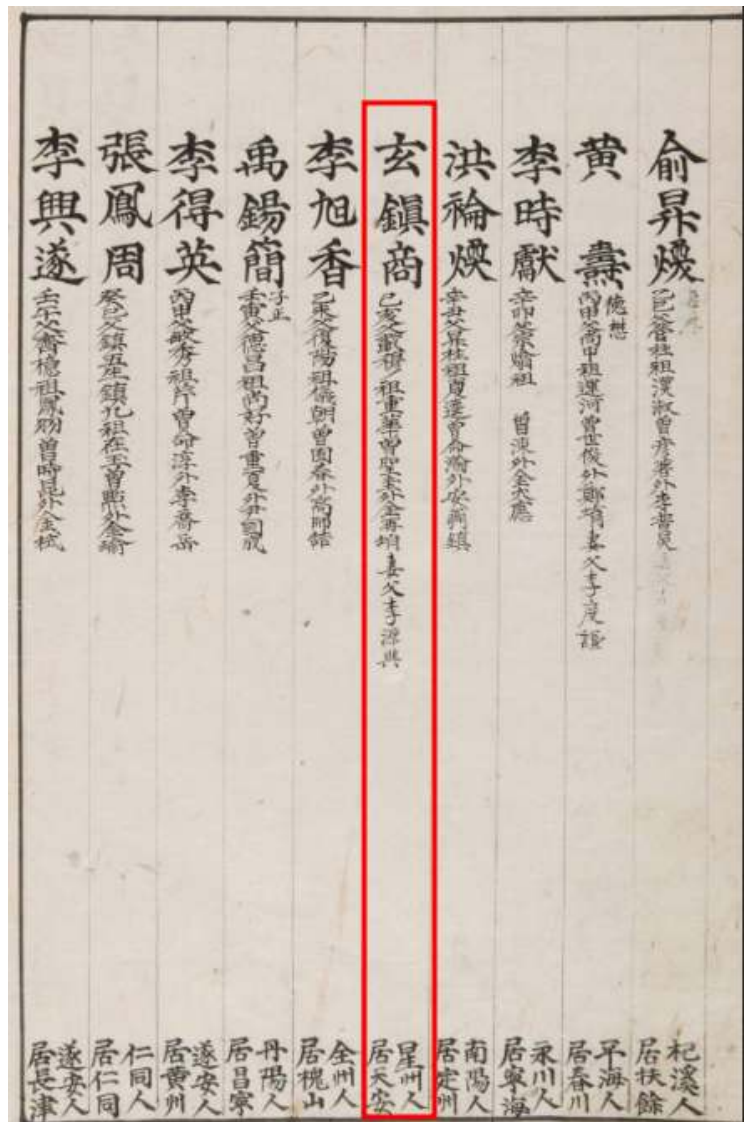
현진상의 식년시 문과 합격 기록

규장각한국학연구원국립중앙도서관
『국조방목(國朝榜目)』 卷之九(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貴11655])

[문과] 순조(純祖) 10년(1810) 경오(庚午) 식년시(式年試) 병과(丙科) 20위 (30/39)

생년: 기해(己亥) 1779년 (정조 3)
합격연령 : 32세
본인본관 : 성주(星州)
거주지: 천안(天安)

[부(父)]
성명 : 현재목(玄載穆)
[조부(祖父)]
성명 : 현중화(玄重華), 희익?
[증조부(曾祖父)]
성명 : 현성규(玄聖圭)



현진상의[음관]문음보(文蔭譜)기록

『문음보(文蔭譜)』 夏(규장각한국학연구원[古
929.4-M923])

[부(父)]

성명 : 현재목(玄載穆)

관직 : 첨지(僉知)

관직 : 음관(蔭官)

[조부 - 조부1 : 부의 부]

성명 : 현중화(玄重華), 희익?

[증조부 - 증조부1 : 조부1의 부]

성명 : 현성규(玄聖圭)

[4대 - 4대조1 : 증조부1의 부]

성명 : 현만원(玄萬元)

[5대 - 5대조1 : 4대조1의 부]

성명 : 현흥후(玄興後)

[6대 - 6대조1 : 5대조1의 부]

성명 : 현언(玄僊)

[7대 - 7대조1 : 6대조1의 부]

성명 : 현덕승(玄德升)

관직 : 지평(持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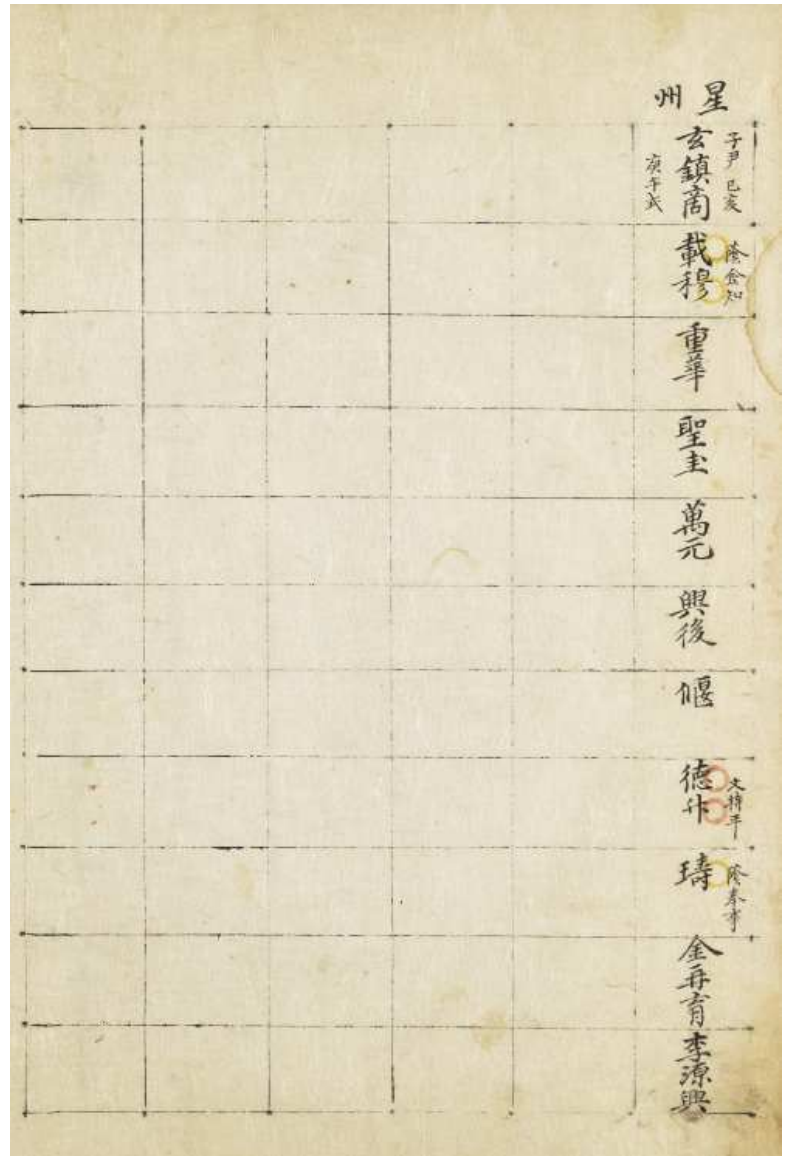
과거 : 문과(文科)

[8대 - 8대조1 : 7대조1의 부]

성명 : 현숙(玄璠)

관직 : 봉사(奉事)

관직 : 음관(蔭官)



일성록 순조 17년 정축(1817) 4월 12일(을유)

종부시 제조 이하에게 차등 있게 시상하였다.

○ 전교하기를,

“제조인 행 대호군 김희순(金義淳)은 가자(加資)하고, 《선원보략(璿源譜略)》의 발문 제술관(跋文製述官)인 대제학 남공철(南公轍)은 가자하되 자궁(資窮)이면 숙마(熟馬) 1필을 면급(面給)하고, 《국조어첩(國朝御牒)》의 서사관 겸 찬수감인교정관(書寫官兼纂修監印校正官)인 관돈녕부사 이언식(李彦植)에게는 숙마 1필을 사급(賜給)하고, 찬수감인(纂修監印)인 종부시 정 이화(李埈)는 가자하고, 주부(主簿)현진상(玄鎭商), 직장 조학렴(趙學濂), 이상은 승진시켜 서용하고, 별공작(別工作)인 선공감 가감역(繕工監假監役) 조중일(趙重日)은 6품으로 올리고, 《국조어첩》과 《선원보략》의 초고를 서사한 충의위(忠義衛) 김광속(金光洙), 추가로 차출한 충의위 이규민(李圭敏), 이상은 걸맞은 관직에 조용(調用)하고, 정서 사자관(正書寫字官) 박이신(朴履信)·유형기(劉亨基)에게는 각각 목(木) 2필을, 중초 사자관(中草寫字官) 조명석(趙命錫)·임행린(林行麟)에게는 각각 목 1필을, 창준(唱準), 화원(畫員), 일관(日官), 계사(計士) 등에게는 각각 포(布) 1필을, 나머지 포교(捕校), 녹사(錄事), 원역(員役), 공장(工匠), 하인 등에게는 쌀과 포를 등급을 나누어 시상하라.”하였다

일성록(日省錄) : 1752년(영조 28년)부터 1910년(융희 4년)까지의 동정과 국정의 제반사항을 기록한 일기체 연대기이다. 흔히 '왕의 일기'라고 표현한다

영익 永益, 22세, 호(號) 만회재(晩晦齋)

11세	12세	13세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20세	21세	22세	23세
분(貢) 감찰(監察) 송화현감(松禾縣監)	3 윤무(允武) 부사직 (副司直)	4 숙(璫) 참봉 계공랑 啓功郎	1 덕승(德升) 북평사 (北評事)	인(僊) 통덕랑	흥준(興俊)	만원(萬元)	성규(聖圭)	희일希一 희증希曾	재복載福 재성載成	진옥鎮玉 진곤鎮坤	영기永基	
								희익希益	재목載穆	진상鎮商 부사府使	영익永益 만회재 晩晦齋	

윤무(允武)의 10세손, 덕승(德升)의 8세손, 진상(鎭商)의 장남이다. 1831년(순조(純祖)31년)에 태어나셨고 1884년에 돌아가셨다. 호(號)는 만회재(晩晦齋)이다. 유고문집(遺稿文集)이 십여 권(十餘卷)이 전(傳)한다. 족보 기록에 ‘天姿純粹 德性自若 早廢舉業 沈潛理學 論性命芝說 則祖述孔孟 推師程朱 從石潭之理氣 法華陽之尊攘 論人物之性 則遵寒水南翁 而若親炙馬其平居 終日政冠 而不越乎儀禮 著禮疑私考 華東歷代 理氣摠論 私慾箴 等 篇三十餘卷 事載五倫行實錄’ 이라 기록되어있다. 풀이해보면 ‘타고난 성품이 순수하고 덕성이 태연해 일찍 과거보는 일을 버리고 성리학에 침잠했다. 성명의 이론을 논하고는 곧 저술했다. 공자와 맹자를 스승으로 추종하고 정자와 주자를 따랐다. 이이의 이기법을 좇았고 송시열의 명나라 숭배와 청나라 배척론을 따랐다. 인물의 본성론은 한수재(寒水齋, 권상하의 호)를 따랐고 직접 지도받은 듯 했다. 평소에도 종일 관을 바르게하고 예의를 어기지 않았다. ‘예의사고’, ‘화동역대’, ‘이기총론’, ‘사육잡’ 등 30여 권을 편찬했다. 이 내용이 오륜행실록에 실려있다.’

희철 希喆, 19세, 효자

11세	12세	13세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20세	21세	22세	23세
분(貢) 감찰(監察) 송화현감(松禾縣監)	3 윤무(允武) 부사직 (副司直)	4 숙(璫) 참봉 계공랑 啓功郎	2 덕민(德敏) 장사랑 (將仕郎)	계(係)	상구(尙龜) 생원(生員)	이원(履元)	진규(震圭) 系子	희철(希喆) 효자	재홍載弘	진구鎮九	영오永五	익동翼東 종사랑 從仕郎
					명구 命(明)龜							

윤무(允武)의 7세손이다. 1760년(영조英祖36년)에 태어났고 1814년에 돌아가셨다. 효행(孝行)이 충천(冲天)하시어 지방유림(地方儒林)들이 도백(道伯)에게 천거(薦舉)한 바 있다.

효자현공묘표(孝子玄公墓表) (요약)

효자(孝子)의 성(姓)은 현씨(玄氏)요 휘(諱)는 희철(希喆)이시니 묘(墓)는 천원군(天原郡) 풍세면(豐歲面) 용정리(龍井里) 광정산경좌원(廣井山庚坐原)에 있으시다. 公은 어려서부터

효행(孝行)이 지극(至極)하신 까닭에 서거(逝去)하신지 2백여 년(二百餘年)이 지난 오늘에도 공의 묘소(墓所)앞을 지나는 사람마다 공경(恭敬)하지 않는 사람이 없으니 그 효행(孝行)의 실례(實例)로 어버이의 병환(病患)이 있을 때에 꿩(雉)고기를 잡수시고자 하시니 공께서는 많이 쌓인 눈(눈)을 무릅쓰고 산야(山野)로 다니시며 지성(至誠)껏 구(求)하시니 꿩이 스스로 부엌으로 날아 들어와 공양(供養)하게 되어 병환(病患)이 낫게 되고, 또 찌는듯한 여름에 홍시(紅柿)를 찾으시니 공께서는 할 수 없이 천지(天地)신명께 지성(至誠)껏 축원(祝願)하시니 홀연(忽然)히 붉은 감(柿)이 땅에 떨어져 있어 이것을 봉양(奉養)하시니 보는 사람들은 공의 효성(孝誠)에 감동하였으며 기후(其後)에 또 병환(病患)이 위중하시어 공은 손가락의 피를 흘려 입에 넣으심으로 병환(病患)이 차차 나으시어 몇 해 동안을 더 사시게 하여 향리(鄉里) 사람들은 이 효성(孝誠)에 감복(感服)하여 칭송(稱頌)이 자자(藉藉)하였으며 도백(道伯)(지금의 도지사)에게 이 사실(事實)을 진정(陳情)하고 군지(郡誌)에 기록(記錄)하니 공의 이 아름다운 행적(行蹟)은 없어지지 않으리라. (후략)

융희경술후(隆熙庚戌後) 서기1949년(기축(己丑))양월(陽月)(九月)상한(上澣)(상순(上旬))에 가선대부시강원(嘉善大夫侍講院) 겸 보덕원임(兼輔德原任) 규장각직학사(奎章閣直學士) 선성(宣城) 이정렬(李貞烈)은 삼가 쓴다.

51. 孝子玄公墓表

孝子姓玄氏諱希喆墓于宜成西道宗里廣井山庚坐原自幼以孝名至今二百餘年過者式焉孝子有至性親病欲喫雉湯孝子冒雪誠求有雉自來入廚供進之而効災夏又欲食柿紅孝子又露禱忽有柿紅墮地人謂孝感病幾危孝子以指血注口得延數年之命鄉里歎誦至于道薦載郡誌嗚呼其不朽矣孝子字重明延州人忠臣全州公后曰震圭曰履元

曰尙龜生員曾祖禰三世文化柳沉外祖也孝子以 純祖甲戌十二月二十九日卒壽五十五配居昌慎無若女壬午己未生卒墓附曰載東載弘載憲載承孫曾蕃不盡記噫父子三綱之首天衷民彝之攸在自世教衰人鮮能盡衷彝允矣而況今日乎況今世乎痛矣悲夫今於後孫之請不辭而書之如此俾表其塋以戒後人云

隆熙庚戌後己丑陽月上澣

嘉善大夫侍講院兼輔德原任 奎章閣直學士 宣城 李貞烈 述

광래 光來, 24세, 1949년생, 사단법인 바르게살기운동 충남협의회장, 국가유공자, 연속공문중회장, 대종회 이사

광강 光康, 24세, 1941년생, 대종회 부회장

면주 冕周, 25세, 1953년생, 국제대 교수, 대종회 부회장

창호 唱鎬, 25세, 1950년생, 성일기계공업(주) 회장, 대종회 부회장

창순 彰淳, 27세, 1943년생, 우리산업(주) 회장, 대종회 지도위원

태섭 兌涉, 27세, 1943년생, 서일직물(주) 회장, 대종회 부회장

광휘 光徽, 24세, 1944년생, 새마을금고 이사장, 대종회 이사

돈석 敦石, 24세, 자 광돈(光敦), 1942년생, 충남서부종친회장, 대종회 이사

광모 光模, 24세, 1942년생, 아산종친회장, 대종회 이사

대규 大奎, 25세, 1945년생, 대종회 이사

만규 萬奎, 25세, 1946년생, 대종회 이사

용재 用在, 25세, 1940년생, 씨엔지류(주) 대표, 대종회 이사

창주 昌周, 25세, 1939년생, 대종회 이사

철주 哲周, 25세, 1947년생, 새마을지도자, 대종회 이사

덕주 德周, 25세, 1951년생, 아산종친회장, 대종회 이사

정규 丁奎, 25세, 1967년생, 부천국제무역 대표, 대종회 이사

왕주 王周, 25세, 1975년생, 대종회 이사

종범 鍾範, 26세, 1940년생, 부여군의회 의장, 충남서부종친회장, 대종회 이사

재민 在珉, 26세, 1961년생, 대종회 이사

종묵 鍾默, 26세, 1963년생, 대종회 이사

정호 貞浩, 27세, 자 우순(迂淳), 1961년생, 연기공주종친회장, 대종회 이사

종태 鍾泰, 27세, 1955년생, 대종회 이사

남수 南洙, 27세, 1948년생, 대종회 이사

학순 鶴淳, 27세, 1942년생, 천안종친회장, 대종회 이사

상복, 28세, 1940년생, 예산관봉종친회장, 대종회 이사

동구 同九, 28세, 1963년생, 대종회 이사

동옥 東玉, 28세, 1944년생, 양주종친회장, 대종회 이사

상길 相吉, 28세, 1947년생, 예산관봉종친회장, 대종회 이사

상필 相必, 28세, 1967년생, 대한항공 전산센터, 대종회 이사

종돈 鍾敦, 28세, 1950년생, 대종회 이사

건주 建柱, 28세, 1943년생, 대종회 이사

선식 先植, 28세, 1957년생, 대종회 이사

동희 東熙, 29세, 1951년생, 대종회 이사

화진 和鎭, 29세, 1966년생, 대종회 이사

3-1. 영암사직공계(靈巖司直公系)

윤명 允明, 12세, 분(賁)의 차남, 사직공계司直公系 중시조 선락장군 부사직(副司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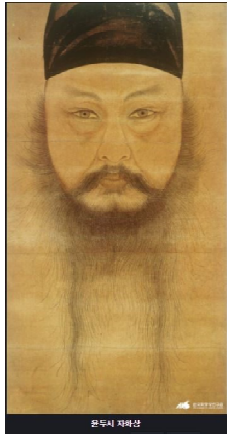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7세	8세	9세	10세	11세	12세
玄覃胤현담윤 大將軍門下侍郎平章事 문하시랑평장사 延山君연산군 諡 景憲公경헌공 고려 의종, 명종대	德秀덕수 兵部尙書 병부상서 星山府院君 성산부원군 고려명종대	元烈원렬 太僕尹 태복윤 고려충렬 왕대	敬興경여 典客令 전객령	嶽金 左贊成 좌찬성	1 致龍지룡 都僉議寺事 도첨의사사	1 玉亮옥량 禮曹判書 예조판서 고려 공민왕 조선 태조대	1 用武용무 司宰監副正 사재감부정	珪圭 古阜郡守 고부군수 吏曹參議 이조참의 조선 세종 대	3 得利득리 全州判官 전주판관	분賁 감찰監察 송화현감 松禾縣監	1 윤문(允文) 습독(習讀) 2 윤명(允明) 부사직 副司直 1479~ 3 윤무(允武) 부사직 (副司直)

득리(得利)의 손자, 분(賁)의 차남이다. 1479년에 태어나셨다. 선락장군 부사직(副司直, 종4품 당하관직) 벼슬을 한 것으로 족보에 기록되어있다. 아들 구(球, 현감縣監)를 두었다. 딸은 충청도 도사(忠淸道都事), 사복시 부정과 군자감 정, 삼척 부사(三陟府使)를 역임한 해평(海平) 윤변(尹忭)의 후부인(後婦人)이다. 영의정 윤두수(斗壽), 좌찬성 근수(根壽) 두 아들을 낳았다. 손자는 덕형(德亨, 종사랑從仕郎, 정9품)이며 증손자는 건(健, 주부(主簿, 종6품)이다.

* 윤두수 : 조선의 문신. 호는 오음(梧陰). 이항(李滉)·이중호(李仲虎)의 문인. 1558년 식년문과(式年文科)에 을과(乙科)로 급제하였다. 1577년 사은사(謝恩使)로 명나라에 다녀왔고, 1578년 도승지(都承旨)로 있다가 이종동생 이수(李銖)의 옥사(獄事)에 연루되어 파직되었다. 1579년 연안부사(延安府使)로 서용되어 선정을 베풀어 표리(表裏)를 하사받았다. 1590년 종계변무(宗系辨誣)의 공으로 광국공신(光國功臣) 2등이 되어 해원부원군(海原府院君)에 봉해졌다.

1591년 건저문제(建儲問題, 세자책봉건의 문제)로 정철(鄭澈)이 화를 입자 이에 연루되어 회령(會寧)에 유배. 다시 홍원(洪原)·연안(延安)으로 이배(移配)되었다가 풀려났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왕을 호종(扈從)하여 어영대장(御營大將)·우의정(右議政)을 거쳐 좌의정(左議政)에 올랐다. 평양(平壤)이 위태로와 지자 의주(義州)로 피난갈 것을 주장하여 실현시켰고, 요동(遼東)으로 피난하려는 계획을 반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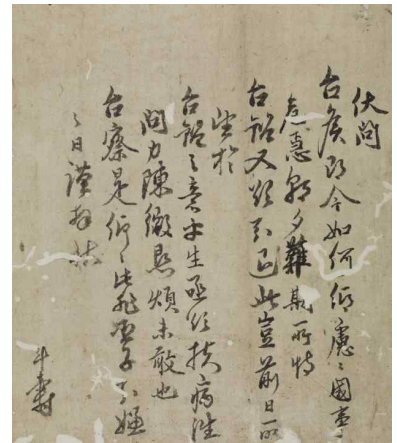
1594년 세자를 시종하여 삼도체찰사(三道體察使)가 되었고, 1595년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로 왕비를 해주(海州)로 시종하였다. 1599년 영의정(領議政)이 되었으나 곧 사직하고 남파(南坡)로 돌아갔다. 1604년 호성공신(扈聖功臣) 2등에 추록(追錄)되었다. 저서로 《오음유고 梧陰遺稿》, 《기자지 箕子誌》가 있다. 시호는 문정(文靖)이다.



윤두서 자화상



윤두서 초상



윤두서 글씨

* 윤근수 : 영의정 윤두수(尹斗壽)의 동생이다. 김덕수(金德秀)·이항(李滉)의 문인이다. 1558년(명종 13) 별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해 승문원권지부정자에 임용된 뒤, 승정원주서·춘추관기사관·연천군수 등을 거쳐 1562년 홍문관부수찬이 되었다. 이 때 기묘사화로 화를 당한 조광조(趙光祖)의 신원(伸冤)을 청했다가 과천현감으로 체직되었다.

이듬 해 8월 행신(倖臣) 이량(李樑)이 아들 이정빈(李廷賓)을 이조좌랑에 천거하자 형 윤두수, 박소립(朴素立), 기대승(奇大升) 등이 반대하였다. 이로 인해 이량의 사주를 받은 대사헌 이감(李戡)의 탄핵을 받아 파직되었다.

그 해 9월 영의정 윤원형(尹元衡), 우의정 심통원(沈通源)의 계문(啓文: 왕에게 일정한 양식을 갖추어 올리는 글)으로 죄가 없음이 밝혀져 승문원 검교에 서용되었으나, 형 윤두수가 이조전랑이어서 취임하지 않았다.

1565년 홍문관부교리로 다시 기용된 뒤 이조좌랑·정랑(正郎) 등을 차례로 지내고, 이듬해 의정부사인·지제교 겸 교서관교리(知製敎兼校書館校理)로 『명종실록』 편찬에 참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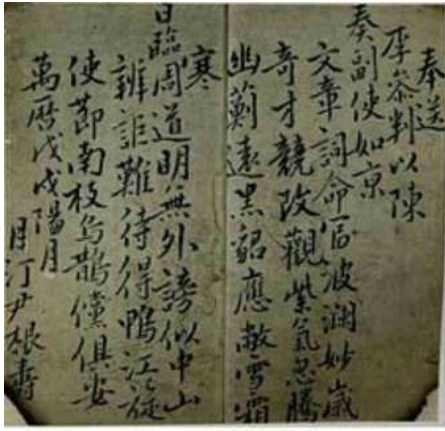
이후 검상·사인·장령·집의·사에·부응교 등을 역임했으며, 1572년(선조 5) 동부승지를 거쳐 대사성에 승진하였다. 이듬해 주청부사(奏請副使)로 명나라에 가서 종계변무(宗系辨誣: 명나라 『태조실록』과 『대명회전』에 이성계의 가계가 고려의 권신 이인임(李仁任)의 후손으로 잘못 기록된 것을 시정하도록 요청한 일)를 하였다.

그 뒤 경상도감사·부제학·개경유수·공조참판 등을 거쳐 1589년 성절사(聖節使)로 명나라에 파견되었으며, 귀국할 때 『대명회전전서(大明會典全書)』를 가져왔다. 이듬해 종계변무의 공으로 광국공신(光國功臣) 1등에 해평부원군(海平府院君)으로 봉해졌다.

1591년 우찬성으로 정철(鄭澈)이 건저(建儲: 세자 책봉) 문제로 화를 입자, 윤근수가 정철에게 당부했다는 대간의 탄핵으로 형 윤두수와 함께 삭탈관직 되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예조판서로 다시 기용되었으며, 문안사(問安使)·원접사(遠接使)·주청사 등으로 여러 차례 명나라에 파견되었고, 국난 극복에 노력하였다.

그 뒤 판중추부사를 거쳐 좌찬성으로 판의금부사를 겸했고, 1604년 호성공신(扈聖功臣) 2등에 봉해졌다. 1606년 선조가 죽자 왕의 묘호를 조(祖)로 할 것을 주장해 실현시켰다.

청백간손(淸白簡遜)하고 문장이 고아하며 필법이 주경(遯勁: 그림이나 글씨 등에서 붓의 힘이 굳셈)해 예원(藝苑)의 종장(宗匠)이라 일컬어졌다 한다. 저서로는 『사서토석(四書吐釋)』 등이 있다. 시호는 문정(文貞)이다.



윤근수 글씨



윤근수 사당



윤근수 사당 현판

3득리得利 ->분賁 -> 2윤명(允明) 계보(系譜)

11세	12세	13세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20세	21세	22세	23세
분(賁) 감찰(監察) 송 화 현 감 (松禾縣監)	1 윤문(允文) 습독(習讀)	침(琛)	1 덕원(德元) 군수(郡守) 2 덕형(德亨) 出系구(球)									
		인(璘)	덕일(德一)	간(侃) 동 지 중 주 부사 同知 中樞 府事	慶後경후 1657진사합격	萬極만극	1 尙雲 상운	1 守善 수선	1 載弼 재필	2 鎭樞 진주	2 永範 영범	1 東挺 동정
							5 漢雲한운					
		효 복 (孝福) 첨 정 (僉正) 원종공신 原從功臣										
	12세	13세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20세	21세	22세	23세
	2 윤명(允明) 부사직 副司直 1420~	구(球) 태인현감 泰仁縣監 1509 ~ 1580	덕형(德亨) 장사랑 將仕郎 계자(系子) 生父 琛침	건(健) 주부(主簿) 계자(系子) 生父 덕옥	1 榮後영후 출계 척(倜)							
					2 유후(裕後) 참봉							
					3 진후(振後)	징(徵) 광릉참봉 (光陵參奉)	약호(若吳) 系子 삼벽당	1 수초 守初	명직 (命直) 계자(系子)			
		사위 윤 변	윤두수 윤근수			미(微) 출계 영후榮後		2 수중(守中) 不能富 불능와	명직 (命直) 출계 수초			



十二世 司直公 諱 允明과 配宜人 蘭浦朴氏의 墓(合葬)의 墓碑
所在地 : 전라남도 영암군 학산면 용산리(내동)



十二世 司直公 諱 允明의 齋室
所在地 : 전라남도 영암군 학산면 용산리(내동)

구 球, 13세, 泰仁縣監(태인 현감)

11세	12세	13세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20세	21세	22세	23세
분(賁) 감찰(監察) 송화현감(松禾縣監) (~1495)	2 윤명(允明) 사직(司直) (1479~	구(球) 태인현감 泰仁縣監 1509 ~ 1580	덕형(德亨) 장사랑將仕郎 계자(系子) 生父 琛집	건(健) 주부(主簿) 계자(系子) 生父 덕육 (1572~1656)	1 榮後영후 출계 척(倬)							
					2 유후(裕後) 참봉							
					3 진후(振後)	징(徵) 광릉참봉 (光陵參奉)	약호(若昊) 系子 삼벽당	1 수초守初	명직(命直) 계자(系子)			
								2 수중(守中) 不能窩불능와	명직(命直) 출계 수초			
						미(微) 출계영후榮後						
		사위 윤변 (윤두수의 부친)	윤두수 윤근수									

윤명의 아들이다. 通訓大夫 泰仁 縣監(통훈대부 태인 현감)을 지냈으며, 文章(문장)과 筆法(필법)이 뛰어났다. 石川(석천) 林億齡(임억령, 1496 ~ 1568년, 금산군수, 강원도 관찰사, 담양부사)과 月堂 林九齡(월당 임구령, 1501~ 1562, 나주목사, 남원부사, 선산군)의 아들 龜岩 林浩(구암 임호, 1522 ~ 1592, 직장) 등이 차운(次韻)으로 美之(미지), 즉 현구(玄球)의 시 운률을 따라서 아름답게 시를 지었다고 했다. 돌아가신 후 龜岩 林浩(구암 임호)가 영전에 올린 詩文(시문)을 지었는데 구림에 있는 도선국사 바위에 새겨져 남아있다.

龜岩 林浩(구암 임호, 1522~1592, 직장) : 월당 임구령의 장남으로 태어나, 1540년 진남제를 축조하여 간척지를 조성하였으며, 회사정을 짓고 구림 동계를 중수하여 구림 사회의 기틀을 만드는 데 큰 공헌을 했다.

挽 玄 泰仁 名 球(만 현 태인 명 구)
咫尺隣居分最深 : 지척인거분최심 相從日日共論心 : 상종일일공론심
如今回首南松下 : 여금회수남송하 春鳥枝間竟日吟 : 춘조지간경일음
夫婦同居將八十 : 부부동거장팔십 人間最是見之難 : 인간최시견지란
一時如約重泉去 : 일시여약중천거 終古鳩林難又難 : 종고구림난우란



태인 현감 현 구의 영전에 詩文(시문)을 올리다

지척의 이웃에 살며 가장 깊게 정을 나누면서, 날마다 상종하며 한 가지 마음으로 의논했네.
이제 머리를 남쪽 솔 밑으로 돌린 것 같은데, 봄 새는 나뭇가지 사이에서 종일토록 지저귀네.
부부가 함께 살아 온지 장차 팔십년이 되니, 인간에서 가장 보기 어려운 일이었네.
한 때에 약속한 것 같이 거둬 돌아가니, 구름에서 예를 마치기 어렵고 또 어려웠네



13世 球(구) 묘소



14世 德亨(덕형) 묘소

덕형 德亨, 14세.

생부 침(琛), 자 가중(嘉仲), 1549년 명종(明宗)4년 생. 9품 종사랑(九品 從仕郎), 1573년 선조(宣祖)6년에 25세로 돌아가셨다.

건 健, 15세, 監役公(감역공, 從9品), 軍資監 主簿(군자감주부, 從5品)

윤명의 증손자이다. 1572년 선조(宣祖)5년 생, 생부 덕욱(德郁), 자 여강(汝強), 호는 在澗(재간재). 조선시대에 監役公(감역공), 軍資監 主簿(군자감 주부)를 지냈다.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에게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하기도 했다. 이순신이 부친상을 당하였을 때 하인을 시켜 조의의 서신과 물품을 보낸 바 있으며, 죽림정에 이순신 장군이 현건에게 보낸 4통의 편지(1585년~1598년)와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 正5品) 현덕승(1564~1627, 전주판관 공파 14세)에 보낸 3통의 편지가 보관되어있다. 임진왜란 때에 소실된 구림대동계를 박이충, 조행립 등과 함께 복구하여 주민의 단결과 상부상조 및 교화에 큰 도움을 주었으며, 계장(契長)으로 추대되었다. 족보에 “유행의묘당천우조배군자주부축실내동편왈재간이천석자오(有行誼廟堂薦于朝拜軍資主簿築室內洞扁曰在澗以泉石自娛)” 기록되어 있다. 풀이하면, “품행과 도의가 있어 조정에서 군자감 주부에 천거했다. 내동에 집을 지으면서 편액에 ‘산수의 경치가 계곡에 있으니 스스로 즐기노라’라고 기록되어 있다.

* 監役 公(감역 공) : 조선 시대 국가의 토목 공사나 서적 간행 등 특별한 사업을 감독, 관리하기 위해 임시로 임명된 관원.

* 軍資監 主簿(군자감 주부) : 조선시대에 군수품의 출납을 맡아보던 관아에 둔 6품에서 8품까지의 벼슬, 사헌부, 춘추관, 전교 시 등에 두었다.

1619년(광해11년, 萬曆만력 47년 7월 10일)에 올린 上疏文(상소문)이 전한다.



우측 하단이 훼손되어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대강의 내용이다

道內靈巖居幼學玄健(도내영암거유학헌건)

右謹言所志矣段矣身亦同姓七寸叔諱玄德亨繼...更兩家父母及門 長同議着名捧俵音依法呈禮.....家下來養母前侍側居生爲白有如 平大槩矣養父段置亦...生前矣養父身故爲白乎等乙以養祖自己田 民乙一孫子玄...白遣去庚辰年分身故後養承重孫玄健玄應期年未弱 冠末.....主泰仁縣監父司直諱玄允明外孫故領議政尹海原君海平君 兄弟間.....內.....死則元財主已物還本孫處置事是白乎矣不肖外孫 ...大宗...外孫以傳繼不得事是白乎...以本宗..立後代代繼祀事乙矣 養母愼氏前百般勸諭矣身乙立後來此爲白有如平養母愼氏亦今年 七十五歲..連遭慘惑之喪宿病喪心人事不察爲白去乙矣身下來後養 妹夫南柁林坦亦言說白乎矣元財主...自己田民乙矣三同生中自筆 分衿成文計與有如乎亂離中關失爲置如此緣由告官後更...去乙矣 身段養家事知不得此分不喻既爲此家承後子以母子之義同生之分 乙重大乙絃良養同生之言如承母...之任呼付唯命至於祖上元定傳 來文記付奉祀條奴婢田畝并以攻破後壯弱瘠平均執籌除...分執爲 良結其矣所願導良矣亦一從養同生之言筆執成文各執使用已過十 餘年是白乎矣此後小無相爭之物又無違拂之心和平一家萬無乖隔 之理是白如乎前年正月二十六日夜間養妹使喚婢應同生弟矣使喚 婢愛辰乙百般教誘同謀祀堂門破鑰爲白退元財主泰仁縣監神主兩 位.....破棄路....矣身遐適音慶常監司六寸親以其年十日月分權奴 事往于嶺南遲留.....仍往京中時本家遭變.....之奔告之仍.....來 的知上頂人等所爲事而至今含慈包容不發者門丈尹海昌大監四兄 弟及玄德升教是同議則皆云汝若發此事則...之變不如含憤善處云 云故也今者同南柁林坦南燦林莊亦其婢應介愛辰等恕其破神主之 事早晚摘發成憎日甚矣家中良中屢番衝火間不喻至於拔劍張弓陰害設計爲去乎死亡之患迫在朝夕尤極痛冤爲...下上頂人等乙不意 掩捕堅囚法典致罪一以解先祖九泉之冤魂一以懲綱常之大變又解 罪是在矣身之情行下向教是事 巡察使主 處分

도내 영암에 사는 유학 **현건**은 위와 같이 삼가 소회의 일단을 말씀합니다... 이 몸은 일가 간 칠촌
 숙 되시는 **현덕형**에 이어서...다시 양가 부모 및 문장이 동의하신바 말씀을 받들어 이 몸을 부치고, 법에
 의하여 예를 드렸으며...집안으로 내려 왔으며, 양 모친을 곁에서 모시고, 살아왔습니다. 대개 양부모께서
 도 생전에...양부가 위했어야 할 것을 身故(신고)가 되니 양 할아버지께서 자기 田民(전민)의 한 손자
 현...보내고 지나간 경진년(서기 1580년 선조 14년)에 分身(분신) 한 후로 양승 증손 현 건과 현 응이 약
 관이 못되어, 태인 현감의 아버지 사직 공 휘 윤명의 외손인 고로 영의정 해원군 윤두수와 해평군 윤근
 수 형제간...죽었은 즉...불초 외손...대종...외손께서 이어서 부득이 시키겠습니까?...본 종으로서...입후하
 여 대대로 이어서 제사를...양모 신씨 전에 백반으로 권유해서, 이 몸을 입후케 하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양모 신씨 또한 금년에 75세나...연이어 참혹한 喪(상)을 만났으며, 묵은 병으로 마음이 상하셔서 인사 불
 찰 하시므로 이 몸이 내려온 후로 양매부이신 남타 임탄 또한 말할 것 같으면 원 재주...자기 전민인(전
 지와 노비) 세 동생 중 유산을 나누어 갖기로, 한몫을 자필로 글을 만들기로 계획한 것 같습니다마는, 난
 리 중에 잃어버려 이 같은 연유를 관가에 고한 후 다시....한 것입니다. 이 몸도 양가의 일을 알고 있었으
 나 부득이....있었으므로 동생들에게도 나누어 준 것이 중히 해야 하거늘, 양 동생의 말도 어머니 말씀에
 이어...불러 맡긴 유명은, 심지어 조상 때부터 정해져 전해 왔으며...노비와 전답을 아울러 파산한 뒤로,
 장자와 약자 간에 평균적으로....제하고는...나누어 가졌습니다...인도를 잘 해주십사 소원합니다. 또한 종
 양 동생의 말로는 붓을 잡고, 글을 만들어 각 집사들이 써 온지 이미 10년이 지났다 하니 이를 시켰겠습
 니까? 전년 정월 26일 야간에도 양매씨가...없으며, 경상감사가 육촌 친으로, 그해 10월에...의 일로 영남
 으로 가 더디도록 머물고 서울로 갔을때 본가에서 변을 만나...않았으며 문장 윤해창 대감 4형제 및 현
 덕승에게만 이를 가르쳐 동의 하였습니다. 이르기를 내가 만일...못했을 것이라며...운운한 것만 같지 못
 할 것이니, 이제 남타 임탄 남찬 임강과 또한 그 종 응개 애진 등이...날로...집니다...내가 행해야 할 바
 를 하교해 주시기 바라면서 순찰사 처분을 바랍니다.

만력 사십 칠년(서기 1619년 광해조 12년 기미) 칠월 십일. 순찰사 수결하고, 의론하여 보냄.

“윤 음” 칠월 십일. 장사의 근본 내용을 살펴 보고 날 일을 행하였도다.

유후 裕後, 16세, 참봉

윤명의 현손(玄孫)이다. 1599년(선조 32년)에 태어나셨다. 1624년(인조 2년) 증광시(增廣試) 생원에 합격한 내용이 사마방목 기록에 있다. 참봉을 지내셨으며, 영암 학산리 내동에 취음정(就陰亭)을 짓고 자연에서 소요하며 지내셨다고 족보는 기록하고 있다.

현유후의 생원 시험 합격 기록

[생원] 인조(仁祖) 2년(1624) 갑자(甲子) 증광시(增廣試) [생원] 3등(三等) 15위(45/100)

· 자(字) : 차경(次卿)
· 생년 : 기해(己亥) 1599년 (선조 32)
· 합격연령 : 26세
· 본인본관 : 성주(星州)
· 거주지 : 영암(靈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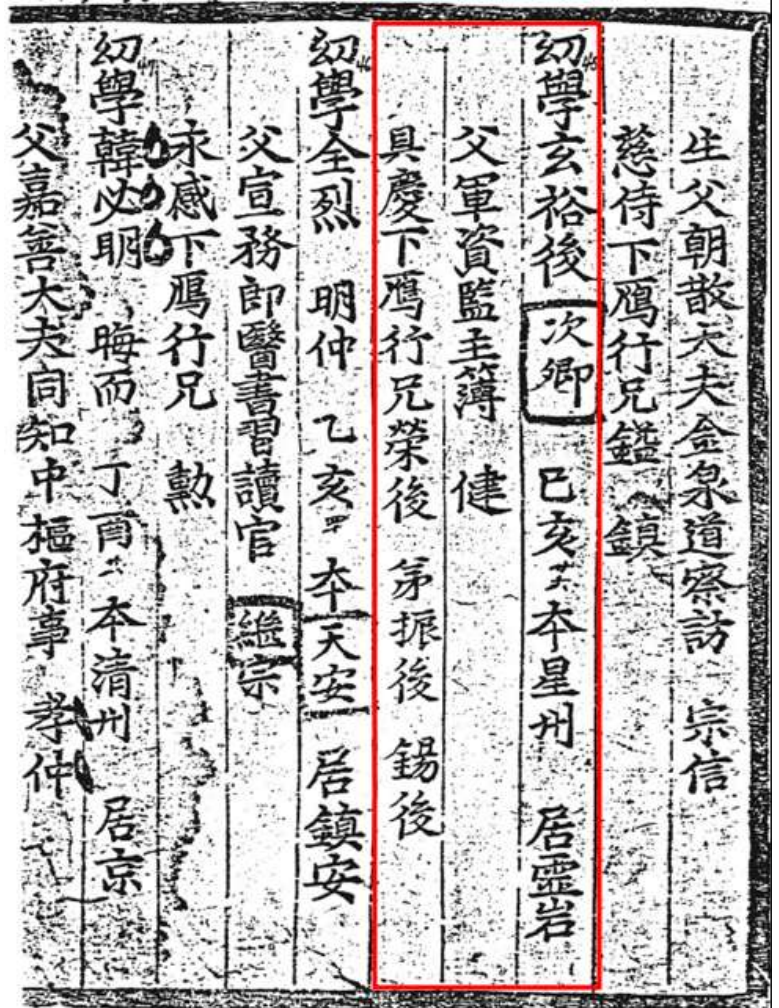
[부(父)]

· 성명 : 현건(玄健)
· 관직 : 군자감주부(軍資監主簿)

[안향(鴈行)]

· 형(兄) : 현영후(玄榮後)
· 제(弟) : 현진후(玄振後)
· 제(弟) : 현석후(玄錫後)

천계갑자증광사마방목(天啓甲子增廣司馬榜目)



15世孫 健(건) 묘소



16世 裕後(유후) 묘소

징 徵, 17세 광릉참봉(光陵叅奉)

11세	12세	13세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20세	21세	22세	23세
본(賁) 감찰(監察) 송화현감(松禾縣監) (~1495)	2 윤명(允明) 사직(司直) (1479~)	구(球) 태인현감 泰仁縣監 (1509~1580)	덕형(德亨) 장사랑將仕郎 계자(系子) 生父 琛침	건(健) 주부(主簿) 계자(系子) 生父 덕옥 (1572~1656)	1 榮後영후 출계 척(倜)							
					2 유후(裕後) 참봉							
					3 진후(振後) (1609~1635)	징(徵) 광릉참봉 (光陵叅奉) (1629~1702)	약호(若昊) 系子 삼벽당	1 수초(守初)	명직(命直) 계자(系子)			
						미(微) 출계영후榮後		2 수중(守中) 不能窩불능와	명직(命直) 출계 수초			
		사위 윤변 (윤두수의 부친)	윤두수 윤근수									

전주판관공 득리의 7세손이며, 사직공 윤명의 5세손, 건(健, 15세)의 손자다. 1629년(인조 7년)에 태어나셨다. 자(字)는 사림(舍林) 또는 사휴(士休), 호는 竹林(죽림)이다. 1660년(현종 원년)에 진사시험(進士試驗)에 합격(合格)하셨다. 1680년(숙종 6년) 봄에 광릉참봉(光陵叅奉)으로 임명(任命)되어 부임(赴任)하시자 얼마 후(後) 상(喪)을 당(當)하게 되어 벼슬을 사퇴(謝退)하고 낙향했다.

자(字) : 본이름 외에 부르는 이름. 예전에, 이름을 소중히 여겨 함부로 부르지 않았던 관습이 있어서 흔히 관례(冠禮) 뒤에 본이름 대신으로 불렸다.

현징의 진사시험 합격 기록

1660년 (현종(顯宗)1년) 경자(庚子) 증광시(增廣試) [진사] 2등(二等) 20위(25/100)

- 자(字) 사휴(士休)
- 생년 기사(己巳) 1629년 (인조 7)
- 합격연령 32세
- 본인본관 성주(星州)
- 거주지 영암(靈巖)

경자증광사마방목(庚子增廣司馬榜目)

* 광릉 참봉 : 조선조의 벼슬 이름. 능참봉이라는 관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종9품 최하위 문반직 '참봉' 중에서 선왕과 선후의 왕릉을 관리하는 참봉을 따로 능참봉이라고 불렀다. 조선 후기에 능참봉을 제외한 다른 참봉직이 대부분 혁파되면서 능참봉이 곧 참봉을 뜻하는 말이 되었다.

큰 아버지 유후(裕後)공이 지으신 영암 학산 내동리의 취음정(就陰亭)이 쇠락하자 1678년에 영암(靈岩)의 구림(鳩林)에 이전, 개축(改築)하여 죽림정(竹林亭)이라 이름 짓고 거유들과 교유하며 여생(餘生)을 즐기셨다.

서인의 중심인물로 활약하던 김수항이 구림에서 유배 생활(1676~1679)하던 3년 동안 현지의 집에서 묵었다. 김수항은 1678년에 ‘죽림정기’를 써 주었으며 “竹林亭十詠(죽림정십영)” 扁額(편액) 등 3편을 竹林亭(죽림정)에 손수 걸었다.

죽림정에는 김수항의 아들 김창집·창협·창흠·창업이 지은 시도 액자로 만들어져 걸려 있다. 1689년 기사사화(己巳士禍)로 송시열은 제주도, 김수항은 진도로 유배 가던 도중 서로 만나기 위해 죽림정에 잠시 머물렀다. 서인의 영수 우암 송시열(1607~1689)도 죽림정을 둘러 ‘죽림정’ 편액을 썼다.

문곡(文谷) 김수항(金壽恒, 1629~1689)은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서예가이다. 병자호란 당시 척화를 주장하다가 청나라에 끌려갔다. 돌아온 좌의정 김상헌(金尙憲)의 손자로 형조, 이조, 예조판서를 거쳐 1680년(현종) 때 영의정에 올랐다. 1689년 기사환국으로 진도로 유배 갔다가 사사(賜死)당했다. 아들 6명이 모두 성리학과 문장, 서예에 뛰어나 6촌으로 불렸다. 아들 몽와 장남 김창집(金昌集)은 숙종 때 영의정을 지냈으며, 차남 농암 김창협(金昌協)은 예조판서, 지돈녕부사를 지냈다. 3남 삼연(三淵) 김창흠(金昌翕)은 자는 자익(子益), 호는 삼연(三淵)으로 벼슬을 멀리하였다. 김창흠은 1675년 형님들과 영암(靈巖) 적소(謫所)에 있는 부친을 누차 찾아갔고, 한계산(寒溪山)·월출산(月出山)·죽림정(竹林亭) 등을 유람하였다. 1696년에 양주(楊州) 석실(石室)의 송백당(松栢堂)에 머물며 형 김창협과 강학을 하면서 지냈다. 1721년 신임사화로 유배된 큰 형 김창집이 사사되자, 지병 악화되어 죽었다. 이조판서에 추증되었으며, 시호는 문강(文康)이다. 4남 老稼齋 金昌業(노가재 김창업, 1658-1721)은 1681년 진사가 되었으나 관에 나가지 않았다. 시문과 그림이 뛰어나 화양 서원에 모신 송시열의 화상을 그렸으며, 검재정선의 그림 선생이었다고 전한다. 죽림유거(竹林幽居) 현판(편액)이 전한다.



죽림정



文谷 金壽恒(문곡 김수항)의 竹林亭記(죽림정기) 현판(1678년)

竹林亭記(죽림정기, 1678년 김수항) 원문과 내용

玄上舍 士休闢小亭 爲宴息之所 問名於余 余問曰 古人明堂室不一其義 或以箴警 或以寓興 或以山川景物 子之意何居 士休曰 唯唯否否吾才疎性懶安於弛置 年及五十 蔑蔑乎無聞 則其言之尤行之悔 而呵而箴警者多矣 窮居閒處幸無羈縈之苦 稼圃弋釣琴尊棊槩 凡可以寓吾興者亦非一也 弊廬在鳩林里中占地最軒敞 月岳抱其前 西湖環其後篠簜橘柚梅榴之植 交映於左右則山川景物之供吾應接而可取以爲名者又不可勝數也 然三者吾皆不以名吾亭也余請其故 則乃歛獻而言曰去吾舍數里 吾叔父寢郎公別業在焉 園林臺沼 擅勝於一鄉可與古所稱輞口卯橋爭其霸矣 築一亭其中 顏曰就陰 卽叔父之所寄傲也 不幸叔父歿世禍敗蕩析 後承不能保家業及十數稔 而舊居已爲墟矣 其巋然如魯殿者 獨其亭在耳 又將撤其 未材而貨之 爲村民之所有 則吾於是愀然有不忍於心者遂歸其直而移構于此 冀以無廢叔父之舊焉 子幸而名吾亭 願用是志之也 余作而曰 柔是哉 士休之篤漁親也 請名之曰竹林可乎 在昔竹林之所謂賢者七人而阮家叔姪居其二 夫以諸阮子姓之衆多 咸也獨能同其遊雖如風韻似父之渾而亦不得預焉 嗣從之於仲容其契許可見矣 今寢郎公非無似續 而莫有任花石之託者 顧士休乃能眷眷於堂構之傳士休之事叔父如此 則其叔父之視士休不減步兵之阿咸者則可知矣 名其亭 宣無以易此也 況就陰之義 實取蒙莊 則其與林下趣尙 盖亦不殊矣 名之以此 庶幾不畔於稱也噫 竹林之遊 可謂極一時之跌宕而及至嵇阮殞逝風流雲散 則其親朋酒徒踐遺墟經舊廬 無不撫跡興感 若黃墟之嘆山陽之賦者 此固人情之所必至也 況以奢休之篤於親而昔之杖履觴詠所追陪而周旋者 今皆蕩然爲榛莽黽謁之場 則所以彷徨想慕 愴焉慟焉者 又豈他人比哉 是以於其棟棟之遺 猶且愛惜收拾俾不爲易主之歸 至扁其亭則又舍其可名者 而必欲以寓其思焉 士休之用心 其亦勤矣 余誠嘉之 敢不表而揭之以彰士休之志也 傍有客質余曰 子之言則煙矣 魏晉之士 放曠越禮吾儒所不取末哉 子之待士休也 余應曰 是不然 今余所取名於竹林

不過阮家父子事耳 康桑子老氏之役 而朱夫字取畏壘 以名其菴 則亦奚異於是哉
 且子不聞山巨源之稱仲容乎 清真寡欲 萬物不能移
 則雖云任達其賢於今之逐逐利名者亦遠矣 斯獨非可取者耶 客默而退 士休請錄其語以爲記
 遂書以與之 崑

崇禎紀元後戊午閏春之晦

竹林亭記(죽림정기) 내용

현 징 사휴가 작은 정자를 지어놓고, 손을 맞아 연접하며 평소에 쉬는 곳으로 하면서, 그 정자 이름을 나에게 물으므로, 내가 묻기를 사람의 이름과 당 실의 이름은 그 뜻이 한결같지 않아, 혹은 잠(箴)과 경계(戒)로 하고, 혹은 흥을 붙여 지으며, 혹은 산천 경물을 뜻하여 짓는 것이나, 그 대의 뜻은 어떠한가? 라고 하니, 사휴가 말하기를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나는 다섯 자도 못 된 몸으로 성질 또한 게을러 편히 살며 나이 오십에 이르렀으나 더할 나위 없이 들은 바가 없었으며, 말과 행해 온 일에 후회가 많으므로, 가히 잠(箴)으로 깨우치기를 많이 하고자 합니다. 궁지에서 한가히 살면서 울수도 하지 못하고, 포전에 억매여 가꾸고, 낚시나 거문고, 술과 기박으로 흥을 붙여온 일이 한 두번 뿐만 아닙니다. 나의 폐려가 구림마을 옛터 가운데 있어 월출산을 보듬고 있으며, 앞으로는 서호강이 흐르고, 뒤로는 대나무, 유자나무, 매화나무, 석류나무를 심어 놓고 있으니, 좌우에 비친 산천 경물에 따라 내가 응한 것에 접하여 받드니, 가히 취하여 이름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또한 가히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 가지 모두 내 정자의 이름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고 하였다. 내가 그 까닭을 물으니 곧 한숨을 내어 쉬며 말하기를 내 집과 몇 리 떨어진 곳에 나의 숙부 침랑 공의 별장이 있으니, 원림에 있는 대와 초의 경치가 한 고을에 드러나 가히 옛날 중국의 왕유의 별장보다 낫다 라고 하였다. 한 정자를 그 사이에 지어 편액을 취음이라 한 것은, 즉 숙부가 즐거움을 부친 것이니, 불행히 숙부가 세상을 뜬 후로 화를 입어 패하고, 유랑하여 후손들이 능히 가업을 보존하지 못하여, 수십 년에 이르지 못하여 옛날에 살았던 곳은 이미 남은 터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 우뚝 서서 마치 노둔한 큰 집만은 다만, 그 정자일 뿐이었으니 또, 장차 그 재물을 철거하여 재물로 여겨 촌민의 소유물이 되었으니, 내가 이를 민망히 여겨 마음에 참지 못할 바가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 값을 돌려 여기에 옮기어 지어, 숙부의 옛 정취를 지키고자 합니다. 함으로 그대가 다행히 이미 이름을 지었도다. 라고 하고 내가 그 정자의 이름을 인용하여 짓겠노라고 하였으니, 사휴의 작은 아버지에게 독실함이며! 라고 이르렀다. 그러므로 이름을 죽림정이라 함이 옳겠구나 라고 하였다. 옛날 중국 위나라 말엽 진나라 초기에 허무를 주장하며, 죽림에서 술 마시면서 청담을 하고 지내던 유영을 비롯한 일곱 선비가 있었으니, 그 가운데 원적과 원함은 숙질간으로, 그곳에서 두 지류를 이루고, 살았으며, 두 선비의 자성이 많았음에 느낌이 많았다. 홀로도 능히 자적하였을 것이나, 그와 같이 함께 노는 뜻은, 비록 풍류와 음울은 같다 손 치더라도 글은 서로 주고받음으로써, 또한 얻어진 것이 있지 않았겠는가. 중용과도 함께 허계하고 지냈음을 가히 볼 수가 있다. 이제 침랑 공이 후손이 없지 아니하나, 화석을 맡아 부탁할 자가 있지 아니하거늘, 사휴가 원하는 것은 이를 챙겨서 당을 지어 전하는 것이 사휴가 숙부를 섬기는 것을 이와 같이 하니 숙부와 사휴 간의 정리가 가히 아름답게 여기는 것에 덜지 아니함은 곧 가히 알겠다. 그 정자의 이름을 붙임에 마땅히 이를 바꿀 수는 없는 것이니, 하물며, 취음의 뜻은 실지로 내포하고 취하고 있으니, 그 임하의 뜻과 고상한 것으로 취향을 펼쳤음이 다 다르지 않으리라. 이름이 이러하니 거의 모든 것이 옛날부터 칭한

바가 아닐 수 없도다. 아! 슬프다 죽림칠현이, 죽림에서 놀았던 것은 가히 한때 가만히 도사리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심지어는 혜강과 완적이 서로 풍류를 하다 구름이 활짝 개이면, 친히 술동이를 갖다 마시며 뜰을 지나고, 옛날부터 전해 오는 유허지를 돌고 돌아 흥감하여 어루 만진 지취가 없지 않으며, 황천에의 탄식과 피리 소리를 듣고, 옛 생각으로 시를 하는 등 이는 반드시 진실로 인정이 지극한 소치일 것이다. 하물며 사휴도 친의에 돈독하니 옛날 숙부의 장구를 따라 시도 읊으면서 배종하면서 두루 살폈으나 이제는 다 탕연해서 묵었으며 족제비나 박쥐 떼의 마당이 되었으니 사휴로서는 방황하면서 추원함이 창연하고 개연하여 어찌 다른 사람에게 비기겠는가? 이로써 그 석가래와 기둥의 유적에도 오히려 또한 애정을 수습하여 가히 쓸만하면 바꾸지 말고 그 중지방을 다시 써야 할 것이다. 그 정자에 편액 하는데까지 이르렀으니 또한 그 가히 이름 지을 것을 두고 반드시 그 생각을 붙이고자 한 것이다. 사휴가 힘을 씀이 그 또한 가상하다. 나는 진실로 그것을 가상히 여겨 감히 드러내 사휴의 뜻을 드러내지않게 하였는데, 곁에 있던 용질이 나에게 말하기를, 그대의 말씀인즉 그러하나 위나라, 진나라 선비들이 남에게 구속되지 않고, 애교를 넘어섬에 우리 선비가 그 끝이라도 취할 수 있으리오. 그대는 사휴를 대접하는구려 하니 내가 응하여 말하기를 “이는 그렇지 않다. 이제 내가 그 이름을 취하는 것은 죽림칠현 중 월가 숙질의 사적이 없고 강자가 노씨의 경안을 보지 못하였다면, 주부자께서도 암자의 이름을 중첩으로 취한 것과 어찌 다를 바 있으리오. 또한 그대는 산천 거원에서 한가하였다고 중용을 일컬음을 듣지 못하였는가? 맑고 참되게 욕심이 적어 만물에 뜻을 두지 않았던 정취를 가히 취한 것이다. 라고 하니 객이 묵묵히 물러가고, 사휴는 그 말을 청하여 기록하여 죽림정 기로 삼을 것을 청하거늘 드디어 써주었다. 해는 숭정기원 후 무오년(1678년) 윤삼월 그믐에.



文谷 김수항의 竹林亭 편액



文谷 김수항의 竹林亭十詠(죽림정 십영) 편액, 1678년)

竹林亭十詠(죽림정 십영, 김수항 1678년)

1. 東嶺霽月(동령제월) : 동녘 재에 개인 달
 ‘동쪽 봉우리의 밝은 달[東嶺霽月]’을 읊은 것이다.
 開窓面月出(개창면월출) : 창을 열고 월출산 대하니
 東嶺最相當(동령최상당) : 동녘 재가 가장 서로 마땅하구나.
 坐覺永輪上(좌각영륜상) : 앉아서 달이 떠 있음을 깨달으니
 淸輝已映床(청휘기영상) : 맑게 빛나 상위에 이미 아른거리네.

2. 北亭長松(북정장송) : 북송정에 락락 장송
 ‘북쪽 정자의 큰 소나무[北亭長松]’를 읊은 것이다.

鬱鬱虬龍幹(울울규룡간) : 울울하게 虬龍(규룡)같이 생긴 줄기
長風吹作濤(장풍취작도) : 바람이 길게 부니 물결을 일으키네.
倏然滿清聽(소연만청청) : 소연히 맑은 소리로 가득 차니.
不羨茅山陶(불이모산도) : 모산의 도연명이 부럽지 않다네.

3. 南畝農謳(남묘농구) : 남쪽 들녘의 농부 노래

‘남쪽 밭의 농부가[南畝農謳]’를 읊은 것이다.

春來耕白水(춘래경백수) : 봄이 오면 하얀 물 쟁기질하고
秋至割黃雲(추지할황운) : 가을이 돌아오니 누런 구름 베어내네
苦樂田家事(고락전가사) : 고락이 있는 농촌의 일
農謳隔岸聞(농구격안문) : 농부들의 노래소리 언덕 넘어 들리누나.

4. 西湖漁歌(서호어가) : 서호강에 어부의 노래

‘서쪽 호수의 어부가[西湖漁歌]’를 읊은 것이다.

村居湖水上(촌거호수상) : 마을이 호수위에 자리 잡으니
一半是漁家(일반시어가) : 절반이 고기 잡는 집이로구나
知有夜船返(지유야선반) : 밤배 되돌아오는 것 아는데
時聞風外歌(시문풍외가) : 이때에 바람 밖 노래소리 들리누나.

5. 後園賞春(후원상춘) : 후원에서 봄 구경

‘뒷동산의 봄 경치 감상[後園賞春]’을 읊은 것이다.

花開遍村巷(화개편촌항) : 마을 골목에 두루 꽃이 피었는데
不獨滿園紅(불독만원홍) : 홀로 동산만이 붉은 꽃 가득하지 않네.
歲歲春多少(세세춘다소) : 해마다 봄이 되면 꽃이 많고 적음은
都輸杖履中(도수장구중) : 모두 지팡이와 신 가운데에서 보내네.

6. 前川觀漲(전천관창) : 앞 내의 넘친 물을 봄

‘앞내의 불어난 물을 바라보는 것[前川觀漲]’을 읊은 것이다.

積雨前溪漲(적우전계창) : 장마 비 앞 시내에 넘실대고
羣流爭一門(군류쟁일문) : 많은 물줄기 한 입구를 다투네.
狂瀾無計遏(광란무계알) : 사나운 물결 막을 방책 없으니
長嘯倚風軒(장소의풍헌) : 길게 휘파람불어 風軒(풍헌)에 기대었네.

7. 九井霜楓(구정상풍) : 구정봉에 서리 맞은 단풍

‘구정의 서리 맞은 단풍[九井霜楓]’을 읊은 것이다.

石骨聳孤靑(석골용고청) : 돌의 줄기 외로운 푸르름으로 솟아있고

秋霜染萬葉(추상염만엽) : 가을 서리에 많은 잎이 물들었네.

粧成錦繡屏(장성금수병) : 단장하여 비단 수 병풍 만들어

高向亭前匝(고향정전잡) : 높이 죽림정 앞을 향하여 두르네.

8. 孤山雪梅(고산설매) : 고산리의 눈 속에 핀 매화

‘고산의 눈 속에 핀 매화[孤山雪梅]’를 읊은 것이다.

西湖無限景(서호무한경) : 서호의 무한한 경치와

獨愛孤山雪(독애고산설) : 홀로 고산리의 눈을 사랑하였네.

更著水邊梅(경저수변매) : 다시 물가에 매화꽃이 부딪치니

黃昏映斜月(황혼영사월) : 황혼에 빛긴 달 비추네.

9. 聖洞朝烟(성동조연) : 성기동의 아침 연기

‘성동의 아침 안개[聖洞朝煙]’를 읊은 것이다.

精舍隱何許(정사은하허) : 정사가 숨어 있는 곳 그 몇 발췌인가?

洞門深復深(동문심복심) : 마을문은 깊고 또 깊구나.

認得炊時早(인덕취시조) : 밥 짓는 시간 빠름을 알겠으니

孤烟忽起林(고연홀기림) : 외로운 연기 홀연히 숲에서 일어나네.

10. 鵝峰夕照(지봉석조) : 주지봉에 저녁노을

‘지봉의 저녁노을[鵝峯夕照]’을 읊은 것이다.

落景照前山(낙경조전산) : 지는 해가 앞산에 비추이니

遙看圖畫間(요간도화간) : 멀리서 그림과 그림 사이를 바라 본 듯

歸僧與棲鳥(귀승여서조) : 돌아가는 스님 새와 함께 살며

爭似主人閒(쟁사주인간) : 주인인 듯 한가롭게 다투네.

주(註)

- 東嶺(동령) : 동쪽에 있는 재.
- 鵝峰(지봉) : 주지봉의 준말.
- 虬龍(규룡) : 빛이 붉고 뿔이 돋았다는 용의 새끼



金昌集(김창집)의 竹林亭十詠(죽림정 십영) 편액, 1678년

竹林亭十詠(죽림정십영, 김창집, 1678년)

1. 東嶺霽月(동령제월)

霽後纖雲援四天(제후섬운원사천) : 갠 뒤 얇은 구름 사방 하늘
걸어지고.

坐看東嶺月輪圓(좌간동령월륜원) : 앉아서 동녘 재에 둥근 달을
볼 수 있네.

亦知桂影家家遍(역지계영가가편) : 또한 달그림자 집집마다 두루
비쳐 질 줄 아나.

獨愛清光入戶先(독애청광입호선) : 맑은 빛 먼저 문에 들어 비치는
것 좋아하네.

2. 北亭長松(북정장송) 북송정에 락락 장송

長松落落夾溪回(장송락락협계회) : 장송은 락락한데 시냇물은 끼고
돌고

露甲霜枝老不摧(로갑상지로불취) : 드러난 갑옷 서리친 가지
늙었으나 꺾이지 않네.

最是北窓欹一枕(최시북창의일침) : 가장 이때에 북 창가에서 잠
한 숨을 이루니.

夢中時認海濤來(몽중시인해도래) : 때로는 꿈 가운데서 바다 파도
치는 소리 들리네.

3. 南畝農謳(남묘농구)

耕歌處處樂田氓(경가처처락전맹) : 곳곳에서 격양가 소리 농민들
즐거워하고.

時維春山布穀聲(시유춘산포곡성) : 때는 오직 봄이라 산 뻐꾸기
소리 내어 울어대네.

隔岸餘音來嫋嫋(격안여음래요요) : 사이는 언덕에 막혔으나 여음은
요요하게 들려오고.

分明曲裏頌昇平(분명곡리송승평) : 분명 곡속에서 태평 성쇠
송축하네.

4. 西湖漁歌 (서호어가) 서호에 어부 노래

浦口寒朝夜夜還(포구한조야야환) : 포구에 찬 조수 밤마다 돌아오나
漁舟來去荻花灣(어주래거적화만) : 갈대꽃 핀 물굽이에 고기잡이 배
왔다 가네.

隔江時送滄浪曲(격강시송창랑곡) : 때로 들어오는 창랑곡 소리
강둑에 막혀

聲在香汀竹島間(성재향정죽도간) : 흐뭇한 물가 대섬 사이에 있네.

5. 後園賞春 (후원상춘)

二月江南春已還(이월강남춘이환) : 이월이라 강남에 봄이 이미
돌아오니

碧桃紅杏滿園斑(벽도홍행만원반) : 푸른 복숭아 붉은 살구 동산에
가득 아롱졌네.

韶華處處輸吟望(소화처처수음망) : 젊어서는 곳곳으로 읊어 보내기
바라는 것.

萬落烟花松一般(만락연화송일반) : 온갖 속세 인간들 다 같이 일반
일세.

6. 前川觀漲(전천관창)

江南梅雨漲前川(강남매우창전천) : 강남에 장마 비로 앞 냇가
넘쳐나니.

直與西湖一色連(직여서호일색연) : 곧 바로 서호강과 한 빛으로
함께 연하였네.

車馬來午難辨虛(거마래오난변허) : 지나간 무오년과 돌아올
무오년을 구별하기 어려울지.

却疑滄海變桑田(각의창해변상전) : 상전벽해 변화무상 의심을
물리치네.

7. 九井霜楓 (구정상풍)

九井嵯峨出衆巒(구정차아출중만) : 구정봉 높이 솟아 여러 봉우리

보다 불쑥 나오니.

遠看雲樹自相攢(원간운수자상찬) : 멀리 보이는 구름찬 나무 서로가 스스로 때 지어 있네.

霜風一夜峯頭過(상풍일야봉두과) : 서리 찬 바람 하룻밤에 산봉우리를 지나가니.

染盡千林葉葉丹(염진천림엽엽단) : 일천 숲 잎 잎마다 다 붉게 물들어 가네.

8. 孤山雪梅 (고산설매)

西湖湖上有孤山(서호호상유고산) : 서호의 호수위에 외로운 산 있으니.

和靖仙居落此間(화정선거락차간) : 서호처사 임화정이 이곳에 내려와 살았을까?

雪裏寒梅猶自在(설리한매유자재) : 눈 속에 찬 매화는 스스로 있는 것 같고.

月中疎影映潺湲(월중소영영잔원) : 달 가운데 성긴 그림자 물 줄줄 흐르듯 비추네.

9. 聖洞朝烟 (성동조연)

孤烟竹外映朝曦(고연죽외영조희) : 외로히 피어나는 연기 대 밖에서 아침 햇살 비추고.

坐認書齋報早炊(좌인서재보조취) : 서재에 앉아서도 일찍 밥 지었다고 하는 소리 알고 있네.

溪霧壑雲渾一色(계무학운혼일색) : 시에 안개 골 구름 한 빛으로 혼연한 것을.

捲簾看作畫圖奇(권렴간작화도기) : 주렴을 걷고 기이하게 그림 그리듯 보고 짓네.

10. 鵝峰夕照 (지봉석조)

日落千峯夕照連(일락천봉석조연) : 천 봉우리에 해 떨어져 저녁노을 연해지니.

滿簾山氣一時鮮(만렴산기일시선) : 주렴에 가득 찬 산 기운이 일시에 신선하구나.

獨憐雙朶芙蓉色(독련쌍타부용색) : 나 홀로 두 떨기 연꽃 빛 가련히 여기니.

幻作霞標出半天(환작하표출반천) : 환상의 조석 노을 반공중에 피어나네.

戊午年 抄秋 上浣 金昌集(무오년 초가을 상완, 김창집)

주(註)

- 北窓(북창) : 북쪽 창가.
- 布穀聲(포곡성) : 뻐꾸기 소리.
- 布穀(포곡) : 뻐꾸기의 이명.
- 韶華(소화) : 청년 시대
- 嫋嫋(요요) : 소리가 길게 들리는 모양.
- 梅雨(매우) : 음력 4, 5월에 지는 장마.
- 雲樹(운수) : 구름에 닿을 정도로 높은 나무.
- 潺湲(잔원) : 물이 줄줄 흐르는 모양. • 霞標(하표) : 아침저녁 노을.



농암 金昌協(김창협, 1651-1708)의 죽림정십영 편액(扁額), 1696

竹林亭十詠(죽림정십영, 김창협, 1696년)

1. 東嶺霽月(동령제월)

夕霽臥遙帷(석제와요유) : 저녁 비가 개이므로 휘장을 막고,
누웠으니.

東峰孤煙歇(동봉고연혈) : 동녘 봉우리에 얇은 연기 흩어지네

開篇詩地霜(개편시지상) : 책을 펼쳐 시경 지상 편을 읊으니.

竹上上明月(죽상상명월) : 대나무 위로 밝은 달이 올라오네.

2. 北亭長松(북정장송)

喬松含萬古(교송함만고) : 큰 줄기 소나무는 만고의 풍상을 머금고

鬱鬱到蒼昊(울울도창호) : 뻣뻣하게 푸른 하늘을 향해 솟아있네.

偃蹇亭裏人(언건정리인) : 높은 솔 정자 속에 있는 사람들은.

相看多不老(상간다불노) : 서로 보건데 많이 늙지 않았네.

3. 南畝農謳(남묘농구)

夜雨各平田(야우각평전) : 밤비가 평야들에 고르게 내리니.

濤濤稻秧綠(도도도앙록) : 벼이삭 푸르르게 파도 모양 물결치네.

一簞笠夕陽(일대립석양) : 한 대에서 석양에 샷갓을 쓰고.

連勞簪成曲(연노잠성곡) : 잠성곡 부르느라 연이어 수고하네.

4. 西湖漁歌 (서호어가)

湖平煙水深(호평연수심) : 호수의 수평선에 안개 물보라 질어지고.

漁子迷處所(어자미처소) : 어부의 고기 잡는 곳 희미해지네.

月出稍中影(월출초중영) : 달이 점점 중영에 나니

維舟定竹嶼(유주정죽서) : 대섬에 배 댈 곳을 정하네.

5. 後園賞春 (후원상춘)

連日深園步(연일심원보) : 연일 깊은 동산에서 산보하니.

隨人蛺蝶來(수인협접래) : 호랑나비 훨훨 날아 사람 따라 오네

百盃謹次第(백배근차제) : 백동이 술이라도 차례대로 따르려니.

斟酌莫爭開(짐작막쟁개) : 술을 따르려고 동이 열기를 다투지
말게.

6. 前川觀漲 (전천관창)

群流漲一川(군류창일천) : 여러 시냇물이 모여 한 천으로 넘쳐
흐르는데.

淘淘動凡席(도도동범석) : 도도하게 흐르는 물 모든 자리를
움직이네.

高枕待其聲(고침대기성) : 벼게를 높이 베고 그 소리 기다리니.

悠然且終夕(유연차종석) : 유연하게도 또한 날이 새는구나.

7. 九井霜楓(구정상풍)

疊巘倚高秋(첩헌의고추) : 첩첩한 시루봉이 깊은 가을에 비겨.

朝來轉佳色(조래전가색) : 아침 되니 아름다운 색으로 바뀌네.

楓林平得霜(풍림평득상) : 단풍 숲은 보통 서리를 맞고 지니.

無等初霧赤(무등초무적) : 무등산은 첫 서리에 붉어져 오네.

8. 孤山雪梅(고산설매)

夜雪滿孤山(야설만고산) : 고산에 밤눈이 가득히 쌓이네.

絕憐梅蘂冷(절연매예냉) : 이웃은 끊기고 매화꽃술만 차갑네.

行尋竹外枝(행심죽외지) : 다니면서는 대나무 밖에서 가지를 찾고

坐對水中影(좌대수중영) : 앉아서는 수중에서 그림자를 대하네.

9. 聖洞朝烟(성동조연)

僧廷寄空翠(승정기공취) : 절 뜰에 기이하게 푸른빛이 비었으니.
 間望意悠然(간망의유연) : 간혹 바라본 뜻이 유연하기만 하네.
 香積朝朝事(향적조조사) : 아침마다 불사하는 향기에 쌓여.
 深松有細煙(심송유세연) : 깊은 소나무에 가느다란 연기
 피어오르네.

10. 鳩峯夕照(지봉석조)

東峰高幾餘(동봉고기여) : 동쪽 봉우리 높이가 몇 질이나
 남았는지?

拳峭莫能競(군초막능경) : 몹시 놀라하고 능하게 경쟁을 말게.

亭亭不海泊(정정하해일) : 꼴꼴하게 바다 밖에 매어 있는 듯.

於此每餘映(어차매여영) : 어차 매양 남은 빛만 비추이네.

歲次 丙子 季秋 上浣(세차 병자 계추 상완)

金 仲 和 稿(김중화 고)

이 시는 농암 김창협(金昌協)의 문집 농암집에 실려있다.



三淵(삼연) 金昌翁(김창협, 1653 ~ 1722)의 竹林亭十詠 편액(扁額), 1684

竹林亭十詠(죽림정십영, 김창협, 1684년)

1. 東嶺霽月(동령제월)

作亭啓東軒(작정계동헌) : 정자를 지어 동헌을 열고

招取東峯月(초취동봉월) : 동쪽 봉우리 달을 불러 취하고 싶네.
 應須霽後夕(응수제후석) : 생각컨데 마땅히 비 갠 뒤의 저녁이라
 滅燭坐超忽(멸촉좌초홀) : 촛불 끄고 앉으니 아득하기만 하여라.

2. 北亭長松(북정장송)

楚楚松樹子(초초송수자) : 가시가 송긋송긋 소나무의 열매
 不知誰列植(불지수열식) : 누가 줄지어 심었는지 알 수가 없구나.
 四節貯清陰(사절저청음) : 사계절 청음을 간직하고 있다가
 飄風來不息(표풍래불식) : 회오리바람 불어와도 쉬지를 않네.

3. 南畝農謳(남묘농구)

黃梅雨新歇(황해우신혈) : 누런 매화 비 비로소 그치니
 土鼓發家家(토고발가가) : 댕댕이 덩굴 집집마다 피네
 田謠千百種(전요천백종) : 농가의 노래 천백 가지이나
 愛聽山有花(애청산유화) : 산유화 노래 소리 듣는 것 좋아하네.

4. 西湖漁歌(서호어가)

滄浪鼓枻曲(창랑고예곡) : 푸른 물결에 노 두드리는 가락
 春泛樂何如(춘범락하어) : 봄에 뜨는 즐거움 어떠한가?
 青蓴十里浦(청순십리포) : 푸른 순채는 십리 포구에 깔려있고
 黃雪千石魚(황설천석어) : 누런 눈은 천석이나 되는 고기 덮었네.

5. 後園賞春(후원상춘)

園林嘉卉滿(원림가훼만) : 원림에 좋은 풀 가득하니
 春至自然香(춘지자연향) : 봄이 이름에 자연히 향기롭네.
 聊爲角巾往(요위각건왕) : 애오라지 두건을 쓰고 가서
 蝴蝶興翱翔(호접흥고상) : 나비와 흥겹게 함께 노니네.

6. 前川觀漲(전천관창)

白水平原出(백수평원출) : 하얀 물이 평원에서 나옴으로
 開窓兩溪遙(개창양사요) : 창을 여니 두 물가 아득하구나
 竹島沒不見(죽도몰불견) : 대섬은 가라앉아 보이지 않는데
 社亭如動搖(사정여동요) : 會社亭(회사정)은 마치 동요하는 듯 하네

7. 九井霜楓(구정상풍)

九井巉巖石(구정참암석) : 구정봉의 높고 험한 바위
 層生紅樹稠(층생홍수조) : 층층이 난 붉은 나무 주밀하네.
 清霜降深淺(청상강심천) : 깨끗한 서리 깊고 열게 내려
 高下細知秋(고하세지추) : 산의 높고 낮음으로 가을을 자세히
 알겠네.

8. 孤山雪梅(고산설매)

孤山自梅藪(고산자매수) : 고산은 스스로 매화 숲 이루어

化發遠如雪(화발원여설) : 멀리 꽃 핀 것이 눈과도 같네.

風馨易近人(풍형역근인) : 바람에 날린 향기 사람을 쉬이 끌게
하지만

莫遺與攀折(막유유반절) : 잠간이라도 사람 보내어 꺾지를 말게

9. 聖洞朝烟(성동조연)

燒烟興細細(소연흥세세) : 불사른 연기 가늘게 피어오르니

屬目自東林(속목자동림) : 동쪽 숲에서 나는가 눈 여겨 보네

定知香飯熱(정지향반집) : 바로 향기로운 밥 익은 줄 알면

如聽木魚音(여청목어음) : 목어 두드리는 소리 들리는 듯 하구나

10. 鵝峯夕照(지봉석조)

鵝峯何竦峙(지봉하송치) : 주지봉은 어찌 그리 우뚝 솟아

送影重瀉中(송영중사중) : 그림자를 다시瀉土(사토)로 보내누나.

日西蒼翠倒(일서창취도) : 날이 기움에 비취빛 거꾸러지니

呑吐半山紅(탄토반산홍) : 산 중턱의 붉은 것 삼키고 뱉네.

농암 김창협의 동생인 조선 숙종 때의 성리학자이자 서예가 삼연(三淵) 김창흡의 문집 삼연집(三淵集)에도 현징과 죽림정이 보인다.

삼연집 8권(三淵集卷之八) / 詩

玄參奉徵挽(현참봉징만, 참봉 현징에게 만사하다)

不忍南州踐。 나는 차마 남쪽 땅을 밟지 못하였더니

何由到社亭。 무슨 연유로 죽림정에 이르게 되었나.

生前意猶在。 이곳엔 생전에 그대 뜻한 자취 아직 남아있는데

夢裏會頻經。 꿈속에서 몇 번이나 여기서 만나곤 했지.

鴈信存情素。 오가는 편지에 담긴 소박한 정리(情理)와

蠅書驗健寧。 그대 작은 글씨 보고 건승함 짐작했거늘

那知天外望。 어찌 알았으랴 먼 하늘 바라보며

驚失老人星。 노인의 죽음에 크게 놀랄 줄

其二

先人竹林贊。 선인들은 죽림칠현을 기렸고

阮氏仲容賢。 그대는 그중 중용(仲容) 완함(阮咸)1)의 현명함을 닮았지

琴嘯風流地。 그대가 거문고에 노래 읊으며 즐기는 곳은

煙雲月出前。 안개 연기 속 월출산 앞자락이었네

名園素封得。 아름다운 동산이 그대의 봉지[素封]2)였으니

弊屣一官捐。 헌신짝처럼 관직을 버렸네

寬樂無雙福。 넉넉한 즐거움을 무슨 복에 비길런가
嗚呼敢問年。 오호라 감히 나이조차 묻지 않았네3)

其三

朗州無限酒。 랑주(郎州)4)에서 마신 많은 술
愁到此間消。 근심도 그사이에 사그라졌지
邀月林家榭。 숲속 집 정자에서 달을 맞이하였고
乘潮竹嶼燒。 죽서(竹嶼)5)에서 파도 타며 노를 저었네
梅飄翠禽嘖。 매화꽃 나부끼고 파랑새 노래하네
蓴脆雪魚跳。 순채는 부드럽고 농어가 뛰놀았지6)
一一流連迹。 흐르는 물결의 자취는
蕭條歲月遙。 쓸쓸히 먼 세월을 생각나게 하네

其四

緩急漣如血。 그대 생각에 피눈물을 흘리고
幽明洞澈腸。 밤낮으로 몸속은 텅 빈 듯
心乎何日忘。 어느 날인들 마음에서 잊으랴
事有不堪詳。 말로는 다하지 못할 그 많은 일들을
骨肉無差別。 그대와 나 형제와 같았으니
山川豈阻長。 산천 막힘이 무엇이 문제가 되리
尋常歲寒說。 우리들은 항상 세한(歲寒)7)을 이야기하였고
曾與閱滄桑。 상전벽해(桑田碧海) 같은 세월을 함께했었지

1) 중용 완함: 완함은 죽림칠현 중 한 사람. 중용은 완함의 자

2) 소봉(素封): 벼슬 없는 사람이 사는 곳.

3) 감히 ~않았네 : 늘 젊은 기분으로 살았기 때문이다.

4) 낭주(朗州) : 영암의 옛 이름

5) 죽서(竹嶼) : (어딘지 확실치 않음)

6) 순채는~ 뛰놀았지 : 순갱노회(鱸羹編膾)의 고사를 말함. 순갱(羹)은 순채라는 나물로 끓인 국이고 로회(鱸胎)는 룡어로 회를 친 음식이다. 한(漢)나라 때 장한(章邯)이 고향의 순갱로회를 그리워하여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간 고사에서 유래하였음.

7) 세한(歲寒): <논어(論語)>歲寒然後知松柏後彫.

만사(挽詞) : 죽은 이를 슬퍼하여 지은 글. 또는 그 글을 비단이나 종이에 적어 기(旗)처럼 만든 것. 주검을 산소로 옮길 때에 상여 뒤에 들고 따라간다.

삼연집습유6권(三淵集拾遺卷之六 / 詩

玄參奉徵挽之五(현참봉징만5, 참봉 현징에게 만사하다)

逝運藏舟壑。 운구해 깊은 주학에 감추니

幽阡立石岡。뫼자리에는 돌 언덕이 섰다.
 山丘捻零落。산과 구릉은 모두 영락하고
 江海又淒凉。강과 바다는 또 처량하네
 極目春千里。눈 찌푸려 봄 천리를 찾는데
 緘辭涕一作淚百行。제문에 백 줄기 눈물
 慚無磨鏡具。거울을 닦는 도구도 없는 게 부끄러워1)
 恨結白雲長。한을 흰 구름 속에 오래도록 매어두네

1) 磨鏡具(마경구) : 부조금이 없어 거울 닦는 도구로 대신 닦아줌



죽림정 현판, 죽림유거(竹林幽居) 편액은 老稼齋 金昌業(노가재 김창업)의 작품이다.

현장은 또한 1684년에는 왕인박사가 수학했다는 문수사 터에 문산재라는 서당을 창건하여 후학을 양성했다. 학도들은 영암, 나주, 장흥, 해남, 강진에서 찾아왔으며,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는 노인들을 초청해 대접했다고 한다. 竹亭書院 院長(죽정서원 원장)을 역임했다.(1693 ~ 1702년) 구림 대동계원이다. 1702년(숙종 28년) 74세로 돌아가셨다. 동군북입석산신좌 산록(同郡北立石山辛坐山麓)에 장사(葬事)했다. 후손이 없어서 종자(從子) 약호(若昊)를 계자

(系子)로 맞았다.



양사재 (養士齋)



문산재(文山齋)

양사재(養士齋)는 유생(儒生)들이 수학(修學)하는 서원식재당(書院式齋堂)이라고 할 수 있다. 1830년 소실되었으나 1986년에 복원(復元)했다. 문산재 뒷산 월대암(月台岩) 밑에는 왕인이 책을 보관해두고 사용했던 책굴(冊窟)이 있으며, 그 입구 쪽에는 왕인을 기리기 위하여 수학자들이 새운 왕인의 석인상(石人像)이 서 있다.

문산재(文山齋)는 竹林公(죽림공) 현징(徵)이 왕인박사(王仁博士) 수학지(修學址)인 주지봉(朱芝峰) 아래 문수암 자리에 세운 서당이다. 문인재사(文人才士)와 수학자(修學者)들이 각처(各處)에서 운집(雲集)하여, 군자석학(君子碩學)을 수없이 배출(輩出)했다고 전한다.

농암 김창협(陶菴 金昌協)의 문인으로 조선 후기에 대사헌, 이조참판, 대제학 등을 역임한 문신이자 서예가 도암(陶菴) 이재(李緯, 1680~1746)의 문집에 현징의 묘지명이 실려있다.

陶菴先生集卷四十一 / 墓誌[二]

參奉玄公墓誌 a195_362a [변독색인](#)

湖南古稱多山水樓臺之勝。靈巖鳩林號爲樂土。而玄氏竹林之亭爲最。參奉諱徵字士休之居也。公之仲父裕後亦參奉。不仕。有亭名就陰者。後承衰替。不能保有。公傷之。歸其直於人而移構之。以復舊觀。文谷金相國聞而歎曰。士休之篤於親如是夫。遂取阮家父子契許之義以名之。文谷之胤農巖。三淵諸公相與詠歌其事。公未老謝官而歸。居閒數十年以終。士大夫多高其風致。玄自高麗兵部尙書德秀籍星州。高祖縣監諱球。曾祖從仕郎諱德亨。祖諱健。官主簿不就。考諱振後。妣坡平尹氏。府院君之任之後。公七歲而孤。哀毀猶成人。仲父憂之。挈歸而鞠養。且授以書。文辭夙就。既而歸奉母夫人。經理成家。雖生事旁落。而甘旨不乏。戊子隨計赴京。見星而奔。終身以爲痛恨。既吉遂欲廢舉。而爲仲父所強。中庚子進士。後屢發解竟不第。庚申新化。除光陵參奉。嘗於直所遇喪餘日。有詩自叙如不祭之懷。仍卽謝歸。人問其故則曰病未能也。文谷欲爲公取近。使待殿郎之闕而猶不肯。乃追寄書曰歸袂浩然。不可復挽云。公嘗曰吾鮮民也。追養之節。惟祭祀耳。非甚病。未嘗一廢沐浴。臨祭膳羞或不備則傷歎却食。晚邁脚疾。而祭日猶俯伏致哀。已祭而出。號哭不止。哀動隣里。公爲人敦慤。身

不設惰容。家不置戲具。處鄉黨和遜。不言人過惡。少而劬書。至老不釋卷。舊有塾而中廢。改建而增大之。令村秀日肄業其間。每朔望會于亭中。考試而賞罰之。蔚然有作成之功。暇日又與諸長老擊鮮置酒。吟哦酣暢。以永終夕。至今傳以爲勝事。嘗聞吾叔祖冢宰公當己巳禍謫冠山。公往拜之。燕語從容。笑曰吾與公同年生。月日亦同。而窮達懸殊。豈所謂命歟。曰吾雖致位卿相。子則一生享有湖山清福。反復勝耶。公年七十四。壬午正月十六日卒。葬在郡北立石山辛坐之原。室竹山朴氏祔。公無嗣。取從子若昊子之。若昊生四男一女。守初。守中。守範。守愚。女適林尙夏。曾孫曰命直。命益進士。命德。命直從余遊。來乞幽誌。余久聞竹林之名。欲一登斯亭而未能也。且慕公清操。遂爲之銘。銘曰。故家肯構。非亭爲高。小阮清真。脫屣塵囂。所友不俗。眼底兒曹。忠厚孝悌。寔神攸勞。湖海風流。亦足自豪。觴咏娛賓。絃誦造髦。抱茲奇氣。老死蓬蒿。銘以志之。厥德載昭。

성균진사행(成均進士行) 광릉참봉(光陵參奉) 죽림정공(竹林亭公) 묘지명병서(墓誌銘并序)

호남(湖南)은 옛부터 산수(山水)와 누대(樓臺)가 좋기로 그 이름이 높을 뿐만 아니라 영암(靈岩)의 구림(鳩林)은 살기 좋은 낙토(樂土)라고 이름이 나 있는데 그곳의 현씨(玄氏) 죽림정(竹林亭)이 가장 좋은 정자(亭子)이다. 참봉(參奉)이신 휘(諱) 징(徵) 자(字) 사휴(士休)께서 지으신 별장(別莊)으로 사용(使用)하시던 곳이다.

公이 중부(仲父) 휘(諱) 유후(裕後)께서도 역시(亦是) 참봉(參奉)이셨으나 벼슬은 더 하지 않으시고 또한 정자(亭子)를 짓고 취음정(就陰亭)이라 명명(命名)하시고 여생(餘生)을 즐기시더니 후손(後孫)들이 형세(形勢)가 빈약(貧弱)해져 그 보존(保存)을 못하게 되자 공이 상심(傷心)하신 끝에 사람을 시켜 옮겨 개축(改築)하시니 옛 모습을 되찾게 되었다.

이때에 문곡(文谷) 김상국(金相國)(당시의 거유(巨儒))이 이 사실(事實)을 듣고 감탄하며 하는 말이 사림(士林)이 아버지의 뜻을 이와 같이 도탑게 이어받아야 한다고 칭찬하고 앞으로 완가부자(阮家父子)의 정의(情義)를 가져 지내도록 하라고 명명(命名)하시고 문곡선생(文谷先生)의 아들 농암(農巖) 삼연(三淵)(당시의 거유(巨儒))등(等) 여러 선비와 더불어 이 일을 자주 말하였다.

公이 벼슬을 사양하고 돌아와 이곳에서 수십년(數十年)동안을 한가히 사시다가 돌아가시니 사대부(士大夫)들이 부러워하며 말하기를 고결(高潔)하신 풍치(風致)라고 하였다. 현씨(玄氏)는 고려병부상서(高麗兵部尙書) 휘(諱) 덕수(德秀)로부터 본관(本貫)을 성주(星州)로 하였다. 고조(高祖)는 현감(縣監) 휘(諱)는 구(球)요 증조(曾祖)는 장사랑(將仕郎) 휘(諱)는 덕형(德亨)이요 조고(祖考)의 휘(諱)는 건(健)이며 관(官)은 주부(主簿)이었으나 취임(就任)하지 않으시고 고(考)의 휘(諱)는 진후(振後)이며 어머니는 파평윤씨(坡平尹氏) 부원군지임(府院君之任)의 후손(後孫)이다.

公이 칠세(七歲)에 아버지를 여임에 슬퍼하시는 것이 어른과 같으시니 그 중부(仲父)가 병(病)이나 나지 않을까 두려워서 데려다가 기르시며 또한 공부(工夫)를 시키시니 문사(文辭)가 속달(速達)하셨다. 몇년 후(後) 편모(偏母)를 극진히 봉양(奉養)하며 치가(治家)하는 데는 모든 것을 이치(理致)에 맞도록 절약(節約)하여 성가(成家)하고 그 어머니를 봉양(奉養)하는데 있어 비록 가세(家勢)는 넉넉하지 못하였으나 어머니의 식성(食性)에 맞는

음식(飮食)이 떨어지는 일이 없었으며, 서기 1648년(무자(戊子)에 계획(計劃)한 바 있어 서울에 가서 보니 바쁘기가 아침에 별을 보고 나가서 밤에 또 별을 보고 들어오게 되니 참으로 분주(奔走)한 처지(處地)가 되어 한탄(恨歎)스럽기만 하였다. 그 익일(翌日)에 행구(行具)를 차려 과거(科擧)보는 것은 단념(斷念)하고자 하였으나 중부(仲父)의 간곡(懇曲)한 권유(勸誘)에 의(依)하여 서기1660년(경자(庚子)에 진사시험(進士試驗)에 합격(合格)하였다. 그러나 그 후(後) 여러 번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으려 하셨으나 서기1680년(경신(庚申) 봄에 광릉참봉(光陵參奉)으로 임명(任命)되어 부임(赴任)하시자 얼마 후(後) 상(喪)을 당(當)하게 되어 벼슬을 사퇴(謝退)하고 집에 돌아가니 문곡선생(文谷先生)께서 공을 위(爲)하여 전랑(殿郎)을 권(勸)하였으나 오히려 이에도 응(應)하지 아니하니 이어 기서(寄書)에 하였는데 공의 지조(志操)가 높아 메별(袂別)할 때는 호연(浩然)하니 다시 만류(挽留)할 수 없다고 운위(云謂)한 즉

公이 말하되「나는 외로운 사람이라 돌아가신 부모(父母)를 추모(追慕)하는 길은 오직 제사(祭祀)뿐이라」하고 중병(重病)이 아니면 일찌기 한번도 궐사(闕祀)하지 않고 목욕(沐浴)을 하고 제사(祭祀)에 임(臨)하였으며 제사일(祭祀日)에 제수(祭需)(제사음식)가 고루 갖춰지지 못하였으면 상심(傷心)하시어 탄식(歎息)만 하시고 제일(祭日)이면 부복(俯伏)하고 슬피 호곡(號哭)하는 소리에 마을 사람들까지 감동(感動)하였으며 공은 정의(情誼)가 도타와서 게으른 모양을 보이지 않으시며 집에 장난감 또는 오락기구(娛樂器具)를 갖추지 않았으며 처세(處世)함에 있어서 항상(恒常) 겸손하시며 다른 사람의 장단점(長短点)이나 과오(過誤)된 일을 말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젊어서부터 독서(讀書)하는데 힘쓰시고 늙어서도 손에서 책(冊)을 놓지 않으시고 마을에 있던 서당(書堂)이 없어져서 다시 크게 서당(書堂)을 세우고 마을 사람들이 날마다 학업(學業)에 열중(熱中)하도록 하여 매월(每月) 一日·十五日에는 이 정자(亭子)에 모여서 강론(講論)하고 또 시험(試驗)을 하여 상벌(賞罰)을 주어 문학(文學)을 율흥(蔚興)하게 하였으며, 여가(餘暇)가 있으면 여러 노인(老人)을 모시고 생선(生鮮)과 좋은 술로 시(詩)를 읊으시고, 또 정담(情談)을 나누며 종일(終日) 즐기시어 이 일보다 더 좋은 일이 없었다고 지금(至今)까지 전(傳)해지고 있다.

일찌기 내가 들으니 나의 숙조(叔祖) 총재공(冢宰公)께서 기사사화(己巳士禍)(기사년(己巳年)에 있던 정치사건(政治事件))를 만나서 관산(冠山)으로 귀양가 계실 때에 공이 가서 뵈오니 부드러운 말씀으로 나는 공과 동년생(同年生)이며 생일(生日)도 다 같이 동월동일(同月同日)인데 궁달(窮達)이 다르니 이 어찌 운명(運命)이 아니겠소. 나는 비록 벼슬이 경상(卿相)에 이르렀으나 공의 일생(一生)은 호산(湖山)에서 청복(淸福)을 누리고 있으니 나보다 나은 것이 아닌가 하였다. 공은 향년(享年)74세를 일기(一期)로 임오(壬午)(西紀1702년)1월16일에 서거(逝去)하시어 동군북립석산신좌산록(同郡北立石山辛坐山麓)에 장사(葬事)하고 공의 부인(夫人)은 죽산박씨(竹山朴氏)로 공과 같이 합장(合葬)하였으며

불행(不幸)하게도 아들이 없으셨으므로 종자(從子) 약호(若昊)를 계자(系子)로 하고 약호(若昊)는 4남1녀(四男一女)를 낳으니 남(男)은 수초(守初) 수중(守中) 수범(守範) 수우(守愚)요, 여(女)는 임상하(林尙夏)에게로 출가(出嫁)하고, 증손(曾孫)은 명직(命直) 명익(命益)은 다 진사(進士)이며, 명덕(命德)이와 명직(命直)이 나를 따라 놀기에 와서 묘지(墓誌)를 청(請)하니 죽림(竹林)의 이름은 들었으나 그 정자(亭子)에는 한 번도 오르지 못하였지만 공의 맑으신 지조(志操)를 사모(思慕)하는 마음에서 위와 같이 서(序)를 하고 다음과 같이 명(銘)을 쓴다.

고가(故家)에 건축(建築)한 정자(亭子)가 높으니 숙질간(叔姪間)의 청직(淸直)(곧은 절개)한 상징(象徵)으로 세상(世上)의 근심 걱정을 버렸도다. 저속(低俗)한 친구를 사귀지 않았으며, 어린 아이를 충후(忠厚)하고 효제(孝悌)하도록 가르치는데 노력(努力)하셨고 호남(湖南)의 풍류(風流)가 또한 호화(豪華)롭도다. 술과 시(詩)로 귀한 손님을 즐겁게 하고 거문고와 글소리로 선비를 양성(養成)하셨다. 이러한 좋은 기풍(氣風)을 내포(內抱)하고 늙으신 후(後)에 이 고장(故場)에서 돌아가셨으니 이 명(銘)을 기록(記錄)하여 공의 덕(德)을 더욱 밝히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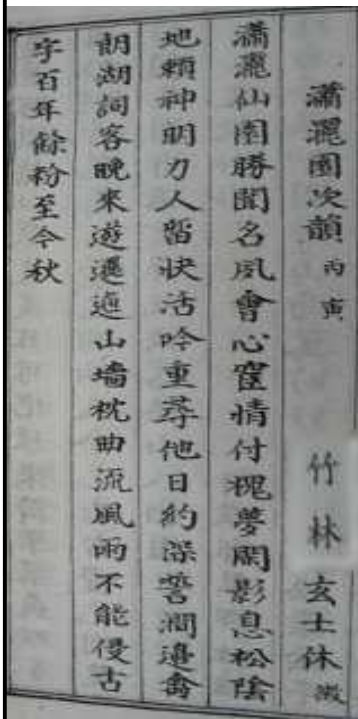
송정갑자(崇禎甲子) 9월에 자헌대부의정부좌참찬겸세자우빈객(資憲大夫議政府左叅贊兼世子右賓客) 이재(李穡)는 찬(撰)하노라.

1686년 담양 소쇄원(瀟灑園)에 죽림공 현징(徵)의 시문이 전하여 오고 있다.

瀟灑園次韻	丙寅	竹林	玄士休徵
소쇄원차운	병인	죽림현사휴징	
瀟灑仙園勝	聞名夙會心		
소쇄선원승	문명숙회심		
소쇄한 선원(仙園)이 좋아서 이름을 듣고, 일찍 마음에 두었다			
官情付槐夢	閑影息松陰		
관정부괴몽	한영식송음		
벼슬 마음은 회안몽(檜安夢)에 부치고 한가로운 그림자는 소나무 그늘에서 쉬게 한다.			
地賴神明力	人留快活吟		
지뢰신명력	인유쾌활음		
이 땅은 신명(神明)의 힘을 입었고, 사람들은 쾌활한 시(詩)를 남겨뒀다.			
重尋他日約	深誓澗邊禽		
중심타일약	심서간변금		
뒷날에 다시 찾아오겠다는 약속을 시냇가의 새에게 맹세하노라.			
朗湖詞客晚來遊	邇迤山牆枕曲流		
랑호사객만래유	리이산장침곡류		
낭호의 시객이 늦게 와서 노니는데, 구불구불 산 담장은 굽은 시내를 베고 있네.			
風雨不能侵古宇	百年餘粉至今秋		
풍우불능침고우	백년여분지금추		
비바람은 옛 글씨를 침노하니, 백년의 남은 분이 이제까지 왔고야			

주(註)

- 소쇄(瀟灑) : 맑고 깨끗함.
- 신명(神明) : 천지의 신령.
- 회안몽(檜安夢) : 순우분(淳于棼)이 꿈에 회안국(檜安國)에 봉해져, 40년 영화를 누렸다 함. 남가일몽(南柯一夢)
- 옛 글씨 : 하서 김인후(河西 金麟厚, 1510-1560)가 소쇄원의 승경을 48영으로 읊었는데, 이 시를 말하며 판각되어 담장에 걸려 있다.
- 낭호(朗湖) : 호남의 낭주(영암의 옛 지명)
- 晦(회) : 그믐
- 소쇄원(瀟灑園) : 제주양씨(濟州梁氏) 집안의 별서정원(別墅庭園)으로 16세기 초 소쇄처사공(瀟灑處士公)이 당시 어지러웠던 세상을 등지고, 담양 지석동(支石洞)에 은거하면서 조성하기 시작, 3대 70여년의 산고 끝에 완성된 대원림으로서, 14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시인묵객(詩人墨客)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은 문화유산이다.



약호 若昊, 18세 성리학자(性理學者) (1659~1709)

11세	12세	13세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20세	21세	22세	23세
분(眞) 감찰(監察) 송화현감(松禾縣監) (~1495)	2 윤명(允明) 사직(司直) (1479~)	구(球) 태인현감 泰仁縣監 (1509-1580)	덕형(德亨) 장사랑將仕郎 계자(系子) 生父 琛침	건(健) 주부(主簿) 계자(系子) 生父 덕옥 (1572~1656)	1 榮後영후 출계 척(倜)							
					2 유후(裕後) 참봉							
					3 진후(振後) (1609-1635)	징(徵) 광릉참봉 (光陵叅奉) (1629-1702)	약호(若昊) 系子 삼벽당	1 수초(守初)	명직(命直) 계자(系子)			
						미(微) 출계영후榮後		2 수중(守中) 不能窩불능와	명직(命直) 출계 수초			



조선후기 문신으로 병자호란을 겪고, 효종, 현종, 숙종代 정치를 주도하였던 인물 문곡 김수항(金壽恒 1629 인조7~1689 숙종15)이 1675년(숙종1) 7월에 영암으로 유배되어 귀양살이 하던 3년 동안 현징(玄徵)의 집에서 묵었는데, 해배되면서 아들인 삼벽당(三碧堂) 현약호(玄若昊~1709 숙종35)와 이별하며 부채에 시를 지어 써 주고(題扇別玄若昊) 떠나면서 읊어 준 시가 전한다.

西湖十里竹園村 / 서호 십 리에 대숲 둘러 마을로
 最憶君家近水軒 / 가장 생각나네 그대 집의 근수헌
 疇昔勝遊那復得 / 지난날의 멋진 놀이 어떻게 다시 해 보나
 白頭今作斷腸猿 / 이 늙은이 지금은 단장의 원숭이인 걸

이때 김수항의 아들로 조선 후기 예조참판, 대제학 등의 관직을 역임하였던 농암(農巖) 김창협(金昌協1651~1708)이 당시 창흡(昌翕)등 여러 형제들과 함께 아버지를 뵈러 그곳에 자주 왕래하면서 현씨 가문과 각별한 인연을 맺었다.

현약호는 삼연 김창흡을 찾아가 삼벽당기를 받아온다. 부친 현징이 김창흡의 부친 김수항에게 죽림정기를 받았으니, 아들인 현약호가 김수항의 아들 김창흡에게 삼벽당기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에서였다. 그 당시 삼연 김창흡은 아버지 김수항이 기사환국으로 두 번째 유배지 진도에서 사사(賜死)된 지라 벽계(壁溪)에 은거하고 있었지만 삼벽당기와 삼벽당 시를 써 주었다.

三碧堂記(삼벽당기)

玄君欽甫從千里命駕訪我於碧溪之中 時方窮陰 衡門之外 雪至尋丈炯然一燈相與作土鏹中語 以已相嗚咽也如是者凡三夜 談話之所 繚繞三周月出山矣臨別欽甫以其堂三碧記爲託余謝以已焚筆硯 則欽甫曰余知子悰緒矣 若他文則敢以煩子字之先君子嘗爲吾翁作竹林亭記 則今其文尙壁上留也子豈忘之哉 吾堂於斯亭卽其同宮 而爰有一松一栢以承其檀欒 蔚然庭翠合焉 若是而名之曰三碧嘗請于尤翁得三大字矣余問尤翁之筆尙在乎曰在曰何從得之欽甫歛歔有間曰是殆尤翁絕筆也耽羅之船明日發而今日寫此 乃在萬德之白蓮寺時鯨濤罷岸 死生在前而人客之自崖送者方且乞字如雲無敢以舍達之說廣尤翁尤翁於此請 似是愛其名之意爲多 以故其筆分外奇勁今揭之 凜乎其霜幹雪莖與庭碧相低昂于以寓俯仰瞻邑之誠 一視諸竹亭文而無間焉 吾堂雖小所重有在爾余斂衽起坐泫然耳應之曰欽甫之屬以此 有言無言之間 皆吾所不忍也 嗚呼 葦嶺之南以際大海先君與尤翁心迹盡此 而公議之在世者至今有未定焉子之父子在南土中特能終始慕用不以禍故而小解 至使片蹄殘墨 無恙崑丘烈燼之餘而碧紗璇額之奉邂逅 情神之斯會 夫存其蹟所以慕其人慕其人 所以崇其道 崇其道所以勸其操 是其爲心之貞雖謂之獨也青青可也以是心處斯堂 吾知其無所愧矣亦見其所寄者遠矣石室之茂華陽之悅先君與尤翁 蓋嘗以此託契矣子之家庭竹林之韻 又將 與之不衰廣而言之是又三碧之義也 嗚呼其奇矣今不以山川有間隔不爲寒暑所移奪雖百年可如一日雖千里可視一堂 惟我兩家爲同調者如此而若 吾所居最爲陰峽耳寒松苦栢澗谷所不乏 獨不得此君而參焉 其將盤桓於此而矯首南雲以寄清血於風玉之所而已

三淵 金昌翁 謹記

현 군 흠보(약호, 19世孫)가 천리 길에 가마를 명하여, 벽계(槩溪)에 있는 나를 방문하였다. 때는 바야흐로 엄동설한이라 문(門)밖에는 눈이 질로 왔었다. 등 하나를 밝히고, 서로 토좌(土鏹 : 질 그릇의 화로)를 가운데 놓고, 말을 하다 서로 오열하였다. 이와같이 하기를 무릇 3일 동안 하였으니, 담화를 한 곳은 월출산이 둘러 있는 곳이었다. 작별할 때가 되어, 흠보가 그 당을 삼벽이라 말하며, 기를 써 줄 것을 부탁하였다. “나는 이미 필연을 불살랐다”하고 사양하니, 흠보가 말하기를 “나는 그대가 계통을 좋아하는 것을 아네. 만일 ”다른 글이라 하면 감히 그대를 고민하게 하겠는가.”하면서 다시 말하기를, 그대의 아버지께서도 일찍이 나의 아버지를 위해 죽림정기를 지었으니, 지금 그 글은 오히려 벽 위에 남겨져 있는데, 그대도 잊지 않으셨겠지? 내 당(당)도 이 亭子(정자)와 즉 그 同宮(동궁)이니 이에 한 소나무와 한 잣나무가 있어, 그 단란함을 이어서 우연히 정원에 푸른빛을 합하였다네 이와 같으니 그것을 이름 짓기를 ‘삼벽’이라고 하여 일찍이 우 옹(송시열)에게 청하여 세 개의 큰 글자를 얻었다.”라고 하였다. 나는 “우 옹의 필체가 아직도 있는가?”라고 물으니, 흠보는“있다”라고 하였다. 나는 “어떤 연유로 그것을 얻게 되었는가?” 물으니, 흠보는 한숨을 내쉬면서, 사이를 두어 말하기를 “이것으로 거의 우 옹은 절필(絶筆)하였다. 탐라(耽羅 : 제주도)로 가는 배가 내일 출발하는데, 오늘 그것을 써주었다” 강진 만덕(萬德)의 백련사(白蓮寺)에 있을 때, 고래 등 같은 파도가 연안까지 쳐서 생사가 목전에 있는데, 손들이 언덕쪽으로부터 와서 글씨를 써 달라고 걸구하는 사람이 구름같이 몰려 있을 때, 감히 차분한 말로, 우 옹(송시열)에게 장광설하여, 우 옹이 이 같은 청에 그 이름의 뜻을 많이 사랑하여, 그 필력을 발휘 과분하게도 기이하고 강하게 써서 주었으므로, 이제까지 걸어 놓았으나, 그 늠름함이 서리발 치고, 뜰 가의 송백은 푸르름을 서로 낮게 빛나니, 부앙하며 쳐다보는 고을 사람의 정성이 한 번 보아도 모든 죽정의 문사들과 거리감이 없다 하였다. 이 당은 비록 작으나

소중함이 있었으므로, 나는 옷깃을 거두고 일어났다. 앉으며 눈물을 흘리면서 그에 응하여 말하기를 흠보가 이같이 부탁하는데, 말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내가 못하겠다. 라고 차마하지 못하였다. 아! 장성 갈 때 남쪽 큰 바다 끝에 내 아버지와 함께, 우 옹의 자취가 이곳에 다 있으나, 세상 공의는 정해지지 않았고, 그대 부자(父子)가 남쪽 선비 가운데 있어, 특히 종시(終始) 능히 모용 하였으며, 화를 당하지 않았으나, 조그마하게 남은 먹 조각에 하염없이 활활 타다 남은 곤구 벽사와 선액을 받들어 해후하게 되니, 정신이 이에 모여진다. 그 자취가 상존함은 그 사람을 추모함이요. 그 사람을 추모함은 그의 도를 숭상함이요. 그 도를 숭상함이란 그 지조의 따름에 힘 쓴다는 것이니, 이것이 그 마음을 곧게 하는 것이므로, 비록 독야청청이라고 하더라도 가하다고 말할 것이다. 이러한 마음이 이 당에 처해 있으니, 나는 그 부끄러움이 없는 바를 알만하며, 또한 그 먼 때부터 뜻을 부쳐 왔음을 볼 수 있다. 석실과의 성함과 화양과의 즐거워했음을 내 아버지와 함께 우암과도 일찍이 이곳과 탁계(託契)해서 지내셨으며, 그대의 가정에 죽림의 운을 장차 주어서 정의가 쇠하지 않았으니, 널리 말해서 또한 이것이 삼벽의 뜻이기도 하다. 아! 그 기이한 것은 지금도 산과 냇의 사이가 막히지 않아서, 출거나 덩거나 이탈하지 아니하고 비록 백년이라도 하루같이, 비록 천 리 길이라도, 가히 이 당에 와 보니 오직 우리 두 집안은 함께 조화해 온 것이 이 같으므로 내가 사는 곳이 가장 음협하다. 이곳에 찬 솔과 패로운 잣나무는, 시냇가에나 고을에서 궁핍하지 않으니, 나 같은 사람은 이 사람 같이 참 내 하기를 얻지 못할 것이므로 장차 이곳을 주저하면서, 남쪽에서 피어나는 구름을 머리에 들고, 청혈과 풍옥 지소를 향하여 볼 마음뿐일 것이라.

삼연 김창흡 근기

三碧堂 詩(삼벽당 시)

苦竹與松柏 참대와 소나무 그리고 잣나무
不曾桃李顏 복숭아꽃이나 배꽃과 다르지만
知君三碧號 푸른 세 가지 삼벽이라는 이름 알고 나니
用意雪霜間 눈서리 내려도 그 뜻은 푸르다

그러한 인연으로 현약호는 아들 현수중(玄守中)을 양주(楊州) 석실(石室)에 거주하는 김창협과 김창흡에게 보내서 학문을 익히게 하였다.

1694년 12월, 농암 김창협은 현약호가 다시 석실로 찾아오자 시를 써서 건넸다. 김창협이 지어 준 긴 시를 보면 부친 김수항이 진도에서 사사 당한 후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의 심사가 애절하기만 하다.

농암집 제4권 / 시(詩)

자익(子益)의 시에 차운하여 현생 약호(玄生若昊)에게 주다.

첫 번째

未死終相見 逢君祗苦顏 죽기 전에 그대 다시 볼 수 있기를 고대하다 만난 그대 처량하여라
氷霜又歲暮 涕淚尙人間 게다가 얼음 서리 매서운 세밑 죽지 못해 흐느끼며 살아간다오
海遠鳩林里 雲寒石室山 구림 마을 해변 가 아련히 멀고 석실 산골 구름 빛 쌀쌀하여라

蒼茫去留意 秉燭夜深看 가는 사람 남는 사람 아쉬운 뜻을 깊은 밤 촛불 아래 더듬어보세

두 번째

苦竹與松柏 不曾桃李顏 참대와 소나무와 측백나무는 보기 좋은 복사 오얏 그와 다르니
知君三碧號 用意雪霜間 알고말고 삼벽당 그대의 호는 눈 속에도 푸른 데에 뜻이 있음을
卽此同肝膽 何論隔海山 여기서 우리 마음 서로 맞으니 산과 바다 막힌 것을 논할 것 있나
殷勤護勁節 直到百年看 그대여 굳은 절개 고이 보전해 이대로 한 백년 변치 말기를

세 번째

往事那能憶 惟餘淚逐言 쓰라린 과거 어찌 회상할쏘냐 말만 하면 눈물이 쏟아지는 걸
深知不如死 尙有未收魂 죽는 게 낫다는 걸 깊이 알면서 아직도 놀란 가슴 진정 못하네
爲海桑田幻 衝星劍氣存 상전벽해 세월이 바뀐다 해도 별 찌르는 검 기운 가시지 않아
人間何可託 永欲謝啾喧 인간 속 그 어디에 이 몸 부칠꼬 웅성대는 세상을 하직하고파

네 번째

氷路透遲馬 寒燈款曲言 빙판 길 비실비실 말을 몰아와 차가운 등불 아래 정담 나누네
銜恩曾至骨 念別欲銷魂 받은 은혜 일찍이 뼈에 스미어 작별을 생각하니 뉘이 녹을 듯
海闊鴻飛得 山深鹿視存 그대는 기럭 따라 남해로 가고 나는야 사슴 밧해 산골에 남아
悲吟向遙夜 喧松籟曉窓 밤 깊도록 서글피 시를 읊자니 새벽 창에 솔바람 정적을 깨네

다섯 번째

每憶匡山讀 能忘岬寺幽 광산 독서 언제나 생각이 나니 도갑사(道岬寺)호젓함을 잊을 수 있나
朝吟松上雪 夜漱竹間流 아침이면 술 위에 덮인 눈 읊고 저녁에는 대숲 물로 입을 헹궜지
過去誰非夢 吾生久覺浮 과거사 그 무엇이 꿈이 아니라 인생살이 덧없음을 진즉 알았네
從君更借問 幾箇有同游 그대 통해 또다시 물어보거니 함께 놀던 옛 친구 몇이 남았나

[주-D001] 자익(子益)의 …… 주다:

현악호(玄若昊)는 자는 흥보(欽甫), 호는 삼벽당(三碧堂), 본관은 연주(延州)로 현미(玄微)의 아들인데 백부 현징(玄徵)의 후사로 들어갔다. 작자보다 8년 연하이다. 전라도 영암(靈巖) 월출산(月出山)의 서쪽 구림리(鳩林里)에서 살았다. 김수항(金壽恒)이 작자 25세 때인 1675년(숙종1) 7월에 영암으로 유배되어 귀양살이하던 3년 동안 현징의 집에서 묵었는데, 이 당시 작자는 김창흠(金昌翕) 등 여러 형제들과 함께 아버지를 뵈러 그곳에 자주 왕래하면서 현씨 가문과 각별한 인연을 맺었다. 그리하여 현악호는 아들 현수중(玄守中)을 양주(楊州) 석실(石室)에까지 보내 작자와 김창흠으로부터 학문을 익히게 하였다. 이 시는 1694년 12월 현악호가 석실로 찾아와 오랜만에 서로 만났는데, 김창흠이 먼저 “눈물을 훔치면서 함께한 자리, 등불 아래 옛 얼굴 완연하구나.[拭淚方同席 明燈宛舊顏]”로 시작하는 시와 “지난 일 회상하면 눈물이 줄줄, 남쪽에서 있었던 일 차마 말 못해.[往事無涯淚 南中可忍言]”로 시작하는 시 두 수를 짓자, 작자가 그 시에 각각 두 수씩 차운하고 아울러 다른 운자로 한 수를 더 추가하여 현악호와의 깊은 정의를 표현하였다. 《屏溪集 卷53 三碧堂玄公墓誌》 《三淵集 卷5 玄欽甫……輒以一詩剖懷》

[주-D002] 삼벽당(三碧堂) 그대의 호:

삼벽당은 세 가지가 푸른 집이라는 뜻으로, 현악호가 자기가 살고 있는 구림리의 사시사철 푸른 빛을 띠고 무성하게 자란 참대, 소나무, 측백나무의 의미를 취해 자신이 붙인 호이다.

[주-D003] 별 찌르는 …… 않아:

본디 보검은 깊이 숨겨져 있어도 본질은 숨길 수 없어 그 빛이 밤하늘의 별을 향해 쏘아댄다는 뜻에서, 흔히 버려진 뛰어난 인물이 은연중에 그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다는 비유로 쓰인다. 그러나 여기서는 작자가 기사환국으로 억울하게 가문의 화를 당한 이후 여러 해가 흘렀으나 가슴에 미어지는 울분이 가시지 않는다는 뜻으로 쓴 것이다.

[주-D004] 광산(匡山) 독서:

광산은 중국 성도부(成都府) 창명현(彰明縣) 북쪽에 있는 대광산(大匡山)으로, 당나라 이백(李白)이 젊었을 때 글을 읽었던 곳이다. 두보(杜甫)가 성도에 가서 이백을 그리며 지은 〈불견(不見)〉 시에, “글 읽었던 이곳 광산에, 이제 늙은 그대여 돌아오구려.[匡山讀書處 頭白好歸來]” 하였는데, 흔히 소년 시절에 글을 읽었던 곳을 가리킨다. 작자도 젊었을 때 유배된 아버지를 따

라와 월출산 기슭에서 글을 읽었으므로 이를 인용한 것이다.
 [주-D005] 도갑사(道岬寺):
 영암 월출산에 있는 절로, 작자가 1675년 8월 월출산을 유람할 때 들렀다.

농암집 제4권 / 시(詩)

현생(玄生)이 떠날 때 절구 세 수를 지어 그의 부친에게 전달하게 하다

첫 번째

征馬南行背朔風 / 북풍을 등지고서 남쪽 멀리 떠나는 말
 到時春滿竹林中 / 당도하면 대숲 속에 봄기운 가득하리
 趨庭樂事何由羨 / 부모 슬하 즐거움을 선망조차 못하거니
 天地茫茫我獨窮 / 아득한 천지간에 나 홀로 아비 없네

두 번째

二十年前逐我翁 / 이십 년 전 조정에서 내쫓긴 우리 부친
 謫居曾不似湘中 / 유배지 귀양살이 상중 같지 않았거니
 曹家園好留陳跡 / 조씨 댁 동산에다 발자취를 남기었고
 玄老書頻見至衷 / 현씨 노인 보낸 글에 깊은 정을 느끼셨네

세 번째

枯形兀兀已成翁 / 감정이 식어진 채 노경에 접어든 몸
 往事思量每熱中 / 과거사를 회상하면 가슴이 뜨거운데
 回首鳩林餘一老 / 돌아보니 구림에 노인 한 분 생존하여
 數行詩札訴危衷 / 몇 줄의 시찰로 깊은 충정 호소하네

[주-D001] 유배지 …… 않았거니:

상중(湘中)은 중국 남쪽 초(楚)나라 상수(湘水) 지역으로, 초나라 굴원(屈原)이 간신의 모함으로 조정의 요직에서 내쫓겨 상수 근처에서 쓸쓸한 나날을 보내다가 울분을 견디지 못한 나머지 상수의 역라연(汨羅淵)에 몸을 던져 자살하였다. 우의정으로 있던 김수항이 모함을 받고 남쪽 멀리 영암으로 유배된 일이 굴원의 경우와 비슷하지만, 실제 귀양살이는 그곳에 사는 조경찬(曹敬燦)과 현징(玄徵) 등의 각별한 배려에 힘입어 굴원처럼 쓸쓸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주-D002] 시찰(詩札):

시로 쓴 편지로, 서찰(書札)과 대비되는 말이다. 곧 시로써 서로 간의 뜻을 주고받는다는 말이다.

연주현씨 최초의 대동보인 정유보(丁酉譜)의 서문을 쓴 구암 윤봉구(1681-1767)의 시문집인 병계집(屏溪集)에 삼벽당 현약호의 묘지명이 실려있다.

屏溪先生集卷之五十三 / 墓誌

三碧堂玄公 若昊 墓誌 乙酉 a205_024b

湖南之朗州郡。有月出山。峯巒矗矗藍青。望之蔚然蔥蘢。其一麓西走而爲鳩林村。村窈窕寬曠。大湖涵其南。有雲烟風帆之盛。魚蟹黍稻之饒。村之北。又有所謂三碧堂者。脩竹千挺。與長松翠栢蒼鬱庭除。堂之名。蓋以此也。玄公諱若昊。讀書講義於其中。己巳。尤庵宋文正先生謫耽羅。公請書其堂額。先生聞三碧之所爲號。特書三大字。其下又書崇禎年月。還之曰。欲題數行語。勉其志操。恩慙未能。此所以志之也。君子以爲月出之清特。鳩林之爽塏。堂擅其名勝。 a205_024c 公爲其主人。大賢之嘉歎贊美又如此。堂之勝公之人可知。而歲寒之操。公雖托於三碧。三碧亦得公而顯云。公字欽甫。鼻祖諱覃胤。延州人。以麗朝將軍。威德及胡虜。著在麗史。其子尙書德秀有討賊功。封星山君。子孫世焉。其後自嶺南遷居湖西。至六世祖司直允明。又遷朗州。曾祖諱健。朝廷聞其隱居行義。官主簿。祖諱振後。考默齋諱微。娶順興安氏文成公後槩之女。孝廟己亥生公。出爲伯父參奉竹林諱徵後所後。妣竹山朴氏。其考處士晉彬。竹林公教督不

怠。未成童。文藝著聞。文谷金公謫本郡。館于竹林公。 a205_024d與農，淵，圃，稼諸公。或連榻蕭寺。講劇經史。或周遊名勝。唱酬詩律。有聲子之好。事父母孝。味爽盥櫛。先詣竹林公所。問起居。次詣母所。省視如之。間遭內艱。執禮甚嚴。哭泣之哀。鄉里爲之感焉。葬之日。又遭默齋公喪。毀幾滅性。邁厲病劇。猶不御草木滋。竹林公泣勸然後乃少進。及竹林公喪。哀慕視前。雖菜羹之類。味少悅。輒不食。羸毀日甚。遂病膏肓。篤於奉先。嘗倡議捐財。立祭田祀遠祖。與人交。主忠信重然諾。人有過者。面言不少饒。善文詞。遊試院輒上游。竟不利南省。少慨然有意於向上工夫。每歎僻陋之居。難於獨 a205_025a學。農巖嘉其志。贈言以勉之。嘗送仲子從農巖學。間更送學三淵於雪岳。又書三淵訂山中約。遽以己丑二月二十三日歿。三淵以詩哭之。孺人贈參判延安李好仁之女。青蓮公玄孫也。貞正端淑。甚有婦行。公葬再卜於郡北立石先壟負卯原。孺人祔焉。四男守初早塲。守中卽從農淵學者。有高行。守範，守愚。性至孝。十三。不勝喪夭。一女適林尙夏。命直，進士命德。適生員吳光源，吳益源者。仲房二男二女。而命直爲長房後。命益。適鄭宅東者。三房一男一女。林達遠，達遠，喆遠。適李揆宅，李匡燮者。自出也。命直男鎮漢，鎮 a205_025b澤。命德男鎮渤。內外曾玄摠若干。公剛毅骯髒。言論落落不苟。既屢屈有司。且見世道漸下。無進取意。日居三碧堂中。左右圖書。翛然清坐。哀聚先賢遺墨。手糲以自娛。時與里社心朋。聯翩吟弄。有超然塵白之意。噫。卽其外而存乎內者可知。古人云不見其山。見其草木。公與農淵兄弟遊。期與甚摯。契好又篤。農巖贈公詩曰。知君三碧號。用意雪霜間。卽此同肝膽。何論隔海山。三淵詩則曰。竹亭交誼可通神。月嶽雖遐視我鄰。二公有鑑識少許可。而其知公者如此。是真可以知公也。余衰病僻遠。足不到月出鳩林之間。每 a205_025c有物外遐想。今命直手公狀來。謁誌文。余於三碧二字。不勝曠感之懷。已就先生大筆之下。謹敘先生所以志者。於此又何可辭也。遂略書之。俾作幽竊之誌。命直承繼家學。有名士友間。崇禎三甲申季冬。坡平尹鳳九述。

현악호을 묘지명 요약해보면,

호남의 랑주군(朗州郡)에는 월출산(月出山)이 있습니다. 산봉우리는 뾰족하게 솟아 있고, 그 색은 푸르디 푸르며 멀리서 보면 푸르고 울창한 숲처럼 보입니다. 산의 한쪽 기슭을 따라 서쪽으로 가면 '구림촌(鳩林村)'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은 아담하고 널찍하며, 큰 호수가 그 남쪽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곳은 구름과 안개가 일어나고, 풍량이 거세지기도 하며, 물고기와 게, 벼와 조가 풍성하게 자라는 곳입니다. 마을의 북쪽에는 '삼벽당(三碧堂)'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 천 개의 대나무와 길고 푸른 소나무가 우거져 있습니다. 그 당호는 바로 이 풍경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당주인인 현공(玄公)의 이름은 '若昊'이고, 그곳에서 독서와 학문을 강의하였습니다. 기사(己巳)년, 송문정(宋文正) 선생이 탐라(耽羅)로 귀양을 가면서, 현공은 선생에게 당의 현판을 써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선생은 삼벽당의 이름을 듣고 특별히 '삼벽'이라는 세 글자를 써주었고, 그 아래에는 '崇禎(송정) 년월'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몇 줄의 글을 썼습니다. 이 글은 공의 뜻과 품성을 격려하려는 마음을 담고 있었으며, 공은 이에 대해 감동하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 당의 아름다움과 공의 품성을 알 수 있습니다.

공의 글씨와 인간됨됨이를 통해, 그가 삼벽당을 통해 나타내고자 했던 이상적인 삶의 표상은 분명해집니다. 현공의 출신은 연주(延州) 사람으로, 선조는 고려의 장군으로 명성을 떨친 분입니다. 그의 아버지, 조부, 고조는 모두 높은 명성과 덕망을 자랑하는 인물들이었습니다. 현공은 어린 시절부터 글을 잘하고, 예의를 중시하며,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의 성품은 매우 성실하고, 자신이 처한 환경과 여건에 대해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삼백당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그 안에서 스스로를 다듬고, 고독한 학문을 추구했습니다.

金嬌一子主簿和行。俞嬌三子漢嚴漢廉漢岑。三女黃桺李模金諄。以大二男一女。至大男女各一。致大早死無後。夫人卒于壬子三月二十七日。距其生甲辰爲六十九。與大諫公同寢溫陽廣德山東麓。向之原嗚呼。仲明余同門友也。始期其俊邁有成。益不勝惜其無年也。以其從遊之久。曾蒙夫人截髮之供。而亦嘗因仲明聞夫人之懿德者多矣。今於夫人誌墓之役。愴念亡友之舊誼。何忍爲辭。況至大以諸婦人之命托之。則事體又不敢終已。遂據至大因其教爲狀者。謹書之如此云。

屏溪集 卷之五十三

三碧堂玄公 若昊墓誌 乙酉

湖南之朗州郡。有月出山。峯巒轟轟藍靑。望之蔚然。蔥龍其一麓。西走而爲鳩林村。村窈窕寬曠。大湖涵其南。有雲烟風帆之盛。魚蟹黍稻之饒。村之北。又有所謂三碧堂者。脩竹千挺。與長松翠栢蒼鬱庭除。堂之名。蓋以此也。玄公諱若昊。讀書講義於其中。己巳。尤庵宋文正先生謫耽羅。公請書其堂額。先生聞三碧之所爲號。特書三大字。其下又書 崇禎年月。還之曰。欲題數行語。勉其志操。恩恩未能。此所以志之也。君子以爲月出之清特。鳩林之爽塏。堂擅其名勝。



호연재(浩然齋)

현씨의 문중 재실로 현진후(玄振後)·현징(玄徵)[1629~1702]·현약호(玄若昊)[1659~1709]·현수초(玄守初)의 신위를 모시고 있다. 1935년에 건립되었고, 1995년 삼문[죽림문(竹林門)]을 중건하였으며 2011년에 중수했다. 호연재 뒤편 문중 선산에는 1684년에 세워진 '성균진사 행광릉 참봉 성산 현공 묘지명(成均進士行光陵參奉星山玄公墓誌銘)'을 비롯한 여러 묘비들이 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 - 향토문화전자대전



18世 若昊(약호) 묘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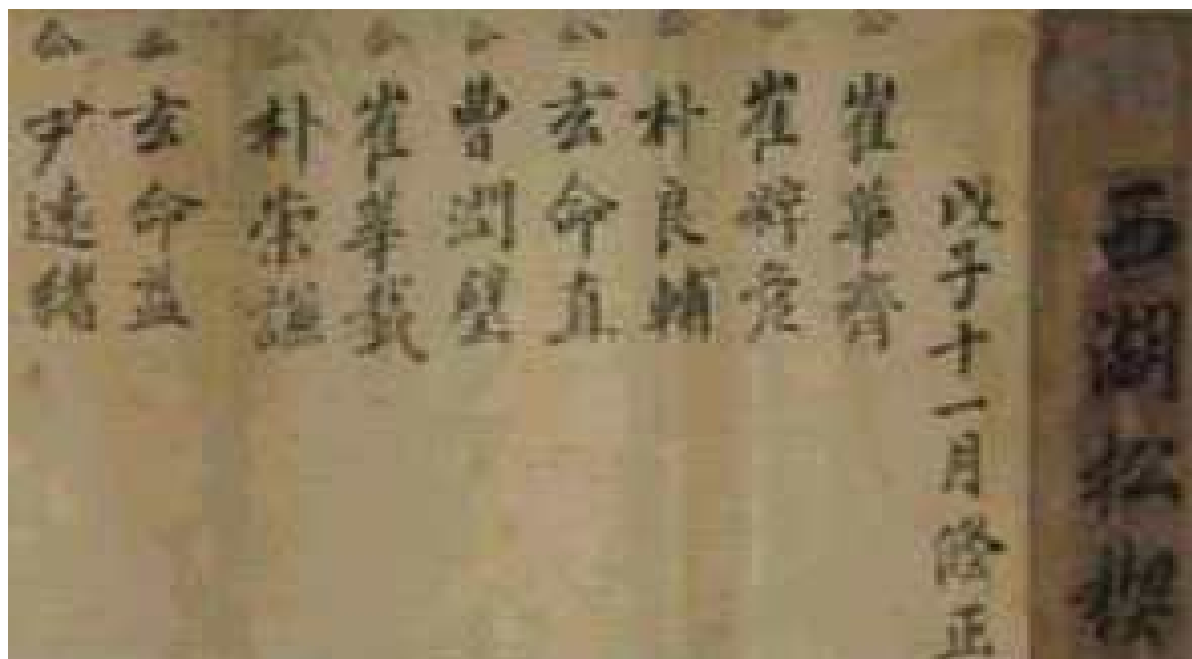


19世 守初(수초, 약호의 아들) 묘소

명직 命直, 19세 구림 대동계원 1710~1772

약호(若昊)의 손자이다. 자(字)는 자경(子敬). 도암(陶菴) 이재(李穡, 1680~1746)의 문하생이다. 구림 대동계원이며, 西湖松契(서호송계)가 1768년(영조44) 창계(創係)할 때 命益(명익)과 함께 創係員(창계원)을 하셨다. 서호송계는 구림을 중심으로 일했는데, 문산재 답과 재산 운영, 동서구림 도로, 사산의 풍치림, 서호정, 당산제, 구림천, 마을의 환경 등을 보수유지 관리했다고 전한다. 1747년 정묘보 편수 당시 시조(始祖)와 본관(本貫) 개서에 대한 문목(問目)을 각고 구암 윤봉구를 찾아갔다.

松契名案(송계명안, 1768년)



구림 대동계(大同契)는 한국 고유의契(계)에 중국에서 전래된 鄉約(향약)을 접목한 마을 자치 조직이다. 최초 향약으로 알려진 退溪(퇴계)의 禮安(예안) 鄉約(향약)보다 9년 늦은 1565년(明宗20) 창설되어 중단되었으나 1609년(광해1) 현건(健, 15세) 등이 주축이 되어 契를 重修(중수)했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의 수군에 전쟁물자를 공급하기도 했다.



19世 守中(수중) 묘소



20世孫 命直(명직) 묘소

12세	13세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20세	21세	22세	23세	24세	25세	26세	27세	28세	29세	30세
윤명 允明 부사직 副司直 1420~	구球 현監 縣監	덕형 德亨 장사랑 將仕郎 계자 系子 生父 琛침	건健 주부 主簿 계자 系子 生父 덕욱	유후 裕後 참봉	1 휘	2 약천	2 수추	1 명은	1 진회	1 부천	1 상우	4 기목	1 기영	1 종호	2 영은	3 有植유식	1 유미	
				진후 振後	징徵 광릉참봉 光陵參奉	약호 若昊 系子 삼벽당	1 수초 守初	1 명직 命直 계자	1 鎮漢 진한	1 淸明 부명	1 相周 상주	1 時默 시묵	1 基龍 기룡	1 奉鎬 봉호	1 永昌 영창	1 三植 삼식	1 時岸 시안	1 斗彬 두빈
										2 부인	1 상일	1 연목	2 기순	2 00	1 영은	1 천식千植	1 광휘	
																2 千變천섭		
										1 淸行 부행	2 相舜 상순	1 定默 정묵	1 在明 재명	1 哲鎬 철호	1 永郁 영옥	4 植식	1 炯勳 경훈	1 昇在 승재
										2 부해	1 상직	2 주목	1 기혁	1 세호	3 영선	3 一材일재	1 혁	
										3 부철	3 상봉	1 승목	1 기식	1 인호	3 永松영송	1 진옥	1 주원	
												5 필목	2 기환	2 忠鎬충호	1 경석	1 승민		
										4 부원	1 상영	1 태목	1 기종	3 점호	1 汶禎문정	1 은지		
													1 기문	1 민호	1 永標영표	1 수현		
										2 부해 淸海	1 상직 相稷	1 인목 麟默	1 基東 기동	1 龍鎬 용호	1 永宰 영재	1 宗植 종식	2 炳哲병철 인권위원장	1 우석
												2	1	2	1	1	1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삼식 三植, 28세.

병철 炳哲, 29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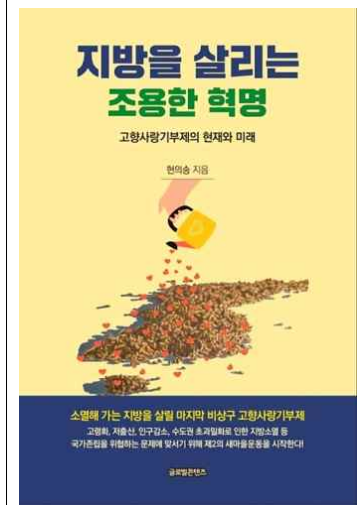




의송 義松, 27세.
 농협신용대표이사, 농민신문사장, 제7대 연주현씨대총회장

호 송암(松岩), 1942년임오壬午10월20일 생, 서울대농과대학졸 농협중앙회 동경사무소소장, 농협전남본부장, 농협상무, 농협신용대표이사, 농민신문사장, 한일농업농촌문화연구소 대표이사, 대통령포장 수상 저서(일본의농업농촌, 농업을 버리면 자존심도 잃는다, 밥상경제학, 농촌에 희망이 있다, 6차산업을 디자인하라, 키워에서술개로 등). 논문(대안적농식품체계로서신토불이운동의재해석)





준호 俊鎬, 26세. 호남은행장, 중추원 참의.

경제 인물 일제강점기 전라남도 도평의회원, 호남은행 은행장, 중추원 참의 등을 역임한 관료. 금융인 · 기업인

1889년 8월 29일 전라도 영암에서 출생했다. 호는 무송(撫松)이다. 본관은 성산(星山)으로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지낸 현기봉(玄基奉)의 2남 3녀 중 막내다. 일제강점기에 전라남도 도평의회원, 호남은행 은행장, 중추원 참의 등을 지냈다. 1950년 9월 28일 전라남도 광주에서 인민군에게 사살당했다.

어릴 때 한학을 수학하였고 9세에 아버지를 따라 목포로 이주했다. 1906년 6월부터 전라남도 창평에서 김성수(金性洙)의 장인 고정주가 설립한 영학숙(英學塾)에 들어갔다. 여기에서 김성수, 송진우(宋鎭禹), 김병로(金炳魯)와 교유했다. 영학숙을 마치고 1907년 3월 휘문의숙(徽文義塾)에 입학했다. 1912년 1월 휘문의숙을 졸업한 뒤 1912년 4월 일본 메이지대학[明治大學] 예과를 입학해서 1914년 메이지대학 법률학과로 진학했다. 일본에서 송진우가 회장으로 있던 호남다화회(湖南茶話會)에 가입해 김성수, 장덕수(張德秀), 최남선(崔南善), 신익희(申翼熙), 조소앙(趙素昂) 등과 교유했다.

1917년 4월 메이지대학 법률학과를 중퇴하고 귀국했다. 1919년 7월 호남은행발기회 총회에서 발기인 겸 총대를 맡았고, 12월 조선경제회 상무이사를 맡았다. 1920년 2월 자본금 150만원의 호남은행 설립 허가를 받았고, 4월 동아일보사 창립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8월 호남은행 창립총회에서 취체역 겸 전무취체역을 맡아 실질적으로 운영했는데, 광주·목포지점에 이어 1922년 순천지점, 1926년 장성출장소를 개설하여 영업지역을 확대했다.

1920년 11월 전라남도 광주군 광주면 면협의회의원으로 선출되었다. 1921년 보성전문학교 감사, 7월 임시 조선인산업대회 지방위원, 9월 (주)동아일보 감사에 위촉되었다. 같은 해인 1921년 전라남도 육영회를 설립해서 이사장을 맡았고, 1922년 광주번영회 회장에 취임했다. 1923년 5월 조선민립대학기성회 광주지방부 회금(會金)보관위원을 맡았다. 9월 가옥을 신축하며 낙성식에 쓰려던 2,000원을 서선(西鮮)수재구제(500원), 동경진재구제(東京震災救

濟)(500원), 광주사립보통학교(300원), 목포사립보통학교(300원), 광주여자야학교(100원), 광주노동야학교(100원), 광주유치원(100원), 광주보육원(100원), 광주소방조(消防組)(300원), 목포소방조(200원) 등에 모두 기부를 했다. 11월 광주면 면협의위원으로 선출되었고, 12월 소작료를 경감하고 지세를 전부 자담(自擔)하였다.

1924년 4월 관선 전라남도 도평의회원에 임명되었다. 7월 현기봉이 사망하자 수확량이 7,000섬에 달하는 토지를 포함해 모든 재산을 물려받았다. 현기봉의 호를 따서 학파(鶴坡) 농장을 건립하고 소유지를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농업경영을 개선했다. 대개 선대부터 소작인이 농장을 경작하였는데, 소작료가 주변 농장에 비해 저렴한 편이었으며 적극적인 농사지도와 품종개량 등을 통해 수익률을 증가시켰다.

1926년 5월 전남도시제사(全南道是製絲)(주) 취체역, 조선생명보험(주) 감사역을 역임했고, 10월 학산공립보통학교 신축비로 1,400원을 기부해 일본 정부에서 주는 포장(褒狀)을 받았으며, 같은 해 전라남도 농회 고문을 맡았다. 1927년 민선 전라남도 도평의회원 선거에 당선되었고, 5월 광주여자고등보통학교를 세웠다. 1928년 10월 조선총독부 광주부에서 광주공설운동장 기부금 모집 때 일본인보다 한국인에게 더 과다하게 부담시키는 것을 반대해 도평의회원, 면협의위원, 광주번영회장 등 10여 개의 모든 공직을 사임했다. 11월 쇼와[昭和] 천황 즉위기념 대례기념장을 받았다. 1929년 2월 제출했던 사표 일체를 돌려받았으며, 3월 영암운수창고주식회사 취체역과 5월 조선박람회 평의원을 지냈다.

1930년 1월 호남은행 두취(頭取: 은행장)에 취임했다. 6월 조선총독 자문기구인 중추원의 주임관 대우 참의에 임명되어 해방될 때까지 재임하면서 매년 600원의 수당을 받다가 1939년 6월부터 1,200원, 1944년 12월부터 1,800원으로 올랐다. 1932년 9월 조선유교회 명리원 의정을 지냈고, 10월 중추원을 조선의회로 바꾸어 자치제를 실시하자는 건의서를 중추원에 제출했다. 1932년 6월부터 학파농장 주도로 간척지 사업에 착수해 영암면 춘동리와 호포리 앞바다 100정보를 매립하기 시작했다.

1933년 호남은행이 동래은행을 흡수·합병하였는데, 자본금을 200만원으로 증자해 경상도까지 영업지역을 확대하고 지점을 신설하여 주요 금융기관으로 성장했다. 그해 3월 조선나예방협회(朝鮮癩豫防協會)에 1,000원을 기부해서 일본상훈국에서 포장을 수여했다. 4월 남조선철도주식회사 취체역과 전라남도 수산회 부회장, 7월 중추원 시정연구회 경제부 위원으로 활동했다.

1934년 5월 학파농장을 합명회사 형태로 법인화하여 사장에 취임하고, 영암군 춘동리와 호포리 간척사업을 마무리했다. 5월 조선생명보험주식회사 취체역이 되었고, 그해 국방의회 전라남도연합회 부회장에 위촉되었다. 1935년 춘동리와 호포리 간척지와 인접한 영암군 미암면 신포리 간척사업을 착수해서 1936년 5월 완공했다. 1935년 10월 시정 25주년 기념표창과 은배(銀杯)를 받았다. 1936년 2월 광주부교육회 명예회원, 3월 산업경제조사회 위원, 9월 광주번영회 평의원으로 활동했다.

1937년 4월 광주보호관찰심사회 위원, 『동아일보』 취체역, 경성방직주식회사 취체역을 맡았고, 9월 학무국이 주도하여 중일전쟁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제2회 전조선시국강연반에서 전라남도 담당으로 활동했다. 12월 아들 결혼식을 치르고 남은 500원 가운데 출정군인 유가족에게 200원, 광주제일보통학교 봉안전(奉安殿) 건조비에 200원, 광주제이보통학교에 100원을 기부했다. 같은 달 조선총독부 시정 25주년기념박물관 건립비로 1,000원을 기부해서 일본 정부로부터 포장을 받았다. 그해 전라남도 군사후원연맹 부회장, 국민정신총동원 전라남도연맹 이사장에 임명되었다.

1938년 4월 전남특별지원병후원회 부회장, 5월 응소군인 위원금으로 광주헌병대에 1,000원을 헌납했다. 8월 시국대응전선사상보국연맹 광주지부 결성식에서 지부장, 시국대책조사회 위원, 10월 호남제탄주식회사 취체역, 11월 전남산업주식회사 취체역을 지냈다. 1938년 6월 경 소유자산은 광주·장흥·강진·해남·영암·무안군에 논 673정보, 밭 40정보 등 총 713정보의 학파농장을 비롯하여 순자산 110만원과 개인명의 자산 62만원 등이었다. 1939년 4월 2,000원에 상당하는 금품을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에 기부했고 5월에도 처가 1,000원에 상당하는 금품을 조선군애국부에 헌납했다. 6월 중앙협화회 평의원, 11월 조선유도(儒道)연합회 상임이사, 경성축산(株) 취체역, 12월 남만방적(株) 감사역을 역임했다.

1940년 3월부터 영암군 군서면과 서호면 간척공사에 착수하여 1944년 1기 방조제 공사를 끝냈지만 이후 더 이상 진척하지 못했다. 조선총독부가 군량미 조달을 위해 1940년부터 미곡증산정책을 시행하면서 학파농장의 간척개간 및 토지경영이 국책에 부응한다고 인정받았고, 같은 해 11월 기원 2600년 축전 기념장을 받았다. 1941년 6월 광주대화숙 고문, 8월 흥아보국단 상임위원 겸 전라남도 위원, 10월 조선임전보국단 발기인 및 이사로 위촉되었다. 1941년 9월 화신상사(株) 취체역, 12월 조선방송협회 평의원을 맡았다.

1942년 4월 조선총독부가 강제로 호남은행을 동일은행에게 매각하도록 하여 강제 매각당한 후 받은 은행자산 27만원을 일본군용기 헌납(8만원), 전남육영회(2만원), 전남군인후원회(1만원), 총령탑(忠靈塔) 건립기금(3천원), 광주병사부(1만원), 광주 방공 경호시설비(5천원), 광주대화숙(5천원), 광주재향군인회(3천원), 보성전문학교도서관(5천원), 호남은행지점 소재지 공공단체(11만 4천원) 등에 기부했다. 1942년 11월 전남산업(株) 대표취체역, 1943년 5월 조선농지개발영단 평의원, 11월 임시특별지원병제 실시하는 취지를 선전하는 전라남도 지역파견자로 선정되었다. 1944년 7월 화신산업(株) 취체역을 맡았다.

해방 직후 조선이화학공업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유리 제조를 시도했으나 실패하였다. 1946년 9월 광주중학기성회에 50만원을 기부했다. 1949년 5월 반민특위에 조사를 받았으나 8월 반민특위 특별검찰부에 의해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무송 현준호 가옥



무송헌재랑행장(茂松玄齋郎行狀)

선비가 벼슬을 하면 왕을 보필(輔弼)하고 퇴직 후에는 산야에 한가히 은거(隱居)하여도 덕망(德望)과 선행(善行)한 사실이 있으면 글로써 기록하여 발천(發薦)하는 것이 역사창조(歷史創造)에 큰 의의가 되며 따라서 후세에 전하는 방법이다. 이로써 당세(當世)에 도학(道學)이 높은 분을 찾아 생전에 언행일체를 유실(遺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글로 행장(行狀)을 짓는 뜻이니 그 또한 어려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에 현군(玄君) 무송(撫松)은 아름다운 덕(德)과 행적(行蹟)이 가상(嘉尙)하여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장차 후세에 잘 전하여야 할 것이다. 그 가족이 公의 유록(遺錄)을 싸가지고 나에게 와서 그 행장(行狀)을 지어달라고 부탁하므로 비록 노쇠하였으나 사양할 수가 없어 보첩(譜牒)을 삼가 상고(詳考)하여 보니 준호(俊鎬)는 휘(諱)요 무송(撫松)은 호(號)이며

이씨조선(李氏朝鮮)에 들어와서 높은 벼슬과 공훈이 뛰어난 충신들이 세상에 빛나고 휘(諱) 윤명(允明)은 사직(司直)과 군수(郡守)를 지내시다가 사퇴하시고 영암(靈巖)으로 남래(南來)하신 선조(先祖)이시다. 그 후로 감령(監令) 낭관(郎官) 사마(司馬) 등(等) 청관(淸官)이 계승(系承)하여 그치지 않고 또 큰 사문(師門)에 집지(執贄)하여 이름 높은 재상(宰相)들과 교유하였으니 그 성산(星山) 세첩(世帖) 백여권을 보면 능히 고가(故家)의 유업(儒業)으로 덕망이 전하여 내려온 것을 잘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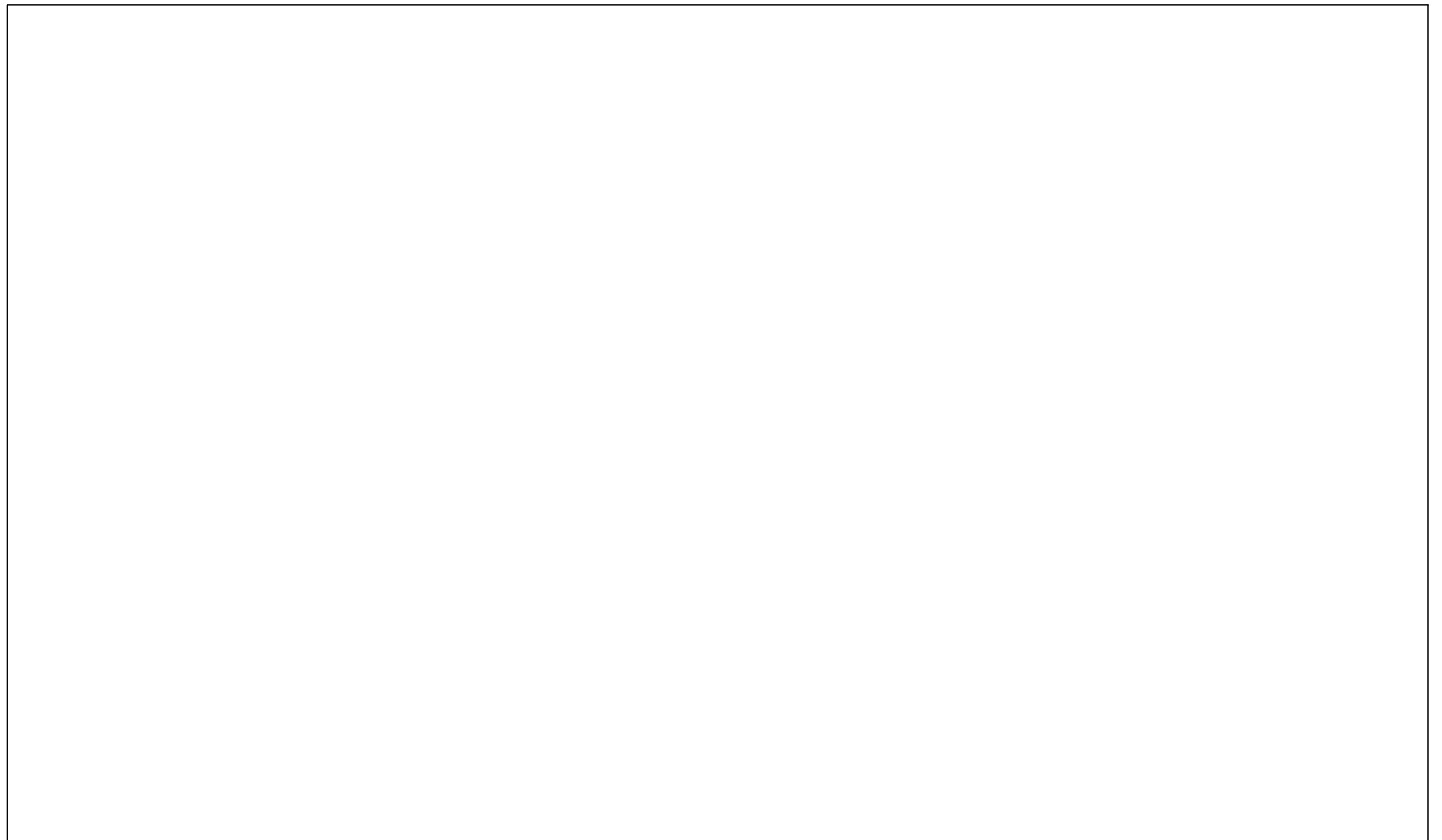
公의 아버지의 휘(諱)는 기봉(基奉)이요 호(號)는 학파(鶴坡)요 성균생원(成均生員)이시다. 천성(天性)이 효우(孝友)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여 난중(亂中)에 명(命)을 보존하시니 다 장자(長者)라 칭송(稱頌)하였다. 비(妣)는 남평문씨(南平文氏)이니 부덕(婦德)과 규범(閨範)을 갖춘 분으로 이남(二男)을 낳으시어 장남(長男) 휘(諱) 용호(龍鎬)는 백부(伯父)의 후(後)로 출계(出系)하고 군(君)이 서기 1889년 8월29일(고종(高宗) 기축(己丑))에 나시니 두각(頭角)이 높고 성음(聲音)이 크고 제소(啼笑)를 좋아하지 아니하여 아이들이 혹 싸우면 꾸짖어 풀어 놓고 효유하여 마지 않으셨다.

서당에 나아가 공부를 할 때에 동창생들이 학용품이 없으면 조용히 나눠주고 배고파하는 자에게는 집에 데리고 와서 같이 먹으니 公의 인자(仁慈)하심을 가히 알지로다. 어머니께서 일찌기 돌아가심에 어린 나이로 구슬피 울어 제사(祭祀)를 받들었으니 성인(成人)과 같도다. 계모(系母) 해미곽씨(海美郭氏)를 섬기는데 친모와 같이 효로 받들어 봉양(奉養)하되 출타(出他)하였다가 진미(珍味)를 얻으면 가져다가 드리니 어머니가 종족(宗族)에게 칭찬하되 효자는 이 아이니 비록 내가 낳아도 이에 지나지 못한다고 하였다.

서기1906년(고종(高宗)병오(丙午))에 조경묘(肇慶廟)(나라의 사랑)의 참봉(參奉)이 되시며 선고(先考) 학파공(鶴坡公)을 정성껏 모시었다. 외국에 유학할 때에 한 달이면 세 번씩 편지를 올리어 문후(問候)하고 만일에 열흘이 지나도록 답신이 없으면 조심스럽게 지나더니 하루는 홀연(忽然)히 수족이 떨리고 마음이 불안하여 혹시 친환(親患)이나 있을까 두려운 마음에 견딜 수가 없어서 곧 행장(行裝)을 차려 밤에 달려 집에 돌아가 보니 과연 학파공(鶴坡公)의 병환이 위독한지라 반년(半年)을 시탕(侍湯)하였으며, 또한 좋은 약을 널리 구하여 극진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시키지 않고 몸소 먼저 약을 맛본 연후에 복용토록 하고 밤이면 반드시 북두칠성(北斗七星)께 쾌유를 묵도(默禱)하였으니 이 같은 효도가 어찌 많으리오.

또한 옛날 유검루(庾黔屨)가 어찌 이에 더 하리오. 인명(人命)은 한정(限定)이 있어서 그 부친께서 마침내 서거하시니 염습지례(斂襲之禮)와 상장지례(喪葬之禮)를 가례(家禮)에 의하여 엄수하였으니 이

무송헌재랑행장(茂松玄齋郎行狀) 원본



52.撫松玄齋郎行狀

夫士入而廟堂輔弼出而山野遺逸苟有可稱之德可書之行則均之有狀而表章之此乃史置義傳之法也是以必就當世之有道謁文而狀之其規甚謹嚴約而不遺一事盈而不溢一辭狀之道憂憂乎其亦難矣哉玄君撫松德美而行善固已著聞於前亦將不朽於後常理也其家人欲及時而狀其德抱遺錄屬余而狀雖甚衰癯終不可辭謹按俊鎬其諱也撫松其號也玄氏高麗平章事諱覃胤爲肇祖諱德秀兵部尚書封星山君後世因其封而籍焉逮本朝亦有名宦忠勳及要職清秩字牧之官燁然照世至諱允明以司直除郡守解印賦歸卽其南來之祖也自是世守隱德藏修山林逍遙江湖詩禮相承孝友相勉恬視青雲猶有以遺逸九登剡薦而不就然世有蔭仕監令郎官司馬等品秩相禪不絕又多抱贊師門托交名宰考其星山世帖百許卷足以想見古家儒業之有所受來而能世其德也考諱基奉號鶴坡成均生員孝友根性陽和噓氣恤貧分財遭亂活命休休容物咸稱長者妣南平文氏有女士風男龍鎬出爲伯父基東後以 高宗己丑八月二十九日生君頭角岐嶷聲音雄亮不喜啼笑稍長從群兒遊帝自導率或相聞閱者必誚罵而解之或相詬辱者必曉喻而止之群兒相與告戒雖以血氣致爭端輒相罷休不欲被其知也及就傳受學同窓諸伴或有不瞻學用諸具者必從容分與之使不乏用或書聲低微帶得氣餒者每持果脯而啖之且携而及時還家必共飯之塾長長老皆許其將爲遠器也先妣見背方以冲年哭踊號泣奉筵祭奠儼若成人逮事繼母海美郭氏起敬起孝要在承歡伺候晨昏動問寒煖未嘗或懈旅行若見珍味時物則必懷歸而遺之母常感悅語宗族曰孝哉此兒吾雖生育烏可必其有此也 高麗丙午除肇慶廟叅奉鶴坡公平素好氣義廣交遊其致養也必觀其志便體之具適口之味常備不

乏怡心之事致悅之物常設無缺信乎志體俱養者也嘗遊學外國憫定省久曠必月三上書以問候若彌旬昨信必皇皇如也一日忽肉顫心動驚懼不堪意謂家中有警即日治裝星夜馳還則鶴坡公果淹疾委牀褥矣在右咸歎異之曰病報未通心驚先返求之古人庾黔屢未能獨多也半載侍湯訪醫問藥罔不致極而其進藥進膳雖扶侍足人必躬執而先嘗乃進夜必稽首北辰號泣默禱如此篤孝其多乎哉大限有定竟考終其襲歛殯奠一依家禮及葬非止數郡畢至便成人海輓誄祭奠纏連於柩車前後舉夫不得鑽進移晷淹留此可以見孝思之感人能如此也越數年移奉于瑞石下仙觀之原雖從形家之言兼爲展省之取適也其居宅之去山不一里而近每日展拜未嘗或廢有旅行則出告返謁亦無或怠洵是事死如生也路傍店叟酒媪皆慣見而稔知之每其來往皆頂手而嘖嘖稱頌之及幹家業折數百頃田先自同堂昆弟及宗族姻戚取次分與之必視其家庭之繁簡叅以情誼之淺深權衡其多寡焉早孤而冠筭失時者有不知知必優助而嫁娶之當喪憾而以歛葬爲慮者有不聞聞必厚賻而卒喪之有才有志而家貧失學者必損資就學往往成器不止於范六丈之於索遊秀才也其駕到故鄉鄉中父老必遍訪之或云裘材或云藥價或云饌需或云糧料隨其地而異其名傾橐而餉之賓客時萃有老衰人必挽而留之連日款待之其饌席必厚賑之此皆仁孝中得來而乃老吾老及人老之義也是以賢聲遠聞黃童白叟初不見其眉貌者傳相告語曰某氏慈惠家德行人其不刊之口碑皆一辭也平居賓朋滿座談古論今賦詩彈棋傾樽相勸酣歌逸豫自有孔北海高風也客去簾垂夜靜燈煌微醺助興輒擊節浪誦武侯出師表數遍寓其感慨可伍胡致堂逸氣也時島酋狂嗥八表被吞萬姓被囓恒自咄咄憤膽倒吞最憂民生之爲其肉剜血嘍無以聊生遂謀于同志勸立一社曰湖南銀行使農商工者相貸而做業不多年其賴而恢業者指不勝數朗州有西湖吞吐潮汐一碧萬頃遂聚丁起工將遮斷海心換作沃野費得五六萬大

堤如虹海若退廳巨浸忽爲平野視古蘇公堤陳公堤等之仗國威傾州力成就者不其多乎性耽山水妙香金剛智異漢拏等名山柳京松都鷄林白馬之古都遍到而周觀東而扶桑北而遼蘇之外國名所亦領略殆盡是以眼孔恢恢習次浩浩凡事物之來不以宴安微小而忽之不以急促重大而動之徑權適用無事後之悔吝也噫西風驟起東夷捲走以吾人建吾國係是常理奈之何一線南北分而二之一朝北軍南侵勢如驟雨人民奔竄里落荒涼其將敗退肆意劫掠濫行殺傷粗有令名者視同仇讎輒加殘害者滔滔皆是耳以撫松而亦被勒竟不病而終卽庚寅八月十七日也昔石季倫以私嫌遭害孔文舉無辜被禍是皆盛名爲因也亂世名聞果古今通患歟以同月二十一日葬于仙觀里負庚原從先祖也配慶州金氏德信女生三男三女男永翊永植永源女白完基金仁龍朴洪奎墓仙觀里戌坐原二配平山申氏喆坤女舉三男三女男永國永瑞永晚女吳達三餘皆幼竊念撫松挺魁梧之姿稟豪邁之氣不恃強而凌弱不挾勢而輕人施惠而無矜伐好義而無驕吝設銀行開工場防海拓野其敏於心計者智也其敢於邁進者勇也智以揣事勇以逢事其智勇儘有過人者也蓋作善降祥作惡降厲天理之固然今何反之以若行善畜德之人而不得令終歟人事變處亦不能無惑於天理也古人有云天之殺恒在善人是雖激射之言以今觀之不可全以爲妄也遂以余所始終聞觀者叅其遺錄旁採其知舊之所說道直據其宗族之所稱謂叅互而撰次之以俟立言君子之有以攷證而採入於史編也夫

撫松齋郎沒後四年癸巳冬

冠山 高光烈 撰

참고문헌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Ⅳ-19: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이유서(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현대문화사, 2009)
- 『친일인명사전』3(민족문제연구소, 2009)
- 『한국기업가사』(조기준, 박영사, 1983)
- 『실록 재계백화』5·6(배명진, 국제신보사, 1974)
- 『동아일보』(1923.9.12; 12.31.)
- 「일제시기 호남재벌 현준호의 학파농장과 자본축적 시스템」(오미일, 『한국민족문화』35, 2009)
- 「현준호의 자본형성 과정과 친일행위」(박이준, 『한국근현대사연구』40, 2007)

영원 永源, 27세.

대한민국의 기업인. 전 현대상선 대표이사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부친
1927년 출생, 1946년 광주서공립중학교, 1950년 서울대학교 영문학과, 상학과 졸업. 1950년 아버지 현준호와 형 현영익(玄永翊)이 조선인민군에 의해 처형되고, 둘째 형 현영직(玄永植)이 6.25 전쟁 참전 중에 강원도에서 전사하자 이후 현준호의 실질적인 장남 역할을 했다.

1950년부터 1956년까지 한국은행 도쿄지점에서 근무했다. 그 후 전남방직 창업주 김용주의 딸 김문희(용문학원 이사장)와 결혼, 장인 김용주의 권유로 1956년부터 1960년까지 신한제분 전무이사를 지냈다.

1960년부터 1964년까지 대한제철 대표이사 겸 사장을 역임한 후, 1964년에 신한해운을 창립했다. 신한해운이 1984년 현대상선에 합병될 때까지 신한해운 대표이사를 지냈고, 1984년부터 1995년까지 현대상선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장인 김용주 초대 이사장을 뒤이어 1980년부터 1998년까지 8년간 2대 용문학원 이사장으로 재임했다. 2006년 사망했다. 둘째 딸 현정은이 1976년에 정주영의 아들 정몽헌과 결혼했다. 2003년 정몽헌의 사망 이후 현정은은 현대그룹 회장이 되었다.



고 현영원 회장의 영결식 모습. 2 고 현영원 회장의 장례차가 나가는 모습. 이날 많은 현대그룹 직원들은 아침부터 영결식이 치러지는 아산병원에 모여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3 고 정몽헌 회장과 함께 미국 유학시절 찍었던 사진. 4 현정은 회장과 고 정몽헌 회장의 즐거웠던 시절. 5 지난 2004년 고 정몽헌 회장의 묘소에서 열린 추모식에서 현정은 회장과 첫째딸 지이씨가 묵념을 하고 있다. 6 지난해 10월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남북경협 관계자 오찬'에 참석한 현정은 회장(가운데)의 모습.

정은 貞恩, 28세.

현대그룹 회장. 1955년 1월 26일에 아버지 현영원과 어머니 김문희 사이에서 4녀 중 차녀로 태어났다. 1976년 기업인 정주영의 아들 정몽헌과 결혼하여 1남 2녀를 두었다. 이후 오

랫동안 전업주부로 살았다가 2003년 8월 4일에 남편 정몽헌이 대북 불법송금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던 중 사망하면서 뒤를 이어 2003년 10월 21일에 현대그룹의 새로운 회장으로 취임했다. 이후 정상영 KCC그룹 명예회장과 경영권 다툼을 벌여 승리하며 경영난을 겪고 있던 현대그룹을 다시 정상화시켰다. 2009년 8월 16일에 현대그룹 회장 신분으로 북한의 김정일과 면담했다. 정치인 김무성은 현정은의 외삼촌이다.



영국 永國, 27세.

1936년생, 고대졸, 고우건업 회장, 한국권투위원회 이사, 대중회 고문

경호 景鎬, 26세.

호 조경(筱莖), 1921년신유(辛酉)생, 민주당 중앙위원, 민주당 해남군당위원장

쥬니 Jyu-ni, 28세.

1985년을축(乙丑)생, 탤런트, 가수, 걸그룹 씨씨로 데뷔. 가명 주안, 쥬니로 활동하다 현재는 본명 현쥬니로 배우 활동 중. 2010년 제5회 아시아모델상 시상식 모델특별상, 뉴스타상, 서울 주니어 챔버 오케스트라 단원, 서울종합예술전문학교 실용음악학과 졸업.

만호 萬鎬, 26세, 1936년생,

호 강암(剛菴), 전남공고교감, 국민훈장목련장 수훈, 사직공파광주종친회장,
군산종친회장, 대종회 지도위원

영은 永殷, 27세, 1930년생, 영암종친회장, 대종회 고문

영균 永均, 27세, 1935년생, 재경영암종친회장, 대종회 지도위원

영록 永錄, 27세, 1928년생, 광주영암종친회장, 초등학교장, 대종회 지도위원

식 植, 28세, 1943년생, 재경영암종친회장, 대종회 부회장

영훈 泳勳, 27세, 1937년생, 대종회 부회장

영준(홍석) 永駿 27세, 1937년생, 다주마을금고 이사장, 대종회 부회장

영송 永松, 27세, 1939년생, 여수우체국장, 부이사관, 대종회 부회장

영표 永標, 27세, 1945년생, 대종회 부회장

문정 汶禎, 27세, 1961년생, 법무사, 대종회 부회장

천식 千植, 28세, 1959년생, 대종회 부회장

천섭 千燮, 28세, 1961년생, 대종회 부회장

영률 永律, 27세, 1941년생, 대종회 이사

왕식 旺植, 28세, 1947년생, 극동인테리어 대표, 대종회 이사

유식 有植, 28세, 1957년생, 지역농협 상무, 대종회 부회장

일재 一材, 28세, 1952년생, 농협지점장, 대종회 부회장

충호 忠鎬, 26세, 대종회 부회장

희준 熙俊, 29세, 1959년생, 영암군 사무관, 대종회 부회장

자희 資熙, 29세, 1954년생, 우정산업사 대표, 대종회 이사

만식 晩植, 28세, 1953년생, 재경영암종친회장, 국회홍보담당관, 대종회 감사, 지도위원

상원 尙原, 28세, 1969년생, (주) HDS대표, 대종회 사무처장